

# 十二經脈의 循行歌와 經穴歌에 對한 研究

-十二經脈의 循行 部位 및 方向과 經穴歌의 分類를 위주로-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生理學教室

姜東允 · 趙學俊\* · 金昊顯

## Study on the 'poems of prograde' of twelve meridians and 'poems of acupoints'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Kang, Dong-Yun · Jo, Hak-Jun · Kim, Ho-Hyun

We translated 'poems of prograde' and 'poems of acupoints' which in the poems of acupoints and based on that, We considered the circulating direction and region of twelve meridian comparing the notion in common today with that in the 'poems of acupoints'. Finally, we got the conclusion like below

1. About circulating line of lung meridian, it'll be proper to correct that lung meridian passes through inner edge of biceps brachii muscle like heart and pericardium meridian.

2. On the part of kidney meridian in 'poems of prograde', it's right to be corrected as the circulating line that thru the inner line of vertebrae, enters heart and lung, and scattered tho breast.

3. 'Poems of prograde' can be separated two kinds go by starting-acupoints, ending-acupoints. First is 'poems of prograde' is begun from the end of members and ended in the body. Second is from Jungbu(中府) to Kimun(期門), circulating the members and the body with no ending.

4. On the above, we can find first 'poems of prograde' in 『Chimkudaejeon(鍼灸大全)』, 『YangKyungjechimkujeonso(楊敬齋鍼灸全書)』, 『Chimkudaeseong(鍼灸大成)』, also second can be found in 『Neungmunjeonsudonginjihyul(凌門傳授銅人指穴)』, 『Chimkushinso(鍼灸神書)』, 『Kumchimbijeon(金針秘傳)』, 『Kyungrakhoepyun(經絡匯編)』, 『Kyungrakko(經絡考)』, 『Jungsohoechamdongindosol(中西匯參銅人圖說)』, 『Kyungrakdoko(經脈圖考)』, 『ChimkuChuiyoung(針灸聚英)』, 『Shipsakyoungbalhwee(十四經發揮)』, 『Jakushimbopyokyul(刺灸心法要訣)』, 『Yukyongdoik(類經圖翼)』, 『Yihakimmun(醫學入門)』, etc.

5. Drawing an inference from above, the forms of 『Jokbishilmaek(足臂十一脈)』 and 『YumYangshibilmaek(陰陽十一脈)』 are in 『Mawangtoebaekso(馬王堆帛書)』, are rather foreforms of circulation line that from the end of members and ended in the body than meridian prograde.

Key Words : Meridian poems of prograde, Circulating direction and region of twelve meridians, Classification of poems of acupoints

## I. 序 論

經穴歌賦는 鍼灸 치료에 사용되는 經穴의 이름과 循行의 내용을 초학자들이 알고 기억하기 쉽도록 시(詩)의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循行歌, 經穴歌, 分寸歌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數를

\* 교신저자: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43) 649-1347. johohun@kornet.net

따지면 奇經八脈 중 任脈과 督脈만이 고유의 穴位를 가지므로 十二經脈과 함께 十四經脈의 經穴歌賦가 있다.

예로부터 鍼灸를 施術하는 初學者로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이상의 세 가지 經穴歌賦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鍼灸專門書의 내용이 약간씩 다른 점이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馬王堆의 帛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존에 定立된 針灸學說에 十二經脈의 循行方向 및 循行部位, 經脈과 臟腑의 相應關係, 經穴의 位置, 經脈學說과 診脈學說의 相互基源說 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古來의 鍼灸專門書에 기재된 세 종류의 經穴歌賦 중에서 循行歌와 經穴歌를 懸吐, 解釋하고, 그것을 근거로 十二經脈의 循行 方向 및 部位에 있어서 현재 通用되는 經脈과의 차이점과 經穴歌의 分類에 대해 약간의 知見이 있기에 발표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中國의 湖南電子音像出版社에서 제작 출판한 『中華醫典 CD』에 실려 있는 鍼灸에 대한 서적은 대략 50여종에 달한다. 그 중에서 循行歌가 있는 서적은 『鍼灸大全』, 『凌門傳授銅人指穴』, 『楊敬齋鍼灸全書』, 『針灸聚英』, 『鍼灸大成』, 『刺灸心法要訣』, 『經脈圖考』의 7종이고, 經穴歌가 있는 서적은 『鍼灸大全』, 『凌門傳授銅人指穴』, 『鍼灸神書』, 『金針秘傳』, 『經絡匯編』, 『經絡考』, 『中西匯參銅人圖說』, 『經脈圖考』, 『楊敬齋鍼灸全書』, 『針灸聚英』, 『十四經發揮』, 『刺灸心法要訣』, 『靈樞經脈翼』, 『鍼灸大成』, 『類經圖翼』, 『醫學入門』, 『鍼灸大成』의 17종이다.

上記의 書籍들에 나타난 내용을 위주로 다음과 같이 十二經脈의 循行歌, 經穴歌의 형태로 나누어서 각각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1. 十二經脈의 循行歌 및 經穴歌에 대해 懸吐, 解釋, 校勘하였다.
2. 그 懸吐, 解釋, 校勘을 근거로 十二經脈의 세 가지

經穴歌賦 중에서 循行歌, 經穴歌에 나타난 經脈의 循行 方向 및 部位와 經穴歌에 대한 내용을 『靈樞·經脈篇』 및 馬王堆 帛書의 「足臂十一脈」, 「陰陽十一脈」과 비교·고찰하였다.

## III. 本論

### 1. 循行歌

여러 鍼灸書籍을 살펴본 결과 循行歌의 내용을 대체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十二經脈의 循行歌의 내용을 『靈樞·經脈篇』 및 馬王堆 帛書의 「足臂十一脈」, 「陰陽十一脈」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

#### (1) 手太陰肺經

① 『鍼灸大全』<sup>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2)</sup>, 『楊敬齋鍼灸全書』<sup>3)</sup>, 『針灸聚英』<sup>4)</sup>, 『鍼灸大成』<sup>5)</sup>

#### 【原文】

手太陰肺中焦生하여 下絡大腸出賁門이라. 上膈屬肺從肺系하고 系橫出腋脇中行이라. 肘臂寸口上魚際하여 大指內側爪甲根이라. 支絡還從腕後出하여 接次指屬陽明經이라.

#### 【解釋】

手太陰 肺經의 脈은 中焦에서 생겨서 아래로 大腸에 絡하여 賁門으로 나온다. 膈으로 올라가서 肺에 屬하여 肺系를 따르고 系가 옆으로 腋과 脇의 中行(중향)으로 나온다. 肘로, 臂로 寸口로 하여 魚際로 올라가서 大指의 內側인 爪甲의 뿌리로 간다. 支絡은 도로 腕後를 따라서 나와서 次指에 接하여 陽明經에 속한다.

- 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 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 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 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9.
- 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4.

② 『刺灸心法要訣』<sup>6)</sup>

【原文】

手太陰肺中焦生하여 絡腸循胃散流行이라. 上膈屬肺從肺系하여 橫出腋下臑肘中이라. 循臂寸口上魚際하여 大指內側爪端通이라. 支絡還從腕後出하여 接次指屬陽明經이라.

【解釋】

手太陰 肺經의 脈은 中焦에서 생겨서 大腸에 絡하여 胃를 따라서 흠어져서 흘러간다. 膈으로 올라가서 肺에 屬하여 肺系를 따라서 옆으로 腋下로 나와서 臑와 肘의 가운데로 나온다. 臂와 寸口를 따라서 魚際로 올라가서 大指內側의 爪端으로 通한다. 支絡은 도로 腕後를 따라서 나와서 次指에 接하여 陽明經에 속한다.

③ 『經脈圖考』<sup>7)</sup>

【原文】

手太陰肺中焦起하여  
(中焦는 當胃中脘, 在臍上四寸之分이라. 手之三陰은 從臍走手하니 皆自內而出也라.)

【解釋】

手太陰 肺經의 脈은 中焦에서 起始하여  
(中焦는 胃의 中脘의 배꼽 위 四寸의 분야에 해당한다. 手三陰은 臍으로부터 手로 달려가니 모두 안으로부터 나온다.)

【原文】

下絡大腸胃口行이라.  
(絡은 聯絡也라. 十二經이 相通하여 各有表裏하니 凡在本經皆曰屬이요 以此通彼皆曰絡이라. 當任脈水分穴之分하니 肺脈絡於大腸하고 自大腸而上復循胃口하니 即賁門也라.)

【解釋】아래로 大腸으로 絡하여 胃口로 行한다.

(絡은 聯絡이라. 十二經이 서로 通하여 각각 表裏가 있으니, 무릇 本經에 있는 것을 모두 ‘屬’이라 하

고, 이것에서 저것으로 통하는 것을 모두 ‘絡’이라고 한다. 任脈의 水分穴의 분야에 해당하니, 肺脈이 大腸에 絡하고 大腸으로부터 위로 다시 胃口를 따르니, 즉 賁門이다.)

【原文】

上膈屬肺從肺系하여  
(膈은 膈膜也라. 肺系는 即肺管이라.)

【解釋】

膈으로 올라가서 肺에 屬하여 肺系를 따라서  
(膈은 膈膜이다. 肺系는 즉 肺管이다.)

【原文】

橫出腋下하여  
(臑之下, 脅之上曰腋이라. 腋下는 即中府之旁이니 謂從肺系而橫出腋下也라.)

【解釋】

옆으로 腋下로 나와서  
(臑之下, 脅之上을 ‘腋’이라고 한다. 腋下는 즉 中府의 옆이니, 肺系로부터 옆으로 腋下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原文】

臑內縈이라.  
(臑之內側, 上至腋, 下至肘, 嫩突白肉曰臑라. 天府는 俠白之次也라.)

【解釋】

臑內에서 엮는다.  
(臑之內側으로서 위로 腋에 이르고 아래로 肘에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튀어나오고 하얀 살을 ‘臑’라고 한다. 天府는 俠白의 다음 穴이다.)

【原文】

前於心與心包脈하여  
(手之三陰은 太陰在前하고 厥陰在中하고 少陰在後也라.)

【解釋】

心和 心包脈보다 앞으로 지나가서

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64-1065.  
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手三陰은 太陰이 앞에 있고 厥陰은 가운데에 있고 少陰은 뒤에 있다.)

【原文】

下肘循臂骨下廉이라.

(臚盡處爲肘요. 肘以下爲臂라. 肘臂之交曰肘中骨이니 卽掌後高骨下廉, 骨下側也라.)

【解釋】

下肘循臂骨下廉이라.

(臚가 다한 곳이 肘이고, 肘 이하가 臂다. 肘와 臂가 만나는 곳을 ‘肘中骨’이라고 하니 즉 掌後 高骨의 下廉이며 骨의 下側이다.)

【原文】

遂入寸口上魚際하야

(寸口는 卽太淵穴處라. 手腕之前, 大指本節之間에 其肉隆起者爲魚라. 寸之前, 魚之後曰魚際穴이라.)

【解釋】

마침내 寸口로 들어가서 魚際로 올라가서

(寸口는 즉 太淵穴의 곳이다. 手腕의 앞과 大指의 本節 사이에 그 살이 융기한 곳이 ‘魚’이다. 寸의 앞, 魚의 뒤를 魚際穴이라고 한다.)

【原文】

大指內側爪甲根이라.

(少商穴止라.)

【解釋】

大指內側의 爪甲의 뿌리이다.

(少商穴에서 그친다.)

【原文】

支絡還從腕後出하야 接次指交陽明經이라.

(臂掌之交曰腕이라. 此本經別絡이니 從腕後上側列缺穴로 直出次指之端하야 而接乎手陽明經也라.)

【解釋】

支絡은 도로 腕後로 따라서 나와서 次指에 接하여 陽明經과 만난다.(臂와 掌이 만나는 곳을 ‘腕’이라고 한다. 이는 本經의 別絡이니 腕後의 上側에 있는 列

缺穴로부터 곧장 次指의 端에 나와서 手陽明經에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sup>8)</sup>

【原文】

肺手太陰之脈은 起於中焦하야 下絡大腸하고 還循胃口하야 上膈屬肺하고 從肺系橫出腋下하야 下循臚內호대 行少陰心主之前하야 下肘中하고 循臂內 上骨下廉하야 入寸口 上魚하고 循魚際하야 出大指之端이라 其支者는 從腕後直出次指內廉하야 出其端이라

【解釋】

肺 手太陰의 脈은 中焦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大腸에 絡하고 도로 胃口에서 따라서 膈으로 올라가서 肺에 屬하고 肺系를 따라서 옆으로 腋下로 나와서 아래로 臚內를 따라서 少陰과 心主의 앞으로 行하여 肘中으로 내려가고 臂內의 上骨의 下廉을 따라서 寸口로 들어가서 魚로 올라가고 魚際를 따라서 大指의 端으로 나온다. 그 支絡은 腕後로부터 곧장 次指의 內廉으로 나와서 그 端으로 나온다.

⑤ 馬王堆 『足臂十一脈』<sup>9)</sup>

【原文】

臂泰陰脈은 循筋上廉하야 以湊臚內하야 出腋內廉하야 之心이라.

【解釋】

手太陰의 脈은 筋의 上廉(手腕의 撓側)을 따라서 臚內에 모여서 腋의 內廉(天府)으로 나와서 心으로 간다.

⑥ 馬王堆 『陰陽十一脈』<sup>10)</sup>

【原文】

臂鉅陰脈은 在於手掌中하야 出內陰兩骨之間과 上骨下廉, 筋之上에서 出臂內陰하야 入心中이라.

【解釋】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79.

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6.

1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7.

手太陰의 脈은 手掌의 가운데에서 나와서 內陰 兩骨(즉 寸口)의 사이와 上骨의 下廉(즉 上腕의 撓側)과 筋의 위에서 나와서 臂의 안쪽(天府)으로 나와서 心中으로 들어간다.

(2)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① 『鍼灸大全』<sup>1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12)</sup>, 『楊敬齋鍼灸全書』<sup>13)</sup>, 『針灸聚英』<sup>14)</sup>, 『鍼灸大成』<sup>15)</sup>

【原文】

陽明之脈手大腸은 次指內側起商陽이다. 循指上廉出合谷하여 兩筋歧骨循臂肪이라. 入肘外廉循臑外하여 肩端前廉柱骨傍이라. 從肩下入缺盆內하야 絡肺下膈屬大腸이라. 支從缺盆上入頸하야 斜貫頰前下齒當하고 還出人中交左右하야 上俠鼻孔注迎香이라.

【解釋】

手陽明 大腸의 脈은 次指의 內側에서 商陽에서 起始한다. 次指의 上廉을 따라서 合谷으로 나와서 兩筋과 歧骨로 臂의 살찐 곳을 따라간다. 肘의 外廉으로 들어가서 臑外를 따라서 肩端의 前廉으로 해서 柱骨의 옆으로 간다. 肩下로부터 缺盆의 안에 들어가서 肺에 絡하여 膈을 내려가서 大腸에 屬한다. 그 支絡은 缺盆의 위로부터 頸에 들어가서 비스듬히 頰의 앞으로 꿰뚫어서 下齒에 當하고 도로 人中으로 나와서 左右로 만나서 위로 鼻孔을 끼고 迎香에 注入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16)</sup>

【原文】

陽明之脈手大腸은 次指內側起商陽이다. 循指上廉出合谷하여 岐骨兩筋循臂肪이라. 入肘外廉循臑外하

야 肩端前廉柱骨傍이라. 從肩下入缺盆內하야 絡肺下膈屬大腸이라. 支從缺盆直上頸하야 斜貫頰前下齒當하고 環出人中交左右하야 上俠鼻孔注迎香이라.

【解釋】

手陽明 大腸의 脈은 次指의 內側에서 商陽에서 起始한다. 次指의 上廉을 따라서 合谷으로 나와서 岐骨과 兩筋으로 臂의 살찐 곳을 따라간다. 肘의 外廉으로 들어가서 臑外를 따라서 肩端의 前廉으로 해서 柱骨의 옆으로 간다. 肩下로부터 缺盆의 안에 들어가서 肺에 絡하고 膈을 내려가서 大腸에 屬한다. 그 支絡은 缺盆으로부터 곧장 頸으로 올라가서 비스듬히 頰의 앞으로 꿰뚫어서 下齒에 當하고 도로 人中으로 나와서 左右로 만나서 위로 鼻孔을 끼고 迎香에 注入한다.

③ 『經脈圖考』<sup>17)</sup>

【原文】

手陽明經大腸脈은 次指內側起商陽이다.

(次指는 大指次指니 即食指也라. 手之三陽은 從手走頭라.)

【解釋】

手陽明經 大腸의 脈은 次指의 內側에서 商陽에서 行한다.

(次指는 大指에서 다음의 손가락이니 즉 食指이다. 手三陽은 手로부터 頭로 走行한다.)

【原文】

循指上廉入合谷하야

(循은 巡繞也라. 上廉은 上側也라. 凡經脈은 陽行於外하고 陰行於內하니 合谷은 在大指, 次指岐骨間하며 俗名虎口라.)

【解釋】

食指的 上廉을 따라서 合谷으로 들어가서

(循은 돌고 두름이다. 上廉은 上側이다. 무릇 經脈은 陽은 外로 行하고 陰은 內로 行하니 合谷은 大指, 次指의 岐骨의 사이에 있으며 俗名으로 虎口라고 한다.)

1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19-220.  
 1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4.  
 1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66-1067.

1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兩骨兩筋中間行이라.

(腕中上側 兩筋陷中은 陽溪穴也라.)

【解釋】

兩骨과 兩筋의 中間으로 行한다.

(腕中の 上側의 兩筋의 陷中은 陽溪穴이다.)

【原文】

循臂(上廉)入肘(外廉)上臑(外廉)하야 肩髃(音隅, 肩端骨罅爲肩髃)前廉柱骨旁이라.

(肩背之上과 頸項之根이 爲天柱骨이라. 本經이 由 肩髃上으로 出臑之天柱하야 會於督脈之大椎하니 六陽經이 皆會於督脈之大椎라 故로 『內經』에 以此爲 會上이라.)

【解釋】

臂의 上廉을 따라서 肘의 外廉으로 들어가서 臑의 外廉으로 올라가서 肩髃(音은 隅이다. 肩端의 骨罅이 肩髃이다.)前廉의 柱骨의 옆이다.

(肩背의 위이며 頸項의 가장 아래가 天柱骨이다. 本經이 肩髃의 위를 경유해서 臑의 天柱로 나와서 督脈의 大椎에서 만나니, 六陽經이 모두 督脈의 大椎에서 만나므로 『內經』에서 이 大椎穴을 ‘會上’이라고 하였다.)

【原文】

會此下入缺盆內하야 絡肺下膈屬大腸이라.

(自大椎而前入足陽明之缺盆하야 絡於肺中하고 復 下膈하야 當臑旁天樞之分하야 屬於大腸하니 與肺相 表裏라.)

【解釋】

여기(大椎)에서 모여서 아래로 缺盆의 안으로 들어가서 肺에 絡하고 膈을 내려가서 大腸에 속한다.

(大椎로부터 앞으로 足陽明의 缺盆으로 들어가서 肺中에 絡하고 다시 膈을 내려가서 臑旁의 天樞의 分야에 해당하여 大腸에 屬하니 肺와 서로 表裏가 된다.)

【原文】

支從缺盆上入頸하야 斜貫兩頰下齒當이라.

(耳下曲處爲頰이라.)

【解釋】

支絡은 缺盆로부터 올라가서 頸으로 들어가서 비스듬히 兩頰을 꿰뚫어서 下齒에 해당한다.

(耳下の 굽은 곳이 頰이다.)

【原文】

挾口中交左右하야 上挾鼻孔盡迎香이라.

(人中은 即督脈之水溝穴이라. 由人中而左右互交上挾鼻孔者는 自禾膠로 以交迎香하야 手陽明經止니 此乃自山根으로 交承泣穴하야 而接乎足陽明經也라.)

【解釋】

입을 끼고 人中에서 左右로 교차하여 올라가서 鼻孔을 끼고 迎香에서 끝난다.

(人中은 즉 督脈의 水溝穴이다. 人中을 경유하여 左右로 互交하여 올라가서 鼻孔을 낀다는 것은 禾膠로부터 迎香에서 교차하여 手陽明經이 그치니, 이는 山根으로부터 承泣穴에서 교차하여 乎足陽明經에 하는 것이다.)

④ 『靈樞·經脈篇』<sup>18)</sup>

【原文】

大腸手陽明之脈은 起於大指次指之端하야 循指上廉하야 出合谷兩骨之間하야 上入兩筋之中하야 循臂上廉하야 入肘外廉하야 上臑前廉하야 上肩하야 出髃骨之前廉하야 上出於柱骨之會上하야 下入缺盆하야 絡肺하고 下膈屬大腸이라 其支者는 從缺盆上頸하야 貫頰하야 入下齒中하야 還出挾口하야 交人中호대 左之右하고 右之左하야 上挾鼻孔이라

【解釋】

大腸 手陽明의 脈은 大指와 次指의 端에서 起始하여 食指의 上廉을 따라서 合谷의 兩骨의 사이로 나와서 올라가서 兩筋의 가운데에 들어가서 臂의 上廉을 따라서 肘의 外廉에 들어가서 臑의 外前廉으로 들어가서 肩으로 올라가서 髃骨의 前廉으로 나와서 올라가서 柱骨의 會上로 나오고, 내려가서 缺盆으로 들어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79.

가서 肺에 絡하고 膈을 내려가서 大腸에 속한다. 그 支絡은 缺盆으로부터 頸으로 올라가서 頰을 꿰뚫어서 下齒의 속으로 들어갔다 도로 나와서 口를 끼고 人中에서 교차하되 左는 右로 가고 右는 左로 가서 올라가서 鼻孔을 킨다.

⑤ 馬王堆 『足臂十一脈』<sup>19)</sup>

【原文】

臂陽明脈은 出中指間하야 循骨上廉하야 出臑□□ 上하야 湊臑(臑)하야 之口라.

【解釋】

手陽明의 脈은 中指에서 나와서 撓骨의 上廉(五里穴)을 따라서 臑 □□ 위로 나와서 광대뼈(臑)에서 모여서 口로 간다.

⑥ 馬王堆 『陰陽十一脈』<sup>20)</sup>

【原文】

齒脈은 起於次指與大指上하야 出臂上廉하야 入肘 中하야 乘臑하야 穿頰하야 入齒中하야 夾鼻라.

【解釋】

手陽明의 맥(齒脈)은 次指와 大指의 위에서 나와서 臂의 上廉에서 나와서 肘中에 들어가서 臑를 타고 가서 頰을 뚫고 齒중에 들어가서 鼻에 킨다.

(3)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① 『鍼灸大全』<sup>2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22)</sup>, 『楊敬齋鍼灸全書』<sup>23)</sup>, 『針灸聚英』<sup>24)</sup>, 『鍼灸大成』<sup>25)</sup>

【原文】

胃足陽明交鼻起하야 下循鼻外下入齒하고 還出俠口繞承漿하야 頤後大迎頰車裏라. 耳前髮際至額顛하

야 支下人迎缺盆底하야 下膈入胃絡脾宮이라. 直者缺盆下乳內호대 一支幽門循腹中하야 下行直合氣衝逢이라. 遂由髀關抵膝臑하야 胫跗中指內間同이라. 一支下膝注三里하야 前出中指外間通이라. 一支別走足跗指하야 大指之端經盡矣라.

【解釋】

胃 足陽明經은 鼻에서 交叉하여 起始하여 내려가서 鼻外를 따라 아래로 齒로 들어가고 도로 나와서 口를 끼서 承漿을 돌아서 頤後의 大迎 頰車의 裏로 간다. 耳前의 髮際로부터 額顛로 이르러서 支가 人迎 缺盆으로 내려가서 膈을 내려가서 胃로 들어가고 脾宮에 絡한다. 곧은 것은 缺盆으로 乳內로 내려가되 一支는 幽門으로 腹中을 따라서 下行하여 곧장 氣衝에 합2하여 만난다. 마침내 髀關으로 말미암아 膝臑에 이르러 胫과 跗와 中指內間으로 함께 간다. 一支는 膝로 내려가서 足三里로 注入하여 앞으로 中指 外間으로 나와서 통한다. 一支는 별도로 足跗와 指로 달려서 大指의 端에 胃經이 끝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26)</sup>

【原文】

胃足陽明交鼻起하야 下循鼻外入上齒라. 還出俠口繞承漿하야 頤後大迎頰車裏라. 耳前髮際到額顛하야 支下人迎缺盆底라. 下膈入胃絡脾宮이라. 直者缺盆下乳內호대 一支幽門循腹中하야 下行直合氣衝逢이라. 遂由髀關抵膝臑하야 胫跗足趾內間同이라. 一支下膝注三里하야 前出中趾外間通이라. 一支別走足跗趾하야 大趾之端經盡已라.

【解釋】

胃 足陽明經은 鼻에서 交叉하여 起始하여 내려가서 鼻外를 따라서 上齒로 들어간다. 도로 나와서 口를 끼고 承漿을 돌아서 頤後의 大迎 頰車로 간다. 耳前 髮際로부터 額顛에 이르러서 支가 人迎 缺盆으로 내려간다. 膈을 내려가서 胃로 들어가고 脾宮에 絡한다. 곧은 것은 缺盆으로 乳內로 내려가되 一支는 幽門에서 腹中을 따라서 下行하여 곧장 氣衝에 합하여

1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0.  
2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1.  
2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0.  
2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94-95.

2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68-1069.

만난다. 마침내 髀關으로 말미암아 膝臑에 이르러서 脰과 跗와 足趾의 內間으로 함께 간다. 一支는 膝로 내려가서 足三里로 注入하여 앞으로 中趾의 外間으로 달려가서 通한다. 一支는 별도로 足跗와 趾로 달려가서 大趾의 端에서 大腸經이 다 끝난다.

③ 『經脈圖考』<sup>27)</sup>

【原文】

足陽明胃鼻頰起하여

(頰은 鼻莖也니 亦曰山根이라. 足之三陽은 從頭走足이라.)

【解釋】

足陽明 胃經은 콧마루[鼻頰]에서 기시하여

(알(頰)은 콧대니 또한 ‘山根’이라고도 한다. 足三陽은 頭로부터 足으로 走行한다.)

【原文】

互交旁納足太陽이라.

(納은 入也라. 足太陽은 起睛明穴하여 與頰相近하고 陽明이 由頰中으로 互交而下行하니 故로 入之也라.)

【解釋】

서로 교차하여 곁으로 足太陽을 받아들인다.

(納은 들어감이다. 足太陽은 睛明穴에서 起始하여 콧대(頰)와 서로 가깝고 陽明이 콧대(頰)의 가운데를 경유하여 서로 교차하여 下行하므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原文】

下循鼻外入上齒하여

(鼻外는 卽承泣, 四白, 巨膠之分이라.)

【解釋】

내려가서 鼻外를 따라서 上齒로 들어가서

(鼻外는 즉 承泣, 四白, 巨膠의 分野이다.)

【原文】

2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挾口環唇交承漿이라.

(環은 繞也라. 承漿은 任脈穴이라.)

【解釋】

口를 끼고 唇을 돌아서 承漿에서 교차한다.

(環은 둘이다. 承漿은 任脈穴이다.)

【原文】

頤後(下廉이라.)大迎頰車遊하고

(腮下爲頤이요 頤下爲頤라. 頰車는 在耳下요 大迎 頤下の 穴名이라.)

【解釋】

頤後(下廉이다.)와 大迎과 頰車로 遊行한다.

(腮의 아래는 함(頤)이고 함(頤)의 아래는 頤이다. 頰車는 耳下に 있고 大迎은 頤下の 穴名이라.)

【原文】

耳前髮際至額顛라.

(耳前은 下關也라. 循髮際하여 以上頭維至額顛하여 會於督脈之神庭이라. 額顛는 髮際前也라.)

【解釋】

耳前과 髮際로 해서 額顛에 이른다.

(耳前은 下關이다. 髮際를 따라서 頭維로 올라가서 額顛에 이르러 督脈의 神庭에서 모인다. 額顛는 髮際의 前이다.)

【原文】

支循喉嚨入缺盆하여 下膈屬胃絡脾州라.

(胃與脾爲表裏라. 此支自缺盆入內하여 下膈하여 當上脘, 中脘之分하여 屬胃絡脾라.)

【解釋】

支가 喉嚨을 따라서 缺盆으로 들어가서 膈을 내려가서 胃에 屬하고 脾州에 絡한다.

(胃는 脾와 表裏가 된다. 이 支絡은 缺盆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膈을 내려가서 上脘과 中脘의 分야에 해당하여 胃에 屬하고 脾에 絡한다.)

【原文】

直者下乳挾臍中하여

(直者は 由缺盆直下而外行호대 自乳中 天樞 外陵 等穴로 下入氣街中하니 氣街在毛際兩旁, 鼠蹊上一寸 이라.)

【解釋】

곧은 것은 乳로 내려가서 臍의 가운데를 끼어서 (곧은 것은 缺盆으로부터 곧장 내려가서 밖으로 行해서 乳中, 天樞, 外陵 等の 穴로부터 내려가서 氣街의 가운데로 들어가나니, 氣街는 毛際의 兩旁인 서혜(鼠蹊)부 위의 1寸에 있다.)

【原文】

支起胃口腹裏通하여 下至氣街中而合이라.  
(由幽門循腹裏하여 過足少陰育脛之外하니 此는 即上文支者之脈이 由胃下行하여 而與直者로 復合於 氣街之中이라.)

【解釋】

支脈이 胃口에서 起始하여 腹裏로 通하여 내려가서 氣街의 가운데로 이르러 合한다.  
(幽門으로 말미암아 腹裏를 따라서 足少陰의 育脛의 밖을 지나니, 이는 즉 上文의 支脈이 胃로 말미암아 下行하여 곧은 것과 다시 氣街의 가운데에서 合한다.)

【原文】

遂下髀關伏兔逢이라(膝上穴名이라.)

【解釋】

마침내 髀關, 伏兔(膝上の 穴名이다.)로 내려가서 만난다.

【原文】

膝膕之中循脛外하여 足跗中指內間終이라.  
(膝蓋曰膕이요 骨曰脛이요 足面曰跗라. 此三者는 犢鼻, 巨虛, 衝陽等穴之次也라. 乃循內庭하여 入中指內間하여 而出厲兌하니 足陽明經이 止此라.)

【解釋】

膝膕의 가운데에서 脛外를 따라서 足跗로 해서 中指의 內間에서 끝난다.

(膝蓋를 ‘膕’이라 하고, 骨을 ‘脛’이라 하고, 足面을 ‘跗’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犢鼻, 巨虛, 衝陽 등 穴의

순서이다. 이에 內庭을 따라서 中指의 內間으로 들어가서 厲兌로 나오니 足陽明經이 여기에서 그친다.)

【原文】

支者下廉三寸別하여 下入中指外間列이라.  
(廉은 上廉也이라. 下廉三寸은 即豐隆穴이니 是爲 陽明別絡이라. 故로 下入中指外間이라.)

【解釋】

支脈은 下廉의 三寸에서 나뉘고 내려가서 中指의 外間으로 들어가서 나열되어 있다.

(廉은 上廉이다. 下廉의 三寸은 즉 豐隆穴이니 이는 陽明의 別絡이다. 따라서 내려가서 中指의 外間으로 들어간다.)

【原文】

又有支者別附上하여 大指之間太陰接이라.

(又其支者는 自附上衝陽穴로 次別行하여 入大指間하여 斜出足厥陰行間之次하여 循大指出其端하여 而接乎足太陰經也라.)

【解釋】

또 支脈이 있어서 附上에서 별도로 大指의 사이에서 太陰과 接한다.

(또 그 支脈은 附上의 衝陽穴로부터 차례대로 별도로 行하여 大指의 사이로 들어가서 비스듬히 足厥陰의 行間의 다음으로 나와서 大指를 따라서 그 端에서 나와서 足太陰經에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sup>28)</sup>

【原文】

胃足陽明之脈은 起於鼻하여 (之)交頰中하여 旁納 太陽之脈하여 下循鼻外하여 入上齒中하고 還出挾口 環脣하고 下交承漿하고 却循頰後下廉하여 出大迎하여 循頰車하여 上耳前하여 過客主人하여 循髮際하여 至額顛라. 其支者는 從大迎前下人迎하여 循喉嚨 入 缺盆하여 下膈하여 屬胃하고 絡脾라. 其直者는 從缺盆下乳內廉하여 下挾臍하여 入氣街中이라. 其支者는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p.79-80.

起於胃口하야 下循腹裏하야 下至氣街中而合하야 以下髀關하야 抵伏兔하야 下(入)膝膕中하야 下循脛外廉하야 下足跗하야 入中指內間이라. 其支者는 下膝[廉]三寸而別하야 下入中指外間이라. 其支者는 別跗上하야 入大指間出其端이라.

【解釋】

胃 足陽明의 脈은 鼻에서 起始하여 頰中으로 가서 交叉하여 頰으로 太陽의 脈을 받아들여서 아래로 鼻外를 따라서 上齒의 속으로 들어가고 도로 나와서 口를 끼고 脣을 돌고 아래로 承漿에서 交叉하고 떨어져나서 頤後의 下廉을 따라서 大迎으로 나와서 頰車를 따라서 耳前으로 올라가서 客主人을 지나서 髮際를 따라서 額顙에 이른다. 그 支脈은 大迎의 前下를 따라서 人迎으로 喉嚨을 따라서 缺盆으로 들어가서 膈을 내려가서 胃에 屬하고 脾에 絡한다. 그 竅은 脈은 缺盆으로부터 乳의 內廉으로 내려가서 아래로 臑를 끼고 氣街의 속으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胃口에서 올라가서 아래로 腹裏를 따라서 아래로 氣街의 속에 이르러 合하여 髀關으로 내려가서 伏兔에 이르러 아래로 膝膕의 속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脛의 外廉을 따라서 足跗로 내려가서 中指內의 사이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膝[廉]의 三寸으로 내려가서 나뉘어져서 아래로 中指外의 사이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跗上에서 나뉘어져서 大指의 사이로 들어가서 그 端으로 나온다.

⑤ 『足臂十一脈』<sup>29)</sup>

【原文】

足陽明脈은 循脛中하야 上貫膝中하야 出股하야 夾少腹하야 上出乳內廉하야 出噓하야 夾口하야 以上之鼻라.

【解釋】

足陽明脈은 脛中을 따라서 위로 膝中을 貫通하여 股로 나와서 少腹을 끼고 위로 乳의 內廉으로 나와서 噓으로 나와서 口를 끼고 올라가서 鼻로 간다.

⑥ 『陰陽十一脈』<sup>30)</sup>

2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95.  
3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96.

【原文】

陽明脈은 繫於髀骨外廉하야 循髀而上하야 穿顙하야 出魚股(之廉하야 上)穿乳하야 穿頰하야 出目外廉하야 環顏이라.

【解釋】

陽明脈은 정강이뼈[髀骨]의 外廉에 매어있어서 정강이[髀]를 따라서 올라가서 종지뼈[顙]를 뚫고 어고(魚股)의 모서리로 나와서 위로 乳를 뚫어서 頰을 뚫어서 目的 外廉으로 나와서 얼굴[顏]에서 돈다.

(4)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① 『鍼灸大全』<sup>3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32)</sup>, 『楊敬齋鍼灸全書』<sup>33)</sup>, 『針灸聚英』<sup>34)</sup>, 『鍼灸大成』<sup>35)</sup>

【原文】

太陰脾起足大指하야 上循內側白肉際라. 核骨之後內踝前으로 上膈循脛脛膝裏라. 股內前廉入腹中하야 屬脾絡胃與膈通이라. 俠喉連舌散舌下하고 支絡從胃注心宮이라.

【解釋】

足太陰의 脾脈은 足大指에서 起始하여 위로 발의 內側의 白肉際를 따른다. 核骨의 뒤와 內踝의 앞으로 지나서 膈을 올라서 脛, 脛, 膝의 안쪽을 올라간다. 股의 內前廉으로 腹中으로 들어가서 脾에 屬하고 胃에 絡하여 膈과 通한다. 喉를 끼고 舌에 이어져서 舌下로 흩어지고, 支絡은 胃로부터 心宮으로 注入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36)</sup>

【原文】

太陰脾起足大趾하야 上循內側白肉際라. 核骨之後

3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20-221.  
3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5.  
3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1.

內踝前으로 上踰循脛脛膝裏라. 股內前廉入腹中하야 屬脾絡胃與膈通이라. 俠喉連舌散舌下하고 支絡從胃 注心中이라.

[解釋]

足太陰의 脾脈은 足大趾에 起始하여 위로 足內側의 白肉際를 따른다. 核骨의 뒤와 內踝의 앞으로 膈을 올라가서 脛, 脛, 膝의 안쪽을 따른다. 股의 內前廉으로 腹中에 들어가서 脾에 屬하고 胃에 絡하여 膈과 通한다. 喉를 끼고 舌에 이어져서 舌下에서 흘러지고 支絡은 胃로부터 心中으로 注入한다.

③ 『經脈圖考』<sup>37)</sup>

【原文】

太陰脾起足大指하야 (脾起足大指端隱白穴이라. 足之三陰은 從足走腹이라.)

[解釋]

足太陰의 脾脈은 足大指에서 起始하여 (脾는 足大指端의 隱白穴에서 起始한다. 足三陰은 足으로부터 腹으로 走行한다.)

【原文】

循指內側白肉際라.

[解釋]

足大趾의 內側의 白肉際를 따른다.

【原文】

過核骨後內踝前하야

(核骨은 大指本節後이니 內側圓骨也라. 滑氏言爲 孤拐骨이라하니 非라. 蓋孤拐는 即踝骨이니 核骨惟一이요 踝骨則有內外之分이라. 滑氏以足根爲踝라하니 亦非라.)

[解釋]

核骨의 뒤와 內踝의 앞을 지나서

(核骨은 足大指의 本節後이니 內側의 둥근 뼈다. 滑氏가 말하기를 ‘고괴골(孤拐骨)이다.’라고 하니 그

르다. 대개 고괴골(孤拐骨)은 즉 踝骨이니, 核骨은 오직 하나이고 踝骨은 內外의 区分이 있어서 둘이다. 滑氏가 ‘足根이 踝다.’라고 하니 또한 그르다.)

【原文】

上踰(音煨)이라. 經中與膈通用이니 足趾也라 亦名 腓腸이라.) 循脛(本經은 由脛後漏谷으로 上行하야 交出足厥陰之前하니 即地機之分이라.) 膝股裏라.(股는 大腿也라. 一曰腓內爲股라.)

[解釋]

膈으로 올라가서(音이 하[煨]다. 『內經』에서 膈과 通用하였으니 장단지[足趾]이다. 또한 ‘비장(腓腸)’이라고 이름한다.) 脛과(脾脈의 本經은 脛後의 漏谷을 經유하여 上行하여 足厥陰의 앞에서 交叉하여 나오니 즉 地機의 분야다.) 膝股의 안쪽을 따른다.(股는 大腿이다. 혹은 ‘넓적다리 안쪽’이 股라고도 한다.)

【原文】

股內前廉入腹中하야 (自衝門穴로 入腹內行라.)

[解釋]

股의 內前廉으로부터 腹中으로 들어가서 (衝門穴로부터 腹內로 들어가서 行한다.)

【原文】

屬脾絡胃(當中脘, 下脘之分이라.) 上膈通이라.

[解釋]

脾에 屬하고 胃(中脘, 下脘의 분야에 해당한다.)에 絡하여 膈을 올라가서 通한다.

【原文】

挾咽連舌散舌下하고

(自胃脘上行하야 連舌本하야 散舌下而終이라.)

[解釋]

咽을 끼고 舌에 이어져서 舌下로 흘러지고

(胃脘으로부터 上行하여 舌本에 이어져서 舌下로 흘러져서 마친다.)

3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支者從胃注心宮이라.

(足太陰外行者는 由腹之四行上府舍, 腹結等穴로 而散於胸中하야 而止於大包라. 其支者는 內行從胃腕 別上膈하야 注心中하야 而接乎手少陰經也라.)

【解釋】

支脈은 胃로부터 心宮으로 注入한다.

(足太陰에서 밖으로 行하는 脈은 腹의 四行 上의 府舍, 腹結 等의 穴을 經유하여 胸中에 흩어져서 大包에서 그친다. 그 支脈은 안으로 行하여 胃腕으로부터 나뉘어져서 膈을 올라가서 心中에 注入하여 手少陰經과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sup>38)</sup>

【原文】

脾足太陰之脈은 起於大指之端하야 循指內側白肉際하야 過核骨後하야 上內踝前廉하야 上踰[膈]內하야 循脛骨後하야 交出厥陰之前하야 上(循)膝股內前廉하야 入腹하야 屬脾하고 絡胃하며 上膈挾咽하야 連舌本하고 散舌下라. 其支者는 復從胃하야 別上膈하야 注心中이라.

【解釋】

脾의 足太陰脈은 大指의 端에서 起始하여 足大指의 內側 白肉際를 따라서 核骨를 後하야 上內踝前廉하야 上踰[膈]內하야 循脛骨後하야 交出厥陰之前하야 上(循)膝股內前廉하야 入腹하야 屬脾하고 絡胃하며 上膈挾咽하야 連舌本하고 散舌下라. 其支者는 復從胃하야 別上膈하야 注心中이라.

⑤ 『足臂十一脈』<sup>39)</sup>

【原文】

足泰陰脈은 出大指內廉骨際하야 出內踝上廉하야 循脛內廉하야 口膝內廉하야 出股內廉이라.

【解釋】

足太陰의 脾脈은 大指 內廉의 骨際에서 나와서 內

踝의 上廉으로 나와서 정강이[脛]의 內廉을 따라서 膝의 內廉을 口하여 股의 內廉으로 나온다.

⑥ 『陰陽十一脈』<sup>40)</sup>

【原文】

泰陰脈은 是胃脈也니 被胃하야 出魚股陰下廉과 膈上廉하야 出內踝之上廉이라.

【解釋】

足太陰의 脈은 胃脈이니 胃에 達[被]하여 魚股 內[陰]의 下廉과 膈의 上廉으로 나와서 內踝의 上廉으로 나온다.

(5) 手少陰心經(手少陰心經)

① 『鍼灸大全』<sup>4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42)</sup>, 『楊敬齋鍼灸全書』<sup>43)</sup>, 『針灸聚英』<sup>44)</sup>, 『鍼灸大成』<sup>45)</sup>

【原文】

手少陰脈起心中하야 下膈直與小腸通이라. 支者還從肺系走하야 直上咽喉繫目瞳이라. 直者上肺出腋下하야 膈後肘內少海從이라. 臂內後廉抵掌中하야 兌骨之端注少衝이라.

【解釋】

手少陰脈은 心中에서 起始하여 膈을 내려가서 곧장 小腸과 通한다. 支脈은 도로 肺系를 따라서 走行하여 곧장 咽喉로 올라가서 눈동자[目瞳]에 매인다. 그 直脈은 肺로 올라가서 腋下로 나와서 膈後와 肘內의 少海를 따른다. 臂內後廉으로 掌中에 이르러서 兌骨의 端에서 少衝으로 注入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46)</sup>

4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4.  
4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1.  
4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5.  
4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73-1074.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0.  
3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3.

【原文】

手少陰脈起心中하여 下膈直與小腸通이라. 支者還從肺系走하여 直上喉嚨系目瞳이라. 直者上肺出腋下하여 膈後肘內少海從이라, 臂內後廉抵掌中하여 銳骨之端注少衝이라.

【解釋】

手少陰脈은 心中에서 起始하여 膈을 내려가서 곧장 小腸과 通한다. 支脈은 도로 肺系를 따라서 走行하여 곧장 咽喉로 올라가서 눈동자[目瞳]에 매인다. 그 直脈은 肺로 올라가서 腋下로 나와서 膈後와 肘內의 少海를 따른다. 臂內後廉으로 掌中에 이르러서 銳骨의 端에서 少衝으로 注入한다.

③ 『經脈圖考』<sup>47)</sup>

【原文】

手少陰脈起心經하여

(心當五椎之下하여 其系有五라. 上系連肺하고 肺下繫心하고 心下三系連脾肝腎이라 故로 心通五臟之氣하여 而爲之主也라.)

【解釋】

手少陰脈은 心經을 일으켜서

(心은 五椎의 下에 해당하여 그 系가 다섯이 있다. 上系가 肺와 이어지고 肺의 아래는 心에 매어 있고 心下의 三系가 脾, 肝, 腎에 이어진다. 따라서 心이 五臟의 氣에 通하여 그 主가 된다.)

【原文】

下膈直絡小腸承이라.

(當臍上二寸, 下腕之分하여 絡小腸也라.)

【解釋】

膈을 내려가서 곧장 小腸에 絡하여 잇는다.

(臍上의 二寸으로 下腕의 分야에 해당하여 小腸에 絡한다.)

【原文】

支者挾咽繫目系하여

(支者는 從心系로 出任脈之外하여 上行挾咽하여 繫目系하여 以合於內眥라.)

【解釋】

支脈은 咽에 끼어서 目系에 매어서

(支脈은 心系로부터 任脈의 밖으로 나와서 上行하여 咽을 끼어서 目系를 매어서 目內眥에 合한다.)

【原文】

直(者)從心系上肺膻이라.

【解釋】

直脈은 心系로부터 肺로 올라간다.

【原文】

下腋(其正脈은 自前心系로 復上肺하여 由足少陽淵腋之分하여 出腋下하여 行極泉하니 本經之外行者 } 始此라.) 循膈後廉(青靈穴이라.)出하여

【解釋】

腋으로 내려가서(그 正脈은 앞의 心系로부터 다시 肺로 올라가서 足少陽의 淵腋의 分야를 經유하여 腋下로 나와서 極泉으로 行하니 本經 中에 外行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한다.) 膈後廉(青靈穴이라.)을 따라서 나와서

【原文】

太陰心主之後行이라.

(手之三陰은 少陰居太陰, 厥陰之後라.)

【解釋】

手太陰과 心主의 뒤로 行한다.

(手三陰은 少陰이 太陰과 厥陰의 뒤에 居한다.)

【原文】

下肘循臂(內後廉)抵掌後하여

【解釋】

肘로 내려가서 臂의 內後廉을 따라서 掌後로 이르러서

【原文】

銳骨之端(手腕下踝爲銳骨이니 即神門穴也라.) 小

4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指停이라.

(入掌內後廉하야 循小指之內하야 出其端하니 手少陰經止此하고 乃交小指外側하야 而接乎太陽經也라. 滑氏曰 心爲君主之官이니 尊於他臟이라 故로 其交經受授에 不假支別云이라하니라.)

【解釋】

銳骨의 端(手腕의 下踝는 銳骨이니 즉 神門穴이다.)으로 小指에서 그친다.

(掌의 內後廉으로 들어가서 小指의 內側을 따라서 그 端에서 나오니 手少陰經이 여기에서 그치고, 이에 小指의 外側에서 交叉하여 太陽經에 접한다. 滑氏가 가로되 ‘心은 君主의 官이니 다른 臟보다 높으므로 그 交經의 受授함에 支別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④ 『靈樞·經脈篇』<sup>48)</sup>

【原文】

心手少陰之脈은 起於心中하야 出屬心系하야 下膈絡小腸이라 其支者는 從心系하야 上挾咽하야 繫目系라 其直者는 復從心系却上肺하야 (下)出腋下하야 [下]循膈內後廉하야 行太陰心主之後하야 下肘內하야 循臂內後廉하야 抵掌後銳骨之端하야 入掌內(後)廉하야 循小指之內하야 出其端이라

【解釋】

心 手少陰의 脈은 心中에서 起始하여 나와서 心系에 속하여 膈을 내려가서 小腸에 絡한다. 그 支脈은 心系로부터 올라와서 咽에 끼어서 目系에 매인다. 그 直脈은 다시 心系로부터 물러나서 肺로 올라갔다(내려가서) 腋下로 내려와서 (아래로) 膈의 內後廉을 따라서 手太陰과 心主의 뒤로 行하여 肘內로 들어가서 臂의 內後廉을 따라서 掌後의 銳骨의 端에 이르러 掌內(後)廉으로 들어가서 小指의 內側을 따라서 그 端에서 나온다.

⑤ 『足臂十一脈』<sup>49)</sup>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0.

4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15.

【原文】

臂少陰脈은 循筋下廉하야 出膈內下廉하야 出腋하야 湊脇이라.

【解釋】

臂少陰의 脈은 筋의 下廉을 따라서 膈內의 下廉으로 나와서 腋으로 나와서 脇에서 모인다.

⑥ 『陰陽十一脈』<sup>50)</sup>

【原文】

臂少陰之脈은 起於臂兩骨之間하야 下骨上廉과 筋之下하야 出膈內陰이라.

【解釋】

臂少陰의 脈은 臂의 兩骨의 사이에서 일어나서 骨上廉과 筋의 下로 내려가서 膈內의 陰으로 나온다.

(6)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① 『鍼灸大全』<sup>5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52)</sup>, 『楊敬齋鍼灸全書』<sup>53)</sup>, 『針灸聚英』<sup>54)</sup>, 『鍼灸大成』<sup>55)</sup>

【原文】

手太陽經小腸脈은 小指之端起少澤이라. 循手外廉出踝中하야 循臂骨出肘內側하야 上循膈外後廉이라. 直過肩解繞肩甲하야 交肩下入缺盆內라. 向腋絡心循咽隘하야 下膈抵胃屬小腸이라. 一支缺盆貫頸頰하야 至目銳眦卻入耳하고 復從耳前仍上頰하야 抵鼻升至目內眦하야 斜絡於顴別絡接이라.

【解釋】

手太陽經 小腸의 脈은 小指의 端에서 少澤에서 起始한다. 手外廉을 따라서 手踝中에 나와서 臂骨을 따라서 肘의 內側으로 나와서 위로 膈外를 따라서 後廉으로 나온다. 곧장 肩解를 지나서 肩甲을 둘러서 肩

5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15.

5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5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5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5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1.

5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5.

下에서 交叉하여 缺盆의 內로 들어간다. 腋으로 向하여 心에 絡하여 咽嚥을 따라서 膈을 내려가서 胃에 이르러 小腸에 屬한다. 一支는 缺盆에서 頸頰을 貫通하여 目銳眥에 이르러 물러나서 耳로 들어가고 다시 耳前으로부터 이에 頰으로 올라가서 鼻에 이르러 올라가서 目內眥에 이르러 비스듬히 顙에 絡하여 別絡과 接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56)</sup>

【原文】

手太陽經小腸脈은 小指之端起少澤이라. 循手外側出踝中하야 循臂骨出肘內側하야 上循臑外出後廉이라. 直過肩解繞肩胛하야 交肩下入缺盆內라. 向腋絡心循咽嚥하야 下膈抵胃屬小腸이라. 一支缺盆貫頸頰하야 至目銳眥卻入耳하고 復從耳前仍上頰하야 抵鼻升至目內眥하야 斜絡於顙別絡接이라.

【解釋】

手太陽經 小腸의 脈은 小指의 端에서 少澤에서 起始한다. 手外側을 따라서 手踝中에서 나와서 臂骨을 따라서 肘의 內側으로 나와서 위로 臑外를 따라서 後廉으로 나온다. 곧장 肩解를 지나서 肩胛을 둘러서 肩下에서 交叉하여 缺盆의 內로 들어간다. 腋으로 向하여 心에 絡循하여 咽嚥을 따라서 膈을 내려가서 胃에 이르러 小腸에 屬한다. 一支는 缺盆에서 頸頰을 貫通하여 目銳眥에 이르러 물러나서 耳로 들어가고 다시 耳前으로부터 이에 頰으로 올라가서 鼻에 이르러 올라가서 目內眥에 이르러 비스듬히 顙에 絡하여 別絡과 接한다.

③ 『經脈圖考』<sup>57)</sup>

【原文】

手太陽經小腸脈은 小指之端(外側)起少澤이라.

【解釋】

手太陽經 小腸의 脈은 小指의 外側端에서 少澤에서 起始한다.

5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5.

5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循手(外側)上腕出踝中(銳骨)하야 上臂骨出肘內側이라.

【解釋】

手外側의 上腕을 따라서 手踝中(銳骨)으로 나와서 臂骨로 올라와서 肘의 內側으로 나온다.

【原文】

兩筋之間(本經循臂骨下廉陽谷等穴, 出肘內側兩骨尖中小海穴也, 此處捺之應於小指之上)臑(外)後廉(手陽明, 少陽之外)으로

【解釋】

兩筋의 사이와(本經은 臂骨下廉의 陽谷等穴을 따라서 肘 內側의 兩骨尖中의 小海穴로 나오니, 이곳을 누르면 小指上에서 應한다.) 臑의 (外)後廉(手陽明과 手少陽의 밖으로 行한다.)으로

【原文】

出肩解(肩後骨縫曰肩解, 即肩貞穴)而繞肩胛하야 (臑俞, 天宗等處. 滑氏曰: 脊兩傍爲膂, 膂上兩角爲肩解, 肩解下成片骨爲肩胛, 即肩膊也.)

【解釋】

肩解(肩後의 骨縫을 ‘肩解’라고 하니 즉 肩貞穴이다.)로 나와서 肩胛을 둘러서 (臑俞, 天宗 等處이다. 滑氏가 가로되 ‘脊의 兩傍이 膂이며 膂上의 兩角이 肩解이며, 肩解下에서 片骨을 이룬 것이 肩胛이다.’라고 하였으니 즉 肩膊이다.)

【原文】

交肩之上(秉風, 曲垣等穴이니 左右交於兩肩之上호대 會於督脈之大椎라.)入缺盆이라.

【解釋】

肩上에서 交叉하여(秉風, 曲垣等穴이니 左右가 兩肩上에서 交叉하되 督脈의 大椎에서 만난다.)入缺盆이라.

【原文】

直絡心中(自缺盆由胸中下行, 入膻中絡心)循咽嚥이

라.

[解釋]

곧장 心中에 絡하여(缺盆으로부터 胸中을 경유하여 下行하여 膈中으로 들어가서 心에 絡한다.) 咽脰을 따른다.

【原文】

下膈抵胃屬小腸하야  
(自缺盆循咽下膈抵胃하야 下行當臍上二寸之分하야 屬小腸하니 此經之內行者라.)

[解釋]

膈을 내려가서 胃에 이르러 小腸에 屬하여  
(缺盆으로부터 咽을 따라서 膈을 내려가서 胃에 이르러 下行하여 臍上 二寸의 분야에 해당하여 小腸에 屬하니 이는 本經의 內行하는 것이다.)

【原文】

支從缺盆上頸頰이라.

[解釋]

支脈은 缺盆으로부터 頸頰으로 올라간다.

【原文】

至目銳眦入耳中하야  
(其支行於外者는 出缺盆하야 循頸中之天窗하야 上頰後之天容하야 由顴膠하야 以入耳中之聽宮하니 手太陽經이 止於此라.)

[解釋]

目銳眦에 이르러서 耳中으로 들어가서  
(그 支脈이 外行하는 것은 缺盆으로 나와서 頸中の 天窗을 따라서 頰後의 天容으로 올라가서 顴膠를 경유하여 耳中の 聽宮으로 들어가니 手太陽經이 여기에서 그친다.)

【原文】

支者別頰(頰車, 顴膠之次)斜上頰(目下也)하야 抵鼻至於目內眦라.

[解釋]

支脈이 頰(頰車, 顴膠의 차례이다.)에서 나뉘어서

비스듬히 頰(目下다.)을 올라가서 鼻에 이르러 目內眦에 이른다.

【原文】

其絡與足太陽接이라.  
(交目內眦足太陽之睛明穴也.)

[解釋]

그 絡脈이 足太陽과 接한다.  
(目內眦의 足太陽의 睛明穴에서 교차한다.)

④ 『靈樞·經脈篇』58)

【原文】

小腸手太陽之脈은 起於小指之端하야 循手外側하야 上腕하야 出踝中하야 直上循臂骨下廉하야 出肘內側兩筋之間하야 上循臑外後廉하야 出肩解하야 繞肩胛하야 肩上下하야 入缺盆하야 絡心하고 循咽下膈抵胃하야 屬小腸이라 其支者는 從缺盆循頸上頰하야 至目銳眦하야 却入耳中이라 其支者는 別頰上頰하야 抵鼻하야 至目內眦하야 斜絡於顴이라

[解釋]

小腸 手太陽의 脈은 小指의 端에서 起始하여 手外側을 따라서 腕으로 올라가서 手踝中으로 나와서, 곧장 올라가서 臂骨의 下廉을 따라서 肘 內側의 兩筋의 사이로 나와서 위로 臑外後廉으로 올라가서 肩解로 나와서 肩胛를 둘러서 肩으로 올라와서 缺盆으로 들어가서 心에 絡하고 咽을 따라서 膈을 내려가서 胃에 이르러 小腸에 속한다. 그 支脈은 缺盆으로부터 頸을 따라서 頰으로 올라와서 目銳眦에 이르러 물러나서 耳中으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頰에서 나뉘어져 頰로 올라가서 鼻에 이르러 目內眦에 이르러 비스듬히 顴에 絡한다.

⑤ 『足臂十一脈』59)

【原文】

臂太陽脈은 出小指하야 循骨下廉하야 出臑下廉하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1.

5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82.

야 出肩外廉하야 出項□□□目外眥라.

【解釋】

臂太陽 小腸의 脈은 小指에서 나와서 骨의 下廉을 따라서 臑의 下廉으로 나와서 肩의 外廉으로 나와서 項을 나와서 目外眥로 □□□한다.

⑥ 『陰陽十一脈』<sup>60)</sup>

【原文】

肩脈은 起於耳後하야 下肩하야 出臑外廉하야 出[臂外腕上]하야 乘手背라.

【解釋】

肩脈은 耳後에서 起始하여 肩을 내려가서 臑의 外廉으로 나와서 [臂의 外腕의 위]로 나와서 手背를 오른다.

(7)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① 『鍼灸大全』<sup>6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62)</sup>, 『楊敬齋鍼灸全書』<sup>63)</sup>, 『針灸聚英』<sup>64)</sup>, 『鍼灸大成』<sup>65)</sup>

【原文】

足經太陽膀胱脈은 目內眥上懸額尖이라. 支者巔上至耳角하고 直者從巔腦後懸하야 絡腦還出別下項하야 仍循肩膊俠脊邊하야 抵腰腎膀胱內이라. 一支下與後陰連하야 貫腎斜入委中穴이라. 一支膊內左右別하야 貫胛俠脊過髀樞이라. 髀外後廉臑中合하야 下貫臑內外踝後하야 京骨之下指外側이라.

【解釋】

足太陽經 膀胱脈은 目內眥에서 올라와 額尖에 매달린다. 支脈은 巔에서 올라와서 耳角에 이르고, 直脈은 巔腦의 後로부터 매달려서 腦에 絡하고 도로 나와서 나뉘어 項으로 내려와서 이에 肩膊을 따라서 脊

의 옆을 끼고 腰, 膂, 腎, 膀胱內에 이른다. 一支는 아래로 後陰과 이어져서 腎을 貫通하여 비스듬히 委中穴로 들어간다. 一支는 膊內에서 左右로 나뉘어져 胛을 貫通하여 脊을 끼고 髀樞를 지난다. 髀의 外後廉으로 臑中에서 合하여 아래로 臑內와 外踝後를 貫通하여 京骨의 아래로 指의 外側에 이른다.

② 『刺灸心法要訣』<sup>66)</sup>

【原文】

足太陽經膀胱脈은 目內眥上起額尖이라. 支者巔上至耳角하고 直者從巔腦後懸하야 絡腦還出別下項하야 仍循肩膊俠脊邊하야 抵腰腎膀胱內라. 一支下與後陰連하야 貫腎斜入委中穴이라. 一支膊內左右別하야 貫胛俠脊過髀樞라. 臂內<sup>(1)</sup>後廉臑中合하야 下貫臑內外踝後하야 京骨骨下趾外側이라.

【校勘】

(1) 臂內 : 『靈樞』와 『鍼灸大全』 등의 문장과 비교하면 '髀外'로 고쳐야 옳다.

【解釋】

足太陽經 膀胱脈은 目內眥上에서 額尖에서 起始한다. 支脈은 巔에서 올라와서 耳角에 이르고, 直脈은 巔腦의 後로부터 매달려서 腦에 絡하고 도로 나와서 나뉘어 項으로 내려와서 이에 肩膊을 따라서 脊의 옆을 끼고 腰, 膂, 腎, 膀胱內에 이른다. 一支는 아래로 後陰과 이어져서 腎을 貫通하여 비스듬히 委中穴로 들어간다. 一支는 膊內에서 左右로 나뉘어져 胛을 貫通하여 脊을 끼고 髀樞를 지난다. 髀의 外後廉으로 臑中에서 合하여 아래로 臑內와 外踝後를 貫通하여 京骨의 骨下로 趾外側에 이른다.

③ 『經脈圖考』<sup>67)</sup>

【原文】

足太陽經膀胱脈은 目內眥(精明)上額交巔이라. (由攢竹而上至絡却穴하야 左右斜行而交於巔頂之百會라.)

6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7.

6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83.

6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21-222.

6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5.

[解釋]

足太陽經 膀胱脈은 目內眥(睛明)에서 額으로 올라가서 巔에서 교차한다.

(攢竹을 경유하여 위로 絡却穴에 이르러서 左右로 비스듬히 행하여 巔頂의 百會에서 교차한다.)

【原文】

支者從巔入耳(上)角하고

(其支者는 由百會旁行至耳上角하여 過足少陽之曲鬢, 率骨, 天衝, 浮白, 竅陰, 完骨이라 故로 此六穴者는 皆爲足太陽, 少陽之會라.)

[解釋]

支脈은 巔으로부터 耳(上)角으로 들어가고

(그 支脈은 百會를 경유하여 옆으로 행하여 耳上角에 이르러서 足少陽의 曲鬢, 率骨, 天衝, 浮白, 竅陰, 完骨을 지난다. 따라서 이 여섯 곳의 穴은 모두 足太陽, 足少陽의 交會處가 된다.)

【原文】

直者從(百會)巔(入)絡腦間이라.

(自百會行通天, 絡却, 玉枕하여 入絡於腦中也라.)

[解釋]

直脈은 (百會가 있는) 巔으로부터 (들어가서) 腦間에絡한다.

(百會로부터 通天, 絡却, 玉枕을 行하여 들어가서 腦中에絡한다.)

【原文】

還出(別)下項循肩膊하여

(自腦復出하여 別下項하여 由天柱而下會於督脈之陶道, 絡却하여 循肩膊內하여 分作四行而下라.)

[解釋]

도로 나와서 (별도로) 項을 내려가서 肩膊을 따라서

(腦로부터 다시 나와서 나뉘어 項을 내려가서 天柱를 경유하여 내려가서 督脈의 陶道, 絡却에서 모여서 肩膊內를 따라서 四行으로 나뉘어 내려간다.)

【原文】

挾脊抵腰(此는 言內兩行者이니 去脊一寸五分하여 行十二俞等穴하여 而抵腰中也라.) 循膂旋하여(脊兩旁之內爲膂라.)

[解釋]

脊을 끼고 腰에 이르러서(이는 안의 두 行을 말한 것이니 脊에서 一寸五分이 떨어져서 十二俞 等穴을 행하여 腰中에 이른다.) 膂를 따라 돌아서(脊 兩旁의 안이 膂다.)

【原文】

絡腎正屬膀胱腑라.

(自腰中入膂하여 絡腎前하고 屬膀胱이라.)

[解釋]

腎에絡하고 바로 膀胱腑에屬한다.

(腰中으로부터 膂에 들어가서 腎前에絡하고 膀胱에屬한다.)

【原文】

一支貫腎入臑傳하고

(從腰中循髌骨下하여 夾脊曆四膠穴하여 貫腎之會陽下行承扶, 委陽等穴하여 入之委中也라. 尻旁大肉曰臑. 膝後曲處曰臑이라.)

[解釋]

一支는 腎을 관통하여 臑으로 들어가서 傳하고

(腰中으로부터 髌骨을 따라 내려와서 脊을 끼고 四膠穴을 지나서 腎의 會陽을 관통하여 承扶, 委陽等穴로 내려가서 委中으로 들어간다. 尻旁의 大肉이 '臑'이고 膝後의 曲處가 '臑'이다.)

【原文】

一支從膊(內左右)別貫胛하여

(此는 言肩膊內大杼下外兩行也니 左右貫胛하여 去脊各三寸別行하여 曆附分, 魄戶等穴而下行也라.)

[解釋]

一支는 膊(內의 左右)로부터 나뉘어져서 胛을貫通하여

(이는 肩膊內의 大杼의 아래의 바깥쪽 兩行을 말

하니, 左右로 胛을 貫通하여 脊에서 각각 3寸을 떨어  
져서 나뉘어 行하여 附分, 魄戶 等穴을 지나서 下行  
한다.)

【原文】

挾脊(內過髀樞)循髀(外從後廉下)合膈行하여  
(由秩邊過髀樞하여 會於足少陽環跳穴하여 循髀外  
後廉호대 去承扶一寸五分之間下行하고 復與前之入膈  
中者로 相合이라.)

【解釋】

脊을 끼고 (안으로 髀樞를 지나서) 髀를 따라서(밖  
으로 後廉을 따라서 내려가서) 膈에 合하여 行하여  
(秩邊을 경유하여 髀樞를 지나서 足少陽의 環跳穴  
에서 모여서 髀의 外後廉을 따르되 承扶에서 一寸五  
分の 사이를 떨어져서 下行하고 다시 앞으로 膈中으  
로 들어간 것과 相合한다.)

【原文】

貫膈(內)出(外)蹠循京骨하여  
(小趾本節後의 大骨을 曰京骨이라.)

【解釋】

膈(內)를 관통하여 (外)蹠에서 나와서 京骨을 따라서  
(小趾 本節 後의 大骨을 ‘京骨’이라 한다.)

【原文】

小趾外側으로 至陰全이라.  
(足太陽經止此하니 乃交於小趾之下하여 而接乎足  
少陰經이라.)

【解釋】

小趾의 外側으로 陰全에 이른다.  
(足太陽經은 여기에서 이르니, 이에 小趾의 아래  
에서 交會하여 足少陰經과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sup>68)</sup>

【原文】

膀胱足太陽之脈은 起於目內眥하여 上額交巔이라

其支者는 從巔至耳上角이라 其直者는 從巔入絡腦하  
고 還出別下項하여 循肩膊하여 內挾脊하여 抵腰中하  
야 入循膂하여 絡腎하고 屬膀胱이라 其支者는 從腰  
中下挾脊하여 貫臀하여 入膈中이라 其支者는 從膈內  
左右하여 別下貫胛하여 挾脊하여 內過髀樞循髀外하  
야 從後廉下合膈中하여 以下貫蹠內하여 出外蹠之後  
하여 循京骨하여 至小指外側이라

【解釋】

膀胱 足太陽의 脈은 目內眥에서 起始하여 額을 올  
라가서 巔에서 交會한다. 그 支脈은 巔으로부터 耳上  
角에 이른다. 그 直脈은 巔으로부터 들어가서 腦에  
絡하고, 도로 나와서 나뉘어 項으로 내려와서 肩膊을  
따라서 안으로 脊을 끼고 腰中에 이르러 들어가서 膂  
를 따라서腎을 絡하고 膀胱에 屬한다. 그 支脈은 腰  
中으로부터 내려가서 脊을 끼어서 臀을 貫通하여 膈  
中으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膈內의 左右로부터 나뉘  
어 내려가서 胛을 貫通하여 脊을 끼어서 안으로 髀樞  
를 지나서 髀外를 따라서 後廉을 따라서 내려가서 膈  
中에서 合하여 내려가서 蹠內를 貫通하여 外蹠의 뒤  
로 나와서 京骨을 따라서 小指의 外側에 이른다.

⑤ 『足臂十一脈』<sup>69)</sup>

【原文】

足太陽脈은 出外蹠婁中하여 上貫膈하여 出於郛이  
라. 支之下月髀(膊)라. 其直者貫□하여 挾脊하여 □□  
하여 上於頭라. 支顏下하여 之耳라. 其直者는 貫目內  
眥하여 之鼻라.

【解釋】

足太陽脈은 外蹠의 婁中으로 나와서 올라가서 膈  
을 貫通하여 郛으로 나온다. 支脈이 月髀(膊)으로 내  
려간다. 그 直脈은 □을 貫通하여 脊을 끼고 □□하여  
頭로 올라간다. 支脈이 顏下에서 耳로 간다. 그 直脈  
은 目內眥를 貫通하여 鼻로 들어간다.

⑥ 『陰陽十一脈』<sup>70)</sup>

【原文】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1.

6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73.  
7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75.

巨陽脈은 [繫於]踵(踵)外踝婁中하야 出郛中하야 上穿脈(腎)하야 出壓中하야 夾脊하야 出於項하야 [上]頭角하야 下顏하야 夾鬪(鬪)하야 繫目內廉이라.

[解釋]

巨陽脈은 踵(踵)外踝의 婁中에 매여서 郛中으로 나와서 올라가서 脈(腎)을 貫通하여 壓中으로 나와서 脊을 끼어서 項으로 나와서 頭角을 올라가서 顏으로 내려와서 鬪(鬪)을 끼고 目內廉에 매인다.

(8)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① 『鍼灸大全』71), 『凌門傳授銅人指穴』72), 『楊敬齋鍼灸全書』73), 『針灸聚英』74), 『鍼灸大成』75)

【原文】

足經腎脈屬少陰하야 小指斜透湧泉心이라. 然骨之下內踝後로 別入跟中膕內侵이라. 出膕內廉上股內하야 貫脊屬腎膀胱臨이라. 直者屬腎貫肝膈하야 入肺循喉舌本尋이라. 支者從肺絡心內하야 仍至胸中部分深이라.

[解釋]

足經 腎脈은 少陰에 屬하여 小指로 비스듬히 湧泉의 足心으로 透出한다. 然骨의 下와 內踝의 後로 나뉘어 跟中으로 들어가서 膕內로 侵入한다. 膕內廉으로 나와서 股內로 올라와서 脊을 貫通하여 腎에 屬하고 膀胱에 臨한다. 直脈은 腎에 속하여 肝과 膈을 貫通하여 肺로 들어가서 喉를 따라서 舌本에서 찾는다. 支脈은 肺로부터 心內에 絡하여 이에 胸中 部分의 깊숙이 이른다.

② 『刺灸心法要訣』76)

①과 동일함.

7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2.  
7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6.  
7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82-1083.

③ 『經脈圖考』77)

【原文】

足經腎脈屬少陰하야 斜從小指趨足心이라. (足太陽之脈은 終於足小指하야 而足少陰脈於小指下接之하야 斜走足心湧泉穴이라.)

[解釋]

腎經脈은 足少陰에 屬하여 비스듬히 小指를 따라서 足心으로 달려간다. (足太陽의 脈은 足小指에서 끝나서 足少陰脈이 小指下에서 接하여 비스듬히 足心 湧泉穴로 走行한다.)

【原文】

出於然骨(在內踝前大骨下라.)循內踝(之後別)하야 入跟(中)上膕(內出)膕內(廉)尋이라. (自復溜交信하야 過足太陰之三陰交하야 以上膕內之築賓하야 出膕內廉之陰谷이라.)

[解釋]

然骨(內踝前의 大骨下이다.)에서 나와서 內踝(의 後를 따라서) 나뉘어져서 跟(中)으로 들어가서 膕內로 올라가서 膕의 內廉으로 나온 곳에서 찾는다. (復溜, 交信으로부터 足太陰의 三陰交를 지나서 膕內의 築賓을 올라가서 膕內廉의 陰谷으로 나온다.)

【原文】

上股(內)後廉直貫脊하야 (結於督脈之長強하야 貫脊中而後屬腎이라.)

[解釋]

股의 (內)後廉으로 올라가서 곧장 脊을 貫通하여 (督脈의 長強에서 맺혀서 脊中을 貫通하여 뒤로 腎에 屬한다.)

【原文】

屬腎下絡膀胱深이라. (前當關元, 中極之分하야 而絡於膀胱이라. 滑氏曰 由陰谷上股內後廉하야 貫脊會於長強하고 還出於前하야 循橫骨而上至脊俞之次, 膕之左右하야 屬腎下膕하야

7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야 至關元, 中極之分하여 而絡膀胱也라.)

【解釋】

腎에 屬하고 내려가서 膀胱에 絡속이 絡한다.

(앞으로 關元, 中極의 분야에 해당하여 膀胱에 絡한다. 滑氏가 가로되, 陰谷을 경유하여 股內後廉에 올라가서 脊에 貫通하여 長強에서 만나고 도로 앞으로 나와서 橫骨을 따라서 위로 肓俞의 次와 臍의 左右에 이르러 腎에 屬하고 臍로 내려가서 關元, 中極의 分野에 이르러서 膀胱에 絡한다.)

【原文】

直者從腎(肓俞之分)貫肝膈하여 入肺(中)挾舌(本)循喉嚨이라.

(自肓俞上行하여 循商曲等穴하여 至俞府而上循喉嚨하고 並人迎하여 挾舌本而終이라. 按: 足少陰經은 考之本篇及經別, 經筋等篇건댄 皆言由脊裏上注心肺하여 而散於胸中이로대 惟『骨空論』에 曰 衝脈起於氣街하여 並少陰之經하여 俠臍上行하여 至胸中而散이라하니라. 故로 『甲乙經』에 曰 於俞府下에 至步廊等六穴에 皆云足少陰脈氣所發이라하고 幽門至橫骨等十一穴은 皆云 衝脈은 足少陰之會하니 故로 滑氏注如此는 實本『甲乙』, 『銅人』諸書하고 而『甲乙』은 又本於『骨空論』也라)

【解釋】

直者從腎(肓俞의 분야이다.)貫肝膈하여 入肺(中)挾舌(本)循喉嚨이라.

(肓俞로부터 上行하여 商曲 等穴을 따라서 俞府에 이르러서 위로 喉嚨을 따르고 人迎과 나란히 하여 舌本을 끼어서 끝난다. 살피건대 足少陰經은 本篇과 「經別」, 「經筋」 等篇을 살펴보면 모두 脊裏를 경유하여 위로 心肺에 注入하여 胸中에서 흩어진다고 말하였으나, 오직 『骨空論』에 가로되 衝脈이 氣街에서 起始하여 少陰經과 並行하여 臍를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러 흩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甲乙經』에 가로되 俞府의 아래에서 步廊 等の 六穴에 이르기까지 모두 足少陰脈氣가 發하는 곳이라고 하고 幽門으로부터 橫骨 等の 十一穴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衝脈과 足少陰의 交會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滑氏의 注가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甲乙』, 『銅人』의 여러 書籍에서 근본한 것이고 『甲乙』은 또한 『骨空論』에서 근본한 것이다.)

【原文】

支者從肺絡心上하여 注胸(膻中)交於手厥陰이라.

(其支者는 自神藏之際로 從肺絡心注胸中하여 以上俞府諸穴하여 少陰經止此하고 而接手厥陰經也라.)

【解釋】

支脈은 肺로부터 心上에 絡하여 胸(膻中)에 注入하여 手厥陰과 交叉한다.

(그 支脈은 神藏 즈음으로부터 肺로부터 心에 絡하여 胸中에 注入하여 俞府 諸穴로 올라가서 少陰經이 이에 그치고 手厥陰經에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78)

【原文】

腎足少陰之脈은 起於小指之下하여 邪走足心하여 出於然谷之下하여 循內踝之後하여 別入跟中하여 以上踰內하여 出膈內廉하여 上股內後廉하여 貫脊하여 屬腎하고 絡膀胱이라 其直者는 從腎上貫肝膈하여 入肺中하여 循喉嚨하여 挾舌本이라 其支者는 從肺出絡心하여 注胸中이라

【解釋】

腎 足少陰의 脈은 小指의 아래에서 起始하여 비스듬히 足心으로 走行하여 然谷의 아래로 나와서 內踝의 뒤를 따라서 나뉘어져서 跟中으로 들어가서 踰內를 올라가서 膈內廉으로 나와서 股內後廉으로 올라가서 脊을 貫通하여 腎에 屬하고 膀胱에 絡한다. 그 直脈은 腎으로부터 올라와서 肝膈을 貫通하여 肺中으로 들어가서 喉嚨을 따라서 舌本을 낀다. 그 支脈은 肺로부터 나와서 心에 絡하여 胸中으로 注入한다.

⑤ 『足臂十一脈』79)

【原文】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1.

7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12.

足少陰脈은 出內踝中하여 上貫臑하여 入郄하여 出股하여 入腹하여 循脊內廉하여 出肝하여 入腠하여 繫舌이라.

[解釋]

足少陰脈은 內踝의 胛中에서 나와서 위로 臑을 貫通하여 郄으로 들어가서 股로 나와서 腹으로 들어가서 脊內廉을 따라서 肝으로 나와서 腠로 들어가서 舌에 매인다.

⑥ 『陰陽十一脈』<sup>80)</sup>

【原文】

少陰脈은 繫於內踝外廉하여 穿臑하여 出郄中央하여 上穿脊之[內]廉하여 繫於腎하여 夾舌이라.

[解釋]

少陰脈은 內踝의 外廉에 매여서 臑을 꿰어서 郄의 中央으로 나와서 위로 脊의 [內]廉을 꿰어서 腎에 매어서 舌을 낀다.

(9) 수厥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① 『鍼灸大全』<sup>81)</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82)</sup>, 『楊敬齋鍼灸全書』<sup>83)</sup>, 『針灸聚英』<sup>84)</sup>, 『鍼灸大成』<sup>85)</sup>

【原文】

手厥陰心主起胸하여 屬包下膈三焦宮이라. 支者循胸出脅下하여 脅下連腋三寸同이라. 仍上抵腋循臑內하니 太陰少陰兩經中이라. 指透中衝支者別하여 小指次指絡相通이라.

[解釋]

手厥陰 心主는 胸에서 起始하여 心包에 屬하여 膈과 三焦宮을 내려간다. 支脈은 胸을 따라서 脅下로 나와서 脅下에서 腋으로 三寸이 이어진다. 이에 위로

腋을 올라가서 臑內를 따르니 太陰과 少陰의 두 經의 가운데다. 指에 中衝이 透出하고 支脈은 나뉘어서 小指 次指에 絡하여 相通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86)</sup>

①과 동일함.

③ 『經脈圖考』<sup>87)</sup>

【原文】

手厥陰經心主標이니 (邪之中心하니 皆在包絡하여 代君火行事也라. 以用而言, 則曰心主요 以經而言, 則曰心包絡이라.)

[解釋]

手厥陰經은 心主의 標이니 (中心으로 비스듬히 가나니 모두 包絡에 있어서 君火를 대신하여 行事한다. 用으로써 말하면 '心主'라고 하고 經으로써 말하면 '心包絡'이라고 한다.)

【原文】

心包下膈(曆)絡三焦라. (包絡은 爲心主之外衛요 三焦爲臟腑之外衛라 故로 爲表裏相絡이라. 三焦有上, 中, 下하니 故로 必下膈而遍曆之也라.)

[解釋]

心包는 膈을 내려가서 (두루) 三焦를 連絡한다. (包絡은 心主의 外衛가 되고 三焦는 臟腑의 外衛가 되므로 表裏로 서로 連絡한다. 三焦는 上, 中, 下가 있으니 반드시 膈을 내려가서 두루 엮는다.)

【原文】

起自胸中(臆中)支(者)出脅하여 (循胃出脅이라.)

[解釋]

胸中(臆中)으로부터 起始하여 支脈이 脅으로 나와서

80)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13.  
8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82)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83)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8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2.  
8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6.

86)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80.  
8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胃를 따라서脅으로 나온다.)

【原文】

下腋三寸(天池穴은 經之外行者) 始此라. 由此而上抵腋下之天泉이라.) 循臑(內)迢라.

【解釋】

腋에서 三寸을 내려가서(天池穴은 經의 外行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한다. 여기를 경유하여 위로 腋下의 天泉에 이른다) 臑(內)를 따라서 멀리 간다.

【原文】

太陰(肺)少陰(心)中間走하야(手之三陰은 厥陰在中也라.)

【解釋】

太陰(肺)와 少陰(心)의 中間으로 走行하야(手三陰은 厥陰이 가운데 있다.)

【原文】

入肘(中曲澤穴)下臂(行)兩筋(之間)超라.(掌後兩筋橫紋陷中이니 內關, 大陵等穴이라.)

【解釋】

肘(中의 曲澤穴)로 들어가서 臂로 내려가서 兩筋(의 사이를 행하야) 뛰어넘는다.(掌後의 兩筋 橫紋의 陷中이니 內關, 大陵 等穴이다.)

【原文】

行掌心(勞宮穴)出中指(其出)端하야 (中衝穴而終이라.)

【解釋】

掌心(勞宮穴)을 행하야 中指로 나오니 (그) 端에서 나와서(中衝穴에서 그친다.)

【原文】

支(者別掌中)從小指次指交라.  
(自勞宮으로 別行無名指端하야 而接乎手少陽經也라.)

【解釋】

支脈은 (掌中에서 나뉘어서) 小指次指로부터 交會

한다.

(勞宮으로부터 나뉘어서 無名指의 端으로 行하야 手少陽經과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sup>88)</sup>

【原文】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은 起於胸中하야 出屬心包絡하야 下膈하야 歷絡三焦라 其支者는 循胸出脇하야 下腋三寸하야 上抵腋下하야 循臑內하야 行太陰少陰之間하야 入肘中하야 下臂하야 行兩筋之間하야 入掌中하야 循中指하야 出其端이라 其支者는 別掌中하야 循小指次指하야 出其端이라

【解釋】

心主 手厥陰 心包絡의 脈은 胸中에서 起始하야 나와서 心包絡에 屬하야 膈을 내려가서 三焦를 두루 連絡한다. 그 支脈은 胸을 따라서 脇으로 나와서 腋에서 三寸을 내려가서 위로 腋下에 이르러 臑內를 따라서 太陰과 少陰의 사이에 行하야 肘中으로 들어가서 臂로 내려가서 兩筋의 사이를 행하야 掌中에 들어가서 中指를 따라서 그 端으로 나온다. 그 支脈은 掌中에서 나뉘어져 小指次指를 따라서 그 端으로 나온다.

⑤ 『足臂十一脈』

없음.

⑥ 『陰陽十一脈』

없음.

(10) 手少陽三焦經

① 『鍼灸大全』<sup>89)</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90)</sup>, 『楊敬齋鍼灸全書』<sup>91)</sup>, 『針灸聚英』<sup>92)</sup>, 『鍼灸大成』<sup>93)</sup>

8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2.

89)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90)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91)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手經少陽三焦脈은 起自小指次指端이라. 兩指歧骨手腕表에 上出臂外兩骨間이라. 肘後臑外循肩上하야 少陽之後交別傳이라. 下入缺盆臆中分하야 散絡心包膈裏穿이라. 支者臆中缺盆上으로 上項耳後耳角旋하야 屈下至頤仍注頰이라. 一支出耳入耳前하야 卻從上關交曲頰하야 至目外眥乃盡焉이라.

【解釋】

手經 少陽 三焦脈은 小指次指的 端으로부터 起始한다. 兩指的 歧骨과 手腕의 表에서 위로 臂外의 兩骨間으로 나온다. 肘後와 臑外로 肩을 따라서 少陽의 後에서 交叉함이 별도로 傳해진다. 아래로 缺盆 臆中의 分야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心包를 絡하여 膈裏를 꿰뚫는다. 支脈은 臆中 缺盆의 上에서 項과 耳後와 耳角으로 올라가 돌아가서 구부러져서 내려가서 頤로 내려가서 이에 頰으로 注入한다. 一支는 耳로 나와서 耳前으로 들어가서 물러나서 上關을 따라서 曲頰에서 交叉하여 目外眥에 이르러 이에 다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94)</sup>

①과 同一함.

③ 『經脈圖考』<sup>95)</sup>

【原文】

手少陽經三焦脈은 起於(手)小指次指端(無名指)하야

【解釋】

手少陽經 三焦脈은 (手)小指次指的 端(無名指)에서 起始하여

【原文】

兩指之間(液門, 中渚)에 循(手)表腕(陽池也)이라.

【解釋】

兩指的 사이(液門, 中渚)에서 (手の) 表腕(陽池)를 따른다.

【原文】

出臂(外)兩骨(之間)行外關(曆支溝)하야 上行貫肘(天井)循臑外하야

【解釋】

臂(外)의 兩骨(의 사이)로 나와서 外關(支溝을 지나서)을 行하여 上行하여 肘(天井)를 貫통하여 臑外를 따라서

【原文】

上肩交出(足)少陽(之後)寔이라.

(循臑外하야 行手太陽之前하야 曆清冷淵, 消灤, 臑會하야 上肩膠하야 過足少陽之肩井하야 自天膠而交出足少陽之後也라.)

【解釋】

肩을 올라가서 교차하여 (足)少陽(의 뒤)로 나와서 돈다.

(臑外를 따라서 手太陽의 앞을 行하여 清冷淵, 消灤, 臑會를 지나서 肩膠를 올라가서 足少陽의 肩井을 지나서 天膠로부터 교차하여 足少陽의 後로 나온다.)

【原文】

入缺盆而布臆中하야 散絡心包下膈從하야

【解釋】

缺盆으로 들어가서 臆中에 베풀어서 흩어져서 心包에 絡하여 膈을 내려가서 따라서

【原文】

循屬三焦並(足)太陽하야 下輔腧在委陽(足太陽穴)宮이라.

(其內行者는 入缺盆하고 復由足陽明之外하야 下布臆中하고 散絡心包而爲表裏하니 乃自上焦下膈하야 循中焦下行하야 並足太陽之正하야 入絡膀胱하야 以約下焦하니 故로 委陽爲三焦之下輔腧也라.)

【解釋】

92)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22-223.

9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6.

94)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85.

95)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三焦를 따라서 屬하고 (足)太陽과 나란히 아래로 輔膻로 내려가니 委陽(足太陽穴)宮에 있다.

(그 內行하는 것은 缺盆으로 들어가고 다시 足陽明의 晝를 경유하여 내려가서 膻中에 분포하고 흩어져서 心包에 連絡하여 表裏가 되니 이에 上焦로부터 膈을 내려가서 中焦를 따라서 下行하여 足太陽의 正과 나란히 들어가서 膀胱에 絡하여 下焦를 約한다. 따라서 委陽이 三焦의 下輔膻가 된다.)

【原文】

支(行於外者)從膻中(上)出缺盆(循天膠)하여

【解釋】

支脈(으로서 밖으로 행하는 것)은 膻中으로부터 (위로 天膠를 따라서) 缺盆으로 나와서

【原文】

上項(會於督脈之大椎, 循天膈) 繫耳(後之翳風穴直上)上角孫이라.

(在耳之上角하니 由是過足少陽之懸釐, 頷厭이라.)

【解釋】

項으로 올라가서(督脈의 大椎에서 교회하여 天膈를 따른다.) 耳(뒤의 翳風穴의 直上이다.)에 맺혀서 角孫으로 올라간다.

(耳의 上角에 있으니 이를 경유하여 足少陽의 懸釐, 頷厭를 지난다.)

【原文】

下行耳頰至顛(目下也)際하고 支從耳後(翳風入)耳中存이라.

(過手太陽之聽宮이라.)

【解釋】

耳頰으로 下行하여 顛(目下이다.)際에 이르고, 支脈이 耳後(翳風에서 들어온다.)로부터 耳中에 보존된다.(手太陽의 聽宮을 지난다.)

【原文】

出走耳前(由耳門하여 過足少陽之客主人이라.)交兩頰이라.(循和膠하여 上絲竹空이라)

【解釋】

나와서 耳前으로 走行하여(耳門을 경유하여 足少陽의 客主人을 지난다.) 兩頰에서 교차한다.(和膠를 따라서 絲竹空으로 올라간다.)

【原文】

至目銳眦(會於瞳子膠)膽經論이라.(手少陽經이 止此而接乎足少陽經也라.)

【解釋】

目銳眦(瞳子膠에서 모인다.)에 이르나니 膽經을 論하였다.(手少陽經이 여기에서 그치고 足少陽經과 接한다.)

④ 『靈樞·經脈篇』<sup>96)</sup>

【原文】

三焦手少陽之脈은 起於小指次指之端하여 上出兩指之間하여 循手表腕하여 出臂外兩骨之間하여 上貫肘하여 循臑外하여 上肩而交出足少陽之後하여 入缺盆하여 布膻中하여 散絡心包하여 下膈하여 循屬三焦라 其支者는 從膻中上出缺盆하여 上項하여 繫耳後하여 直上出耳上角하여 以屈下頰至顛이라 其支者는 從耳後入耳中하여 出走耳前하여 過客主人前하여 交頰하여 至目銳眦라

【解釋】

三焦 手少陽의 脈은 小指次指의 端에서 起始하여 위로 兩指의 사이로 나와서 手表의 腕을 따라서 臂外의 兩骨의 사이로 나와서 올라와서 肘를 貫通하여 臑外를 따라서 肩을 올라가서 교차하여 足少陽의 뒤로 나와서 缺盆으로 들어가서 膻中에 散布하여 흩어져서 心包에 絡하여 膈을 내려가서 三焦를 따라서 屬한다. 그 支脈은 膻中으로부터 올라가서 缺盆으로 나와서 項을 올라가서 耳後에 매여서 곧장 올라가서 耳上角으로 나와서 구부러져 頰으로 내려가서 顛에 이른다. 그 支脈은 耳後로부터 耳中에 들어왔다가 나와서 耳前으로 走行하여 客主人의 앞으로 지나가서 頰에서 교차하여 目銳眦에 이른다.

9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2.

⑤ 『足臂十一脈』<sup>97)</sup>

【原文】

臂少陽脈은 出中指하야 循臂上骨下廉하야 湊耳라.

【解釋】

臂 少陽脈은 中指로 나와서 臂上骨의 下廉을 따라서 耳로 湊入한다.

⑥ 『陰陽十一脈』<sup>98)</sup>

【原文】

耳脈은 起於手背하야 出臂外兩骨之間하야 上骨下廉하야 出肘中하야 入耳中이라.

【解釋】

耳脈은 手背에서 起始하여 臂外 兩骨의 사이에서 나와서 骨下廉으로 올라가서 肘中으로 나왔다가 耳中으로 들어간다.

(11)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① 『鍼灸大全』<sup>99)</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100)</sup>, 『楊敬齋鍼灸全書』<sup>101)</sup>, 『針灸聚英』<sup>102)</sup>, 『鍼灸大成』<sup>103)</sup>

【原文】

足脈少陽膽之經은 始從兩目銳眥生이라. 抵頭循角下耳後하야 腦空風池次第行이라. 手少陽前至肩上하야 交少陽後上缺盆이라. 支者耳後貫耳內하야 出走耳前銳眥循이라. 一支銳眥大迎下하야 合手少陽抵頰根이라. 下加頰車, 缺盆合하야 入胸貫膈絡肝經이라. 屬膽仍從脅裏過하야 下入氣街毛際繫하야 橫入髀厭環跳內라. 直者缺盆下腋膺하야 過季脅下髀厭內라. 出膝外廉是陽陵이요 外輔絕骨踝前過하야 足跗小指次指分이라. 一支別從大指去하야 三毛之際接肝經이라.

97)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92.  
98)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92.  
99)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00)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01)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02)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23.  
10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96-97.

【解釋】

足少陽 膽經은 兩目銳眥로부터 起始하여 생긴다. 頭에 이르러 角下 耳後를 따라서 腦空의 風池로 차례대로 行한다. 手少陽의 前으로 肩에 이르러서 少陽의 뒤에서 교차하여 缺盆으로 올라간다. 支脈은 耳後로 耳內를 貫通하여 나와서 耳前의 銳眥로 走行하여 따른다. 一支는 銳眥와 大迎으로 내려가서 手少陽에 合하여 頰根으로 나온다. 아래로 頰車로 더해져서 缺盆에 合하여 胸에 들어가서 膈을 貫通하여 肝經에 絡한다. 膽에 屬하여 이에 脅裏로부터 지나가서 아래로 氣街로 들어가서 毛際를 엮어서 옆으로 髀厭과 環跳의 內로 들어간다. 直脈은 缺盆으로 腋과 膺으로 내려가서 季脅을 지나서 髀厭의 內로 내려간다. 膝外廉으로 나가니 陽陵泉이고 밖으로 絕骨을 도와서 踝前으로 지나가서 足跗로 해서 小指次指에서 나뉜다. 一支는 나뉘어져서 大指로부터 떠나서 三毛의 際에서 肝經과 接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104)</sup>

①과 동일함.

③ 『經脈圖考』<sup>105)</sup>

【原文】

足少陽脈膽經傳은 起於兩目銳眥邊이라.(瞳子膠穴이라.)

【解釋】

足少陽脈 膽經의 傳함은 兩目的 銳眥 주변(瞳子膠穴이라.)에서 起始한다.

【原文】

上抵頭角下耳後하야

(自目銳眥로 由聽會客主人하야 上抵頭角하야 循頰厭하고 下懸顛, 懸釐하야 從耳上髮際入曲鬢, 率谷하야 曆手陽明之角孫하야 外折下耳後하야 行天衝, 完骨等穴하고 又自完骨外折上行하야 循本神前至陽白하야

104)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86-1087.  
105)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고 復內折上行하여 循臨泣, 腦空等穴하여 由風池而下行也라.)

[解釋]

위로 頭角에 올라갔다 耳後로 내려와서 (目銳眥로부터 聽會, 客主人을 경유하여 위로 頭角에 이르러 額脈을 따르고 懸顛, 懸釐로 내려가서 耳上의 髮際로부터 曲鬢, 率谷에 들어가서 手陽明의 角孫을 지나서 外折하여 耳後로 내려가서 天衝, 完骨等穴을 行하고 또한 完骨으로부터 外折하여 上行하여 本神을 따라 앞으로 陽白으로 이르고 다시 內折하여 上行하여 臨泣, 腦空 等穴을 따라서 風池를 경유하여 下行한다.)

【原文】

循頸(過手少陽之天牖)行手少陽前이라.

[解釋]

頸를 따라서(手少陽의 天牖를 지난다.) 手少陽의 앞을 行한다.

【原文】

(下)至肩(上肩井)卻(交)出(手)少陽後하여(過督脈之大椎하여 會於手太陽之秉風, 則前行이라.) 陽明缺盆之外旋이라.

[解釋]

(아래로) 肩에 이르러 (肩井에 올라가다가) 물러나서 (교차하여) 手少陽의 뒤로 나와서(督脈의 大椎를 지나서 手太陽의 秉風에서 모이니 즉 앞으로 行하는 것이다.) 陽明의 缺盆穴의 外旋이다.

【原文】

支者耳後(顛顛之次는 過手少陽之翳風穴이라.) 入耳中하여(過手太陽之聽宮이라.)

[解釋]

支脈은 耳後로(顛顛의 次는 手少陽의 翳風穴을 지난다.) 耳中을 들어가서(手太陽의 聽宮을 지난다.)

【原文】

出走耳前(復自聽會至目이라.) 銳眥逢이라.

[解釋]

나와서 耳前으로 走行하여(다시 聽會로부터 目에 이른다.) 銳眥에서 만난다.

【原文】

支別銳眥下大迎하여(足太陽穴은 在額前一寸三分 動脈陷中이라.) 合手少陽(絲竹, 和膠之次而下)抵頤宮이라.

[解釋]

支脈은 銳眥에서 나뉘어 大迎으로 내려가서(足太陽穴은 額前 一寸三分의 動脈 陷中에 있다.) 手少陽(絲竹, 和膠의 차례로 내려간다.)에 합하여 頤宮에 이른다.

【原文】

下加頰車下頸行하여 合於缺盆胸中承이라.

(其下於足陽明者 | 合於下關하여 乃自頰車下頸하여 循本經之前하여 與前之入缺盆者로 相合하여 內行而下入胸中이라.)

[解釋]

아래로 頰車에 더해져서 頸으로 내려가서 行하여 缺盆에 합하여 胸中에 이어진다.

(그 足陽明으로 내려가는 것이 下關에서 더해져서 이에 頰車로부터 頸으로 내려가서 本經의 앞을 따라서 앞의 缺盆으로 들어가는 것과 서로 합하여 內行하여 내려가서 胸中으로 들어간다.)

【原文】

貫膈絡肝原屬膽하여

(自胸中手厥陰天池之分으로 貫膈足厥陰期門之分하고 絡肝本經日月之分하고 屬膽而爲表裏也라.)

[解釋]

膈을 貫通하고 肝에 絡하여 원래 膽에 屬하여 (胸中の 手厥陰 天池의 분야로부터 膈의 足厥陰 期門의 분야를 관통하고 肝 本經의 日月의 분야에 絡고 膽에 속하여 表裏가 된다.)

【原文】

脅裏(出)氣街毛際縈하야(循脅裏하야 由足厥陰之章門하야 下行足陽明之氣街하야 繞毛際合於足厥陰이라.) 入髀厭中(環跳穴)脈來橫이라.

[解釋]

脅裏로 (나와서) 氣街로 해서 毛際에 얹혀서(脅裏를 따라서 足厥陰의 章門을 경유하야 足陽明의 氣街로 下行하야 毛際에 얹혀서 足厥陰에 합한다.) 髀厭(環跳穴) 中에 들어가니 脈이 빗겨서 온다.

【原文】

直者缺盆下腋(循)胸하야 (過)季脅(肝經章門)下合髀厭中이라.

(直下而行於外者) 從缺盆下腋하야 循胸하야 曆淵液, 輒筋, 日月하야 過季脅하야 循京門, 帶脈 等穴하야 下行하야 由居膠하야 入足太陽之四膠하야 下行하고 復與前之入髀厭者로 相合於環跳穴也라.)

[解釋]

直脈은 缺盆에서 腋으로 내려가서 胸을 따라서 季脅(肝經章門)을 지나서 내려가서 髀厭 中에 습한다.

(곧장 내려가서 밖으로 行하는 것이 缺盆으로부터 腋으로 내려가서 胸을 따라서 淵液, 輒筋, 日月을 따라서 季脅을 지나서 京門, 帶脈 等 穴을 따라서 下行하야 居膠를 경유하야 足太陽의 四膠로 들어가서 下行하고 다시 앞의 髀厭으로 들어간 것과 서로 環跳穴과 습한다.)

【原文】

下循髀陽(髀之外側出이라.)膝外廉하야 下於外輔骨(膝下兩旁高骨이라.)之前이라.

(由髀陽으로 行太陽, 陽明之中하야 曆中瀆, 陽關하야 出膝外廉하야 下外輔之前하야 自陽陵泉以下陽交等穴也라.)

[解釋]

아래로 髀陽(髀의 外側으로 나온다.)으로 내려가서 膝外廉으로 해서 外輔骨(膝下 兩旁의 高骨이다.)의 앞으로 내려간다.

(髀陽을 경유하야 太陽, 陽明의 가운데로 행하야 中瀆, 陽關을 지나서 膝外廉으로 나와서 外輔의 앞으

로 내려가서 陽陵泉으로부터 陽交 等穴로 내려간다.)

【原文】

直(下)抵絕骨(之端)出外踝(之前)하야 循(足)跗(上)入小(指)次指間이라.

(外踝上骨際를 曰絕骨이요 其端은 即陽輔穴이라. 下懸鍾하야 循足面上之丘墟, 臨泣等穴하야 入足小指次指之間하야 抵窟陰穴而終也라.)

[解釋]

곧장 (내려가서) 絕骨(의 端)에 이르러 外踝(의 앞)으로 나와서 (足)跗를 따라서 (올라가서) 小(指)次指의 사이로 들어간다.

(外踝上的 骨際를 ‘絕骨’이라 하고, 그 端은 즉 陽輔穴이다. 懸鍾으로 내려가서 足面上的 丘墟, 臨泣 等 穴을 따라서 足小指 次指의 사이로 들어가서 窟陰穴에 이르러 끝난다.)

【原文】

支別跗上入大指(之間)하야 循(大)指岐骨(內)出其端이라.

[解釋]

支脈이 跗上에서 나뉘어 大指(의 사이)에 들어가서 (大)指의 岐骨(안)을 따라서 그 端으로 나온다.

【原文】

還貫爪甲出三毛하야 足厥陰經於此連이라. (足大指次指의 本節後骨縫이 爲岐骨이요 大指爪甲後二節間이 爲三毛라.)

[解釋]

도로 爪甲을 관통하야 三毛로 나오니 足厥陰經이 여기에서 이어진다.

(足大指 次指의 本節後의 骨縫이 岐骨이고 大指의 爪甲後 二節間이 三毛다.)

④ 『靈樞·經脈篇』106)

【原文】

10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2.

膽足少陽之脈은 起於目銳眥하여 上抵頭角이라가 下耳後하여 循頸하여 行手少陽之前하여 至肩上却交出手少陽之後하여 入缺盆이라 其支者는 從耳後入耳中하여 出走耳前하여 至目銳眥後라 其支者는 別銳眥하여 下大迎하여 合於手少陽하여 抵於頰下하여 加頰車하여 下頸하여 合缺盆하여 以下胸中하여 貫膈하여 絡肝하고 屬膽하여 循脇裏하여 出氣街하여 繞毛際하여 橫入髀厭中이라 其直者는 從缺盆下腋하여 循胸하여 過季脇하여 下合髀厭中以下하여 循髀陽하고 出膝外廉하여 下外輔骨之前하여 直下抵絕骨之端하여 下出外踝之前하여 循足附上하여 入小指次指之間이라 其支者는 別附上하여 入大指之間하여 循大指岐骨內하여 出其端하고 還貫爪甲하여 出三毛라

【解釋】

膽 足少陽脈은 目銳眥에서 起始하여 위로 頭角에 이르렀다가 耳後로 내려가서 頸을 따라서 手少陽의 앞으로 行하여 肩에 이르렀다가 물러나서 교차하여 手少陽의 뒤로 나와서 缺盆으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耳後로부터 耳中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耳前으로 走行하여 目銳眥의 뒤에 이른다. 그 支脈은 銳眥에서 나뉘어서 大迎으로 내려가서 手少陽에 合하여 頰下에 이르러 頰車에 더해져서 頸으로 내려가서 缺盆에 合하여 胸中으로 내려가서 膈을 貫通하여 肝을 絡하고 膽에 屬하여 脇裏를 따라서 氣街로 나와서 毛際를 엮어서 옆으로 髀厭의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直脈은 缺盆으로부터 腋으로 내려가서 胸을 따라서 季脇을 지나서 내려가서 髀厭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髀陽을 따르다가 膝外廉으로 나와서 外側의 輔骨의 앞으로 내려가서 곧장 내려가서 絕骨의 端으로 내려가서 아래로 外踝의 앞으로 나와서 足跗의 위를 따라서 小指 次指의 사이로 들어간다. 그 支脈은 附上에서 나뉘어서 大指의 사이로 들어가서 大指의 岐骨 안으로 들어가서 그 端으로 나오고 도로 爪甲을 貫通하여 三毛로 나온다.

⑤ 『足臂十一脈』<sup>107)</sup>

107)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87.

【原文】

足少陽脈은 出於踝前하여 枝於骨間하여 上貫膝外廉하여 出於股外廉하여 出脅이라. 枝之肩薄(膊)이라. 其直者는 貫腋하여 出於項耳·出月甚(肱)하여 出目外眥라.

【解釋】

足少陽脈은 外踝의 앞으로 나와서 骨間에서 갈라져서 위로 膝의 外廉을 貫通하여 股의 外廉으로 나와서 脅으로 나온다. 枝脈 肩薄(膊)으로 간다. 그 直脈은 腋을 貫通하여 項·耳·出月甚(肱)로 나와서 目外眥로 나온다.

⑥ 『陰陽十一脈』<sup>108)</sup>

【原文】

少陽脈은 繫於外踝之前廉하여 上出魚股之外廉(氣街)하여 出[脇]上하여 出目前이라.

【解釋】

少陽脈은 外踝의 前廉에 매여서 위로 魚股의 外廉(氣街)으로 나와서 [脇]상으로 나와서 目前으로 나온다.

(12) 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

① 『鍼灸大全』<sup>109)</sup>, 『凌門傳授銅人指穴』<sup>110)</sup>, 『楊敬齋鍼灸全書』<sup>111)</sup>, 『針灸聚英』<sup>112)</sup>, 『鍼灸大成』<sup>113)</sup>

【原文】

厥陰足脈肝所終하니 大指之端毛際叢이라. 足附上廉太衝分이요 踝前一寸入中封이라. 上踝交出太陰後요 循膈內廉陰股充이라. 環繞陰器抵小腹하여 俠胃屬肝絡膽逢이라. 上貫膈裏布脅肋하여 俠喉頰額目系同하여 脈上巔會督脈出이라. 支者還生目系中하여 下絡

108)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688.

109)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0)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1)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2)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23-224.

11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97.

頰裏還唇內하고 支者便從膈肺通이라.

【解釋】

足厥陰脈肝이 끝나는 經이니, 大指의 端은 毛際叢이다. 足跗의 上廉은 太衝의 分야요 內踝 前의 一寸에서 中封으로 들어간다. 內踝를 올라가서 교차하여 太陰의 뒤로 나오고, 臑 內廉을 따르고 陰股에서 (기운이) 채워진다. 陰器를 돌고 엮어서 小腹에 이르러서 胃를 끼고 肝에 屬하고 膈에 絡하여 만난다. 위로 膈裏를 貫通하여 脅肋으로 分布하여 喉와 頰頰을 끼고 目系 역시 함께 끼어서 脈이 巔으로 올라가서 督脈과 모여서 나온다. 그 支脈은 도로 目系 中에서 생겨서 내려와서 頰裏에 絡하고 唇內를 돌고 支脈은 곧 膈으로부터 肺로 通한다.

② 『刺灸心法要訣』<sup>114)</sup>

①과 동일함

③ 『經脈圖考』<sup>115)</sup>

【原文】

足厥陰肝脈所終이니 起於大指毛際叢이라.

(足大指爪甲의 橫紋後毛際는 大敦穴이라.)

【解釋】

足厥陰肝脈이 끝나는 곳이니 大指의 毛際叢에서 起始한다.

(足大指 爪甲의 橫紋後의 毛際는 大敦穴이라.)

【原文】

循足跗上(廉)上內踝하야

(內踝前一寸은 中封也라.)

【解釋】

足跗의 上(廉)을 따라서 內踝로 올라가서

(內踝 前 一寸은 中封이다.)

【原文】

出太陰後入臑中이라.

(上踝八寸中都之分하야 交出足太陰之後하야 上臑內廉하야 至膝關, 曲泉等穴이라.)

【解釋】

太陰의 뒤로 나와서 臑中으로 들어간다.

(上踝八寸中都之分하야 交出足太陰之後하야 上臑內廉하야 至膝關, 曲泉等穴이라.)

【原文】

循股(陰)入毛(中)繞陰器하야

(股陰는 內側也라. 循股內之陰包, 五里, 陰廉하야 上會足太陰之衝門, 府舍하야 入陰毛中之急脈하야 遂左右相交하야 環繞陰器하야 而會於任脈之曲骨이라.)

【解釋】

循股(陰)入毛(中)繞陰器하야

(股陰는 內側也라. 循股內之陰包, 五里, 陰廉하야 上會足太陰之衝門, 府舍하야 入陰毛中之急脈하야 遂左右相交하야 環繞陰器하야 而會於任脈之曲骨이라.)

【原文】

上抵小腹挾胃通이라.

【解釋】

위로 小腹에 이르러 胃를 끼어서 通한다.

【原文】

屬肝絡膽(自陰上入小腹하야 會於任脈之中極, 關元하야 循章門至期門之所하야 挾胃屬肝하고 下足少陽日月之所하야 絡膽이라.) 上貫膈하야

【解釋】

肝에 屬하고 膽에 絡하여(陰으로터 올라와서 小腹으로 들어가서 任脈의 中極, 關元에서 모여서 章門을 따라서 期門의 곳에 이르러서 胃를 끼어 肝에 屬하고 足少陽 日月의 곳으로 내려가서 膽에 屬한다.) 올라가서 膈을 貫通하여

【原文】

布於脅肋(自期門上貫膈하야 行足太陰食竇之外, 大包之裏하야 散布脅肋하야 上足少陽淵腋, 手太陰雲門之下하야 足厥陰經穴止此라.) 循喉嚨이라.

114)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1089-1090.

115)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解釋]

脅肋에서 散布하여(期門으로부터 올라와서 膈을 貫通하여 足太陰 食寶의 밖과 大包의 안으로 行하여 膈에 散布하여 足少陽 淵腋과 手太陰 雲門의 아래로 올라가니 足厥陰經穴이 여기에서 그친다.) 喉嚨을 따른다.

【原文】

(之後)上入頰頰(咽頰)連目系(目內深處)하여

[解釋]

(뒤로 가서) 올라가서 頰頰(咽頰)으로 들어가서 目系(目內的 深處이다.)에 들어가서

【原文】

出額會督頂巔逢이라.

(其內行而上者는 自脅肋間으로 由足陽明人迎之外 하여 循喉嚨之後하여 入頰頰하여 行足陽明大迎, 地倉, 四白之外하여 內連目系하여 上出足少陽陽白之外, 臨泣之裏하여 與督脈으로 相會於頂之百會이라.)

[解釋]

額으로 나와서 督과 頂巔에서 모여서 만난다.

(그 內行하여 올라가는 脈은 脅肋間으로부터 足陽明의 人迎의 밖을 경유하여 喉嚨의 뒤를 따라서 頰頰으로 들어가서 足陽明의 大迎, 地倉, 四白의 밖을 行하여 안으로 目系에 이어져서 위로 足少陽의 陽白의 밖과 臨泣의 안으로 나와서 督脈과 함께 서로 頂의 百會에서 모인다.)

【原文】

其支復從目系出하여 下行頰裏交環唇이라.

(此支는 從前目系之分으로 下行任脈之外, 本經之裏하여 環於口唇之內라.)

[解釋]

그 支脈은 다시 目系로부터 나와서 頰裏로 下行하여 交차하여 唇을 돈다.

(이 支脈은 앞의 目系의 분야로부터 任脈의 밖과 本經의 안으로 行하여 口唇의 內로 돈다.)

【原文】

支者從肝別貫膈하여 上注於肺乃交宮이라.

(又其支者는 從前期門으로 屬肝所하여 行足太陰 食寶之外와 本經之裏하여 別貫膈하여 上注於肺하여 下行至中焦하여 挾中脘之分하고 復接於手太陰之肺經하여 以盡十二經之一周하니 終而復始也라.)

[解釋]

支脈은 肝으로부터 나뉘어 膈을 貫通하여 위로 肺에 注入하여야 이에 만나는 곳이다.

(또한 그 支脈은 앞의 期門으로부터 肝에 소속하여 足太陰의 食寶의 밖과 本經의 안을 행하여 별도로 膈을 貫通하여 위로 肺에 注入하여 下行하여 中焦에 이르러 中脘의 분야를 끼고 다시 手太陰의 肺經에 접하여 十二經의 一周를 다하니, 마침에 다시 시작한다.)

④ 『靈樞·經脈篇』116

【原文】

肝足厥陰之脈은 起於大指叢毛之際하여 上循足跗 上廉하여 去內踝一寸하여 上踝八寸하여 交出太陰之後하여 上膈內廉하여 循股陰하여 入毛中하여 過陰器 하여 抵小腹하여 挾胃屬肝하여 絡膽하고 上貫膈하여 布脇肋하여 循喉嚨之後하여 上入頰頰하여 連目系하여 上出額하여 與督脈會於巔이라 其支者는 從目系下 頰裏하여 環唇內라 其支者는 復從肝하여 別貫膈하여 上注肺라

[解釋]

肝 足厥陰의 脈은 大指의 叢毛의 際에서 起始하여 위로 足跗의 上廉을 따라서 內踝에서 一寸을 떨어져서 內踝의 八寸으로 올라가서 交차하여 太陰의 뒤로 나와서 膈의 內廉으로 올라가서 股陰을 따라서 毛中으로 들어가서 陰器를 지나서 小腹에 이르러 胃를 끼고 肝에 屬하고 膽에 絡하고 위로 膈을 貫通하여 脇肋에 散布하여 喉嚨의 뒤를 따라서 위로 頰頰으로 들어가서 目系에 이어져서 위로 額으로 나와서 督脈과 巔에서 모인다. 그 支脈은 目系로부터 頰裏로 내려가서 唇內를 돈다. 그 支脈은 다시 肝으로부터 나뉘어

1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p.83.

膈을 貫通하여 위로 肺에 注入한다.

⑤ 『足臂十一脈』<sup>117)</sup>

【原文】

足厥陰脈은 循大指間하야 以上出脗內廉하야 上八寸하야 交泰陰脈하야 □股內하야 上入脗(脛)間이라.

【解釋】

足厥陰脈은 足大指間을 따라서 올라와서 脗內廉으로 나와서 八寸을 올라가서 泰陰脈에서 交叉하여 股內을 □하여 위로 脗(脛)間으로 들어간다.

⑥ 『陰陽十一脈』<sup>118)</sup>

【原文】

厥陰脈은 繫於足大指叢毛之上하야 乘足跗上廉하야 去內踝一寸하야 上踝五寸而出太陰之後하야 上出魚股內廉하야 觸少腹하야 大瀆旁이라.

【解釋】

厥陰脈은 足大指의 叢毛의 上에 매여서 足跗의 上廉을 타서 足內踝에서 一寸을 떨어져서 踝의 五寸으로 올라가서 太陰의 뒤로 나와서 올라가서 魚股의 內廉에서 나와서 少腹에 接觸하여 크게 옆까지 적신다.

## 2. 경혈가(經穴歌)

모두 10 종류가 있다.

### (1)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① 『鍼灸大全』<sup>119)</sup>, 『楊敬齋鍼灸全書』<sup>120)</sup>

【原文】

手太陰肺大指側이니 少商魚際兮太淵穴이라. 經渠兮列缺이요 孔最兮尺澤이라. 俠白共天府爲鄰이요 雲門與中府相接이라.

117)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9.  
118)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709.  
119)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0)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解釋】

手太陰肺는 大指의 側에 있으니 少商과 魚際와 太淵穴이다. 經渠와 列缺이요 孔最와 尺澤이라. 俠白은 天府와 함께 이웃이 되고 雲門은 中府와 서로 接한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121)</sup>

【原文】

手中太陰肺經先이요 中府雲門天府寒이라. 俠白尺澤孔最便이요 列缺經渠太淵泉이라. 魚際少商十一穴을 寄與醫人仔細看이라.

【解釋】

手中太陰의 肺經이 먼저요 中府와 雲門과 天府가 차다. 俠白과 尺澤과 孔最요 列缺과 經渠와 太淵이 泉이다. 魚際와 少商의 十一穴을 醫人에게 寄與하니 자세히 볼지니라.

③ 『鍼灸神書』<sup>122)</sup>

【原文】

中府雲門天府列이요 俠白孔最尺澤穴이라 列缺經渠太淵好요 魚際少商如韭葉이라.

【解釋】

中府와 雲門과 天府가 배열됨이요 俠白과 孔最과 尺澤穴이다. 列缺과 經渠과 太淵이 좋고 魚際와 少商이 부추의 잎과 같다.

④ 『金針秘傳』<sup>123)</sup>, 『經絡匯編』<sup>124)</sup>, 『經絡考』<sup>125)</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126)</sup>, 『經脈圖考』<sup>127)</sup>

121)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2)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3)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4)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5)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6)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手太陰十一穴은 中府雲門天府列이라. 俠白下尺澤이요. 孔最見列缺이라. 經渠太淵下魚際요. 抵指少商如韭葉이라.(古離爪甲如韭이러니 今如米許라.)

【解釋】

手太陰十一穴은 中府와 雲門과 天府이 배열됨이라. 俠白의 아래가 尺澤이요. 孔最에 다음에 列缺이 나타난다. 經渠와 太淵의 아래에 魚際요. 大指에 이르러 少商이니 부추의 잎과 같다.(옛날에는 손톱에서 거리가 부추와 같더니 지금은 대략 쌀알과 같다.)

⑤ 『針灸聚英』<sup>128)</sup>, 『十四經發揮』<sup>129)</sup>

【原文】

手太陰十一穴은 中府雲門天府列이요. 俠白尺澤孔最存이요. 列缺經渠太淵涉이요. 魚際少商如韭葉이라.

【解釋】

手太陰의 11개의 穴은 中府와 雲門과 天府가 배열되고 俠白과 尺澤과 孔最가 보존되어 있다. 列缺과 經渠와 太淵을 건너고 魚際와 少商이 부추의 잎과 같다.

⑥ 『靈樞經脈翼』<sup>130)</sup>

⑤와 동일.

⑦ 『刺灸心法要訣』<sup>131)</sup>

【原文】

手太陰肺十一穴은 中府雲門天府列이라. 次則俠白下尺澤이요. 又次孔最與列缺이라. 經渠太淵下魚際요. 抵指少商如韭葉이라.

【解釋】

手太陰 肺의 11개의 穴은 中府와 雲門과 天府가 배열된다. 다음은 俠白이고 아래는 尺澤이요 또 다음은 孔最와 列缺이다. 經渠와 太淵의 아래에 魚際이고

大指에 이르러 少商이니 부추의 잎과 같다.

⑧ 『鍼灸大成』<sup>132)</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133)</sup>

【原文】

手太陰經十一穴은 中府雲門天府列이라. 俠白尺澤孔最存이요. 列缺經渠太淵涉이라. 魚際直出大指端이니 內側少商如韭葉이라.

【解釋】

手太陰經의 11개 穴은 中府와 雲門과 天府가 배열된다. 俠白과 尺澤과 孔最가 보존되고 列缺과 經渠와 太淵을 건넌다. 魚際에서 곧장 大指의 말단으로 나가니 內側에 少商이 부추의 잎과 같다.

⑩ 『醫學入門』<sup>134)</sup>

【原文】

手太陰肺十一穴은 中府雲門天府訣이라. 俠白尺澤孔最存이요. 列缺經渠太淵涉이요. 魚際少商如韭葉이라.

【解釋】

手太陰 肺의 11개의 穴은 中府와 雲門과 天府의 訣이다. 俠白과 尺澤과 孔最가 보존되고 列缺과 經渠와 太淵을 건너고 魚際와 少商이 부추의 잎과 같다.

(2)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① 『鍼灸大全』<sup>135)</sup>, 『楊敬齋鍼灸全書』<sup>136)</sup>

【原文】

手陽明兮여 大腸之經이라. 循商陽이요. 二間三間而行이라. 曆合谷하면 陽谿之谿요. 過偏曆하면 溫溜之濱이라. 下廉上廉은 三里而近이요. 曲池肘膠는 五里之程이라. 臑髃上於巨骨이요. 天鼎紆乎扶突이라. 禾膠

128)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7.

129)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30)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31)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65.

13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9.

13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09.

13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59.

135)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36)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唇連이요 迎香鼻迫이라.

[解釋]

手陽明이여 大腸의 經이다. 商陽을 따르고 二間三間으로 行한다. 合谷을 지나면 陽谿의 腧이고 偏曆을 지나면 溫溜의 腧이다. 下廉과 上廉은 三里로 가니 가깝고 曲池와 肘髎는 五里로 가는 科程이다. 臑髎에서 巨骨로 올라가고 天鼎는 扶突로 굽어간다. 禾髎는 口에 닿아있고 迎香은 코에 가깝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137)</sup>

【原文】

手中陽明大腸經은 商陽二間三間明이라. 合谷陽谿偏曆溫溜이요 溫溜下廉上廉淸이라. 三里曲池肘髎去오 五里臂臑肩髎遇라. 巨骨天鼎扶突來요 禾髎迎香從此住이라.

[解釋]

手陽明 大腸經은 商陽과 二間과 三間이 분명하다. 合谷과 陽谿와 偏曆를 지나고 溫溜와 下廉과 上廉으로 淸廉하다. 三里와 曲池와 肘髎로 떠나고 五里와 臂臑와 肩髎로 만난다. 巨骨과 天鼎과 扶突로 오고 禾髎와 迎香이 여기로부터 있다.

③ 『鍼灸神書』<sup>138)</sup>

【原文】

手於陽明起商陽이요 二間三間合谷藏이라. 陽谿偏曆溫溜요 下廉上廉三里長이라. 曲池肘髎隨五里요 臂臑肩髎巨骨常이라. 天鼎扶突禾髎接이요 終於迎香二十行이라.

[解釋]

手는 陽明에서 商陽을 일으키고 二間과 三間과 合谷에서 감추어져 있다. 陽谿와 偏曆에서 溫溜로 이어지고 下廉과 上廉과 三里로 길다. 曲池와 肘髎는 五里를 따르고 臂臑와 肩髎와 巨骨이 정상이다. 天鼎과 扶突과 禾髎가 接하고 迎香의 20행(行)에서 마친다.

137)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38)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④ 『金針秘傳』<sup>139)</sup>, 『經絡匯編』<sup>140)</sup>, 『經絡考』<sup>141)</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142)</sup>, 『經脈圖考』<sup>143)</sup>

【原文】

手陽明은 廿穴名이라. 循商陽이요 二間三間而行이라. 曆合谷하면 陽谿之俞요 過偏曆하면 溫溜之濱이라. 下廉上廉은 三里而近이요 曲池肘髎는 五里之程이라. 臂臑肩髎는 上於巨骨이요 天鼎紆乎扶突이라. 禾髎唇連이요 迎香鼻迫이라.

[解釋]

手陽明은 二十穴의 이름이다. 商陽을 따르고 二間과 三間으로 行한다. 合谷을 지나면 陽谿의 俞이고 偏曆을 지나면 溫溜의 腧이다. 下廉과 上廉은 三里로 가니 가깝고 曲池와 肘髎는 五里로 가는 科程이다. 臂臑와 肩髎는 巨骨로 올라가고 天鼎은 扶突로 굽어간다. 禾髎은 口에 닿아있고 迎香은 코에 가깝다.

⑤ 『針灸聚英』<sup>144)</sup>, 『十四經發揮』<sup>145)</sup>

【原文】

手陽明起商陽하니 二間三間合谷藏이라. 陽谿偏曆曆溫溜요 下廉上廉三里長이라. 曲池肘髎迎五里요 臂臑肩髎巨骨當이라. 天鼎扶突禾髎接이요 終以迎香二十穴이라.

[解釋]

手陽明은 商陽에서 起始하니 二間과 三間과 合谷에서 감추어져 있다. 陽谿와 偏曆은 溫溜를 지나가고 下廉과 上廉과 三里로 길다. 曲池와 肘髎는 五里를 맞이하고 臂臑와 肩髎은 巨骨과 相當한다. 天鼎와 扶

139)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0)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1)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2)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3)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7.  
145)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突은 禾膠에 接하고 迎香로 마치니 二十穴이다.

⑥ 『靈樞經脈翼』<sup>146)</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147)</sup>

【原文】

手陽明穴起商陽하니 二間三間合谷藏이라. 陽溪偏曆曆溫溜요. 下廉上廉三里長이라. 曲池肘膠迎五里요. 臂臑肩髃巨骨起라. 天鼎扶突接禾膠이요. 終以迎香二十止라.

【解釋】

手陽明穴은 商陽에서 起始하니 二間과 三間과 合谷에 감추어져 있다. 陽溪와 偏曆이 溫溜로 지나가고 下廉과 上廉과 三里로 길다. 曲池와 肘膠는 五里를 맞이 하고 臂臑와 肩髃와 巨骨로 일어난다. 天鼎과 扶突은 禾膠와 接하고 迎香으로 마치니 二十穴로 그친다.

⑧ 『鍼灸大成』<sup>148)</sup>

【原文】

手陽明兮여 大腸之經이라. 循商陽兮여 二三而行이라.(二間 三間也.) 曆合谷하면 陽溪之腋요. 過偏曆하면 溫溜之濱이라. 下廉, 上廉은 三里而近이라. 曲池肘膠는 五里之程이라. 臑髃(即臂臑, 肩髃二穴이라.)上於巨骨이요. 天鼎紆乎扶突이라. 禾膠唇連이요. 迎香鼻迫이라.(左右共四十穴이라.)

【解釋】

手陽明이여 大腸經이다. 商陽을 따름이여 二間 三間으로 行한다.(二間과 三間이다.) 合谷을 지나면 陽溪의 腋요. 偏曆을 지나면 溫溜의 가다. 下廉과 上廉은 三里로 가깝다. 曲池와 肘膠는 五里로 가는 과정이다. 臑髃는(즉 臂臑, 肩髃의 二穴이다.) 巨骨로 올라가고 天鼎은 扶突에 굽어져서 간다. 禾膠는 입술에 이어지고 迎香은 코에 가깝다.(左右 모두 四十穴이

다.)

⑨ 『類經圖翼』<sup>149)</sup>

【原文】

手陽明穴起商陽하니 二間三間合谷藏이라. 陽溪偏曆曆溫溜요. 下廉上廉三里長이라. 曲池肘膠迎五里이요. 臂臑肩髃巨骨起라. 天鼎扶突接禾膠요. 終以迎香二十止라.

【解釋】

手陽明穴은 商陽에서 起始하니 二間과 三間과 合谷에서 감추어진다. 陽溪와 偏曆은 溫溜로 지나가고 下廉과 上廉은 三里로 길다. 曲池와 肘膠는 五里를 맞이 하고 臂臑와 肩髃는 巨骨로 일어난다. 天鼎과 扶突은 禾膠와 接하고 迎香으로 마치니 二十穴로 그친다.

⑩ 『醫學入門』<sup>150)</sup>

【原文】

手陽明穴起商陽하니 二間三間合谷藏이라. 陽谿偏曆溫留長이요. 下廉上廉手三里라. 曲池肘膠五里近이요. 臂臑肩髃巨骨當이라. 天鼎扶突禾膠接이요. 鼻傍五分號迎香이라.

【解釋】

手陽明穴은 商陽에서 起始하니 二間과 三間과 合谷에서 감추어진다. 陽谿와 偏曆과 溫留로 길고 下廉과 上廉과 手三里다. 曲池와 肘膠는 五리와 가깝고 臂臑와 肩髃는 巨骨과 相當한다. 天鼎와 扶突은 禾膠에 接하고 코 옆의 五分을 迎香이라고 부른다.

### (3)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① 『鍼灸大全』<sup>151)</sup>, 『楊敬齋鍼灸全書』<sup>152)</sup>

【原文】

胃乃足之陽明이니 厲兌趨乎內庭이라. 過陷谷하면 衝陽之分이요. 見解谿하면 豐隆之神이라. 下巨虛兮여

14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13.

15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61.

15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52)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6)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7)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67.

14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9.

條口陳이요 上巨虛兮여 三里仍이라. 犢鼻引入梁丘陰市之下요 伏兔上貫髀關氣衝之經이라. 歸來兮水道요 大巨兮外陵이라. 運天樞兮滑肉이요 禮太乙兮關門이라. 梁門兮承滿이요 不容兮乳根이라. 乳中之膺窓屋翳요 庫房之氣戶缺盆이라. 氣舍水突요 人迎大迎이라. 地倉兮여 巨膠續이요 四白兮여 承泣分이라. 禦頰車於下關이요 張頭維於額垠이라.

[解釋]

胃는 足陽明이니 厲兌는 內庭으로 달려간다. 陷谷을 지나면 衝陽의 분야이고 解谿를 보면 豐隆의 神이다. 下巨虛여 條口로 베풀어지고 上巨虛여 三里로 따른다. 犢鼻는 梁丘와 陰市의 아래로 당겨서 들어가고 伏兔는 위로 髀關과 氣衝의 經을 貫通한다. 歸來여 水道요 大巨여 外陵이다. 天樞를 運行함이며 滑肉門이요 太乙로 차례함[禮=질서]이며 關門이다. 梁門이며 承滿이요 不容이며 乳根이다. 乳中の 膺窓은 屋翳요 庫房의 氣戶는 缺盆이라. 氣舍와 水突요 人迎과 大迎이라. 地倉이며 巨膠로 이어지고 四白이며 承泣과 나뉜다. 頰車를 下關에서 막고 頭維를 額의 끝에 베풀는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153)</sup>

【原文】

足中陽明是胃經이니 頭維下關頰車奔이라. 承泣四白巨膠順이요 地倉大迎人迎吞이라. 水突氣舍缺盆接이요 氣戶庫房屋翳論이라. 膺窓乳中乳根近이요 不容承滿梁門分이라. 關門太乙滑肉門이요 天樞外陵大巨陳이라. 水道歸來氣衝接이요 髀關伏兔陰市詢이라. 梁丘犢鼻三里近이요 上巨虛兮條口因이라. 下巨虛兮豐隆位요 解谿衝陽陷谷親이라. 內庭厲兌胃經盡하니 穴名次取湊成文이라.

[解釋]

足中の 陽明은 胃經이니 頭維와 下關은 頰車로 달린다. 承泣과 四白은 巨膠과 順하고 地倉과 大迎은 人迎이 併呑한다. 水突과 氣舍는 缺盆에 接하고 氣戶와 庫房은 屋翳와 論한다. 膺窓과 乳中은 乳根에 가

153)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깝고 不容과 承滿은 梁門과 구분된다. 關門과 太乙은 滑肉의 門이요 天樞는 밖으로 베풀어지고 大巨도 베풀어져 있다. 水道와 歸來는 氣衝과 接하고 髀關과 伏兔는 陰市에서 물어라. 梁丘와 犢鼻는 三里와 가깝고 上巨虛여 條口와 이어진다. 下巨虛여 豐隆가 자리하고 解谿와 衝陽은 陷谷과 親하다. 內庭와 厲兌에서 胃經이 다하니 穴名을 차례대로 취하여 모아서 글을 이룬다.

③ 『鍼灸神書』<sup>154)</sup>

【原文】

罕有五穴足陽明이니 承泣四白巨膠經이라. 地倉大迎頰車峙요 下關頭維人迎對라. 水突氣舍連缺盆이요 氣戶庫房屋翳迎이라. 膺窓乳中延乳根이요 不容承滿梁門分이라. 關門太乙滑肉門이요 天樞外陵大巨存이라. 水道歸來衝次髀이요 伏兔陰市走梁丘라. 犢鼻足下三里上이요 上廉條口下廉逢이라. 豐隆解谿衝陽足이요 陷谷終從厲內庭이라.

[解釋]

(50穴에서) 5穴이 적은 것이 足陽明이니 承泣과 四白가 巨膠의 길이다. 地倉과 大迎은 頰車와 對峙하고 下關과 頭維는 人迎과 對한다. 水突과 氣舍는 缺盆에 이어지고 氣戶와 庫房은 屋翳가 맞는다. 膺窓과 乳中은 乳根에 이어지고 不容과 承滿은 梁門과 나뉜다. 關門과 太乙은 滑肉의 門이요 天樞와 外陵은 大巨에서 보존된다. 水道와 歸來는 氣衝이 髀에서 다음하고 伏兔와 陰市는 梁丘로 달려간다. 犢鼻는 足下の 三里上이고 上廉과 條口는 下廉과 만난다. 豐隆과 解谿는 衝陽과 발에 있고 陷谷은 厲兌와 內庭에서 마친다.

④ 『金針秘傳』<sup>155)</sup>, 『經絡匯編』<sup>156)</sup>, 『經絡考』<sup>157)</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158)</sup>, 『經脈圖考』<sup>159)</sup>

154)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55)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56)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57)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足陽明은 四十五이니 是承泣四白而數라 巨膠有地倉之積이요 大迎乘頰車之髻라. 下關頭維及人迎이요 水突氣舍與缺盆이라. 氣戶兮庫房屋翳이요 膺窓兮乳中乳根이라. 不容承滿이요 梁門關門이라. 太乙滑肉이요 天樞外陵이라. 大巨從水道歸來요 氣衝入髀關之境이라. 伏兔至陰市梁邱요 犢鼻自三里而行이라. 上巨虛兮條口요 下巨虛兮豐隆이라. 解溪衝陽入陷谷이요 下內庭厲兌而終이라.

【解釋】

足陽明은 四十五穴이니 承泣과 四白으로 세어 나간다. 巨膠는 地倉의 쌓음이 있고 大迎은 頰車의 많음을 올라탄다. 下關과 頭維는 人迎에 미치고 水突과 氣舍는 缺盆과 함께 한다. 氣戶여 庫房과 屋翳이고 膺窓이여 乳中과 乳根이다. 不容과 承滿이요 梁門과 關門이라. 太乙과 滑肉이요 天樞와 外陵이다. 大巨은 水道로부터 歸來함이고 氣衝은 髀關의 境界로 들어간다. 伏兔는 陰市와 梁邱에 이르고 犢鼻는 三里로부터 行한다. 上巨虛여 條口이고 下巨虛여 豐隆이다. 解溪와 衝陽은 陷谷으로 들어가고 內庭과 厲兌로 내려가서 마친다.

⑤ 『針灸聚英』<sup>160)</sup>, 『十四經發揮』<sup>161)</sup>

【原文】

四十五穴足陽明이니 承泣四白巨膠經이라. 地倉大迎頰車峙요 下關頭維人迎對라. 水突氣舍連缺盆이요 氣戶庫房屋翳屯이라. 膺窓乳中延乳根이요 不容承滿梁門起라. 關門太乙滑肉門이요 天樞外陵大巨存이라. 水道歸來氣衝次요 髀關伏兔走陰市라. 梁丘犢鼻足三里라. 上巨虛連條口位요 下巨虛位及豐隆이라. 解溪衝陽陷谷中이요 內庭厲兌經穴終이라.

【解釋】

158)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59)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60)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7.  
161)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四十五穴이 足陽明이니 承泣과 四白이 巨膠의 길이다. 地倉과 大迎은 頰車와 對峙하고 下關과 頭維는 人迎과 相對한다. 水突과 氣舍는 缺盆과 이어지고 氣戶와 庫房은 屋翳의 駐屯이다. 膺窓과 乳中은 乳根에 이어지고 不容과 承滿은 梁門으로 일어난다. 關門과 太乙은 滑肉의 門이고 天樞와 外陵은 大巨에서 보준다. 水道와 歸來는 氣衝의 다음이고 髀關과 伏兔는 陰市로 달려간다. 梁丘와 犢鼻와 足三里이라. 上巨虛는 條口에 이어서 자리하고, 下巨虛는 자리가 豐隆에 미친다. 解溪와 衝陽은 陷谷의 가운데요 內庭과 厲兌에서 經穴이 마친다.

⑥ 『靈樞經脈翼』<sup>162)</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163)</sup>

【原文】

四十五穴足陽明이니 承泣四白巨膠經이라. 地倉大迎登頰車이요 下關頭維對人迎이라. 水突氣舍連缺盆이요 氣戶庫房屋翳尋이라. 膺窓乳中下乳根이요 不容承滿出梁門이라. 關門太乙滑肉起요 天樞外陵大巨裏라. 水道歸來達氣衝요 髀關伏兔走陰市라. 梁丘犢鼻足三里요 上巨虛連條口底라. 下巨虛下有豐隆이요 解溪衝陽陷谷同이라. 內庭厲兌陽明穴이니 大指次指之端終이라.

【解釋】

四十五穴이 足陽明이니 承泣과 四白은 巨膠의 길이다. 地倉과 大迎은 頰車로 올라가고 下關과 頭維는 人迎과 상대한다. 水突과 氣舍는 缺盆에 이어지고 氣戶와 庫房으로 가서 屋翳에서 찾는다. 膺窓과 乳中에서 乳根으로 내려가고 不容과 承滿은 梁門으로 나온다. 關門과 太乙은 滑肉門으로 일어나고 天樞와 外陵은 大巨의 안이다. 水道와 歸來는 氣衝와 만나고 髀關과 伏兔는 陰市로 달려간다. 梁丘와 犢鼻와 足三里요 上巨虛는 條口の 바닥과 이어진다. 下巨虛의 아래

162)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63)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69.

에 豐隆이 있고 解溪와 衝陽은 陷谷과 같다. 內庭과 厲兌는 陽明穴이니 大指와 次指의 말단에서 끝난다.

⑧ 『鍼灸大成』<sup>164)</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165)</sup>

⑦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166)</sup>

【原文】

四十五穴足陽明이라. 頭維下關頰車停이요. 承泣四白巨膠經이라. 地倉大迎對人迎이요. 水突氣舍連缺盆이라. 氣戶庫房屋翳屯이요. 膺窓乳中延乳根이라. 不容承滿梁門起요. 關門太乙滑肉門이라. 天樞外陵大巨存이요. 水道歸來氣衝次라. 髀關伏兔走陰市요. 梁丘犢鼻足三里라. 上巨虛連條口位요. 下巨虛跳上豐隆이라. 解谿衝陽陷谷中이요. 內庭厲兌經穴終이라.

【解釋】

四十五穴이 足陽明이다. 頭維와 下關은 頰車에서 머물고 承泣과 四白은 巨膠의 길이다. 地倉과 大迎은 人迎에 對하고 水突과 氣舍는 缺盆에 이어진다. 氣戶와 庫房은 屋翳의 주둔지이고 膺窓과 乳中은 乳根에 이어진다. 不容과 承滿은 梁門으로 일어나고 關門과 太乙은 滑肉의 門이다. 天樞와 外陵은 大巨에서 보존되고 水道와 歸來는 氣衝으로 차례로 한다. 髀關과 伏兔는 陰市로 달려가고 梁丘와 犢鼻와 足三里다. 上巨虛는 條口에 이어져 자리하고 下巨虛는 上豐으로 뛰어서 隆盛하다. 解谿와 衝陽은 陷谷의 가운데요 內庭과 厲兌에서 經穴이 마친다.

(4)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① 『鍼灸大全』<sup>167)</sup>, 『楊敬齋鍼灸全書』<sup>168)</sup>

16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9.

16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18.

16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63.

167)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68)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

【原文】

足太陰兮여 脾中州니 隱白出兮여 大指頭라. 赴大都兮여 瞻太白이요. 訪公孫兮여 至商丘라. 越三陰之交而漏谷地機可即이라. 步陰陵之泉而血海箕門是求라. 入衝門兮府舍軒豁이요. 解腹結兮여 大橫優遊라. 腹哀食竇兮여 接天谿而同派이라. 胸鄉周榮兮여 綴大包而如鉤라.

【解釋】

足太陰이여 脾의 中州이니 隱白이 나오이여 大指頭이다. 大都로 달림이여 太白을 보고 公孫에 방문함이여 商丘에 이른다. 三陰交를 넘어서 漏谷과 地機에 가히 나아간다. 陰陵泉을 걸어서 血海와 箕門을 이에求한다. 衝門으로 들어감이여 府舍의 집이 넓고 腹結을 풀이여 大橫이 넉넉하게 노닌다. 腹哀와 食竇여 天谿에 接하여 派를 함께 한다. 胸鄉과 周榮이여 大包를 꿰어서 같고리와 같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169)</sup>

【原文】

足中太陰脾經篇이니 隱白大都太白仙이라. 公孫商丘三陰交요. 漏谷地機陰陵泉이라. 血海期門衝門近이요. 府舍腹結大橫連이라. 腹哀食竇天溪去요. 胸鄉周榮大包全이라.

【解釋】

足太陰의 脾經篇이니 隱白과 大都는 太白의 神仙이다. 公孫과 商丘와 三陰交요. 漏谷과 地機와 陰陵泉이다. 血海와 期門은 衝門과 가깝고 府舍와 腹結은 大橫과 이어진다. 腹哀와 食竇은 天溪와 떨어져 있고 胸鄉과 周榮는 大包와 온전하다.

③ 『鍼灸神書』<sup>170)</sup>

【原文】

二十一穴太陰脾이라. 隱白大都太白隨요. 公孫商丘三陰交라. 漏谷地機陰陵拗요. 血海箕門門沖開라. 府舍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69)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0)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腹結大橫排요 胸鄉周榮大包隨라.

【解釋】

二十一穴이 足太陰의 脾이다. 隱白과 大都은 太白를 따르고 公孫과 商丘와 三陰交이다. 漏谷과 地機는 陰陵이 꺾고 血海와 箕門은 沖門에서 열린다. 府舍와 腹結은 大橫으로 배열되고 胸鄉과 周榮은 大包를 따른다.

④ 『金針秘傳』<sup>171)</sup>, 『經絡匯編』<sup>172)</sup>, 『經絡考』<sup>173)</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174)</sup>, 『經脈圖考』<sup>175)</sup>

【原文】

足太陰兮여 脾中州이니 二十一穴이 隱白遊라. 赴大都兮여 瞻太白이요 訪公孫兮여 至商邱라. 越三陰之交, 而漏谷地機可接이요 步陰陵之泉, 而血海箕門是求라. 入衝門兮여 府舍軒豁이요 解腹結兮여 大橫優遊라. 腹哀食竇兮여 接天溪而同派요 胸鄉周榮兮여 綴大包而如鉤라.

【解釋】

足太陰이여 脾의 中州이니 21穴이 隱白에서 노닌다. 大都로 달림이여 太白了 보고 公孫에 방문함이여 商丘에 이른다. 三陰交를 넘어서 漏谷과 地機에 가히接한다. 陰陵泉을 걸어서 血海와 箕門을 이에 求한다. 衝門으로 들어감이여 府舍의 집이 넓고 腹結을 품이여 大橫이 넉넉하게 노닌다. 腹哀와 食竇여 天溪에 接하여 派를 함께 한다. 胸鄉과 周榮이여 大包를 꿰어서 갈고리와 같다.

⑤ 『針灸聚英』<sup>176)</sup>, 『十四經發揮』<sup>177)</sup>

171)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2)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3)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4)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5)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6)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7.  
177)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③과 동일함.

⑥ 『靈樞經脈翼』<sup>178)</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179)</sup>

【原文】

足太陰脾由足拇하니 隱白先從內側起라. 大都太白繼公孫이요 商丘直上三陰塢라. 漏谷地機陰陵泉이요 血海箕門衝門前이라. 府舍腹結大橫上이요 腹哀食竇天溪連이라. 胸鄉周榮大包盡하니 二十一穴太陰全이라.

【解釋】

足太陰脾는 足拇趾를 경유하니 隱白은 먼저 內側에서 일어난다. 大都와 太白은 公孫에 이어지고 商丘는 곧장 三陰의 肅으로 올라간다. 漏谷과 地機와 陰陵泉이요 血海와 箕門은 衝門의 앞이다. 府舍와 腹結은 大橫의 위요 腹哀와 食竇는 天溪과 이어진다. 胸鄉와 周榮는 大包에서 다하니 二十一穴로 足太陰이 온전하다.

⑧ 『鍼灸大成』<sup>180)</sup>

【原文】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181)</sup>

⑦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182)</sup>

【原文】

二十一穴脾中州라. 隱白在足大指頭요 大都太白公孫盛이라. 商丘三陰交可求요 漏谷地機陰陵穴이라. 血海箕門衝門開요 府舍腹結大橫排라. 腹哀食竇連天溪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8)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9)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1.  
180)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9.  
18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29.  
18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69.

요 胸鄉周榮大包隨라.

[解釋]

二十一穴이 脾의 中州이다. 隱白은 足大指의 頭에 있고 大都과 太白은 公孫에서 盛하다. 商丘와 三陰交를 가히 求할 수 있고 漏谷과 地機와 陰陵穴이다. 血海와 箕門은 衝門에서 열리고 府舍와 腹結은 大橫에서 나열되어 있다. 腹哀와 食竇는 天谿에 이어지고 胸鄉과 周榮는 大包를 따른다.

(5)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① 『鍼灸大全』183, 『楊敬齋鍼灸全書』184

【原文】

迨夫真心爲手少陰이라. 少衝出乎小指요. 少府直乎神門이라. 陰郄通里兮여 靈道非遠이요. 少海青靈兮여 極泉何深고.

[解釋]

真心에 이르러 手少陰이 된다. 少衝은 小指에서 나오고 少府는 神門에 곧게 뻗었다. 陰郄과 通里여 靈道가 멀지 않고 少海와 青靈이여 極泉이 어찌도 깊은가.

② 『凌門傳授銅人指穴』185

【原文】

手中少陰起心經이니 極泉青靈少海通이라. 靈道通里股郄往요. 神門少府少衝終이라.

[解釋]

手少陰은 心經을 일으키니 極泉과 青靈이 少海와 通한다. 靈道와 通里는 股郄으로 가고 神門과 少府는 少衝에서 마친다.

③ 『鍼灸神書』186

183)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84)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85)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86)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九穴極泉及少衝이요. 青靈少海少府尋이라. 通里陰郄卻靈道요. 心經穴法在神門이라.

[解釋]

九穴은 極泉과 少衝이고 青靈과 少海는 少府에서 찾는다. 通里와 陰郄은 靈道로 물러나고 心經의 穴法은 神門에 있다.

④ 『金針秘傳』187, 『經絡匯編』188, 『經絡考』189, 『中西匯參銅人圖說』190, 『經脈圖考』191

【原文】

手少陰九穴成이라. 極泉青靈少海行하니 自靈道通里而達이라. 過陰郄神門而迎이요. 抵於少府少衝可尋이라.

[解釋]

手少陰은 九穴로 이루어져 있다. 極泉과 青靈은 少海로 行하니 靈道와 通里로부터 도달한다. 陰郄과 神門을 지나서 맞고 少府와 少衝에 이르면 가히 찾을 수 있다.

⑤ 『針灸聚英』192, 『十四經發揮』193

【原文】

九穴手少陰이니 極泉青靈少海深이요. 靈道通里陰郄邃요. 神門少府少衝尋이라.

[解釋]

九穴이 手少陰이니 極泉과 青靈이 少海에서 깊고 靈道와 通里는 陰郄에서 깊고 神門과 少府는 少衝에

187)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88)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89)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90)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91)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92)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7.  
193)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서 찾는다.

⑥ 『靈樞經脈翼』<sup>194)</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195)</sup>

【原文】

手少陰心起極泉이니 青靈少海靈道全이라. 通里陰郄神門下요 少府少衝小指邊이라.

【解釋】

手少陰心은 極泉에서 起始하니 青靈과 少海는 靈道에서 운전하다. 通里와 陰郄은 神門의 아래에 있고 少府와 少衝은 小指의 가에 있다.

⑧ 『鍼灸大成』<sup>196)</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197)</sup>

⑦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198)</sup>

【原文】

九穴午時手少陰이니 極泉青靈少海深이라. 靈道通里陰郄遂요 神門少府少衝尋이라.

【解釋】

九穴은 午時의 手少陰이니 極泉과 青靈은 少海에서 깊다. 靈道와 通里는 陰郄에서 깊고 神門과 少府는 少衝에서 찾는다.

### (6)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① 『鍼灸大全』<sup>199)</sup>, 『楊敬齋鍼灸全書』<sup>200)</sup>

【原文】

手之太陽은 小腸之榮이라. 路從少澤이요 步前谷後谿之隆이라. 道遵腕骨이요 觀陽谷養老之崇이라. 得支正於小海이요 逐肩貞以相從이라. 值臑膈兮여 遇天宗이라. 乘秉風兮여 曲垣中이라. 肩外俞兮여 肩中俞이라. 啟天窗兮여 見天容이라. 匪由觀膠이면 曷造聽宮이리오.

【解釋】

手太陽은 小腸의 榮이니 길이 少澤을 따라서 前谷과 後谿의 隆盛한 곳을 걷는다. 길이 腕骨을 따르고 陽谷과 養老의 높은 곳을 볼 수 있다. 支正을 小海에서 얻을 수 있고 肩貞을 좇아서 서로 따른다. 臑膈를 만남이여 天宗을 만난다. 秉風을 탐탐이여 曲垣의 가운데다. 肩外의 俞여 肩中俞다. 盛한 天窗이여 天容을 본다. 觀膠를 경유하지 않으면 어찌 聽宮에 나아가리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01)</sup>

【原文】

手中太陽小腸經이니 少澤前谷後谿迎이라. 腕骨陽谷養老穴이요 支正少海肩貞靈이라. 臑俞天宗穴之正이요 秉風曲垣穴之聽이라. 肩外俞與肩中俞요 天窗天容觀窠稱이라. 聽宮過了腸經完이니 三十八穴銅人定이라.

【解釋】

手中的 太陽은 小腸經이니 少澤과 前谷은 後谿가 맞이한다. 腕骨과 陽谷은 養老의 穴이고 支正과 少海는 肩貞의 靈이다. 臑俞와 天宗은 穴의 바름이고 秉風과 曲垣은 穴이라고 들었다. 肩外俞와 肩中俞요 天窗과 天容과 觀窠를 일컫는다. 聽宮은 小腸經을 지나서 完結이니 38개의 穴로 銅人에 정해져 있다.

③ 『鍼灸神書』<sup>202)</sup>

194)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95)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4.

19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0.

19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34.

19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72.

199)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0)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1)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2)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原文】

肩俞天宗及秉風이요 曲垣肩外復肩中이라. 天窓天容上顛膠요 卻入耳邊尋聽宮이라. 支正少海肩貞走요 腕骨陽谷可養老라. 少澤前谷後谿隅니 太陽穴一十九라.

【解釋】

肩俞과 天宗과 秉風이요 曲垣과 肩外에 다시 肩中이다. 天窓과 天容은 顛膠로 올라가고 물러나서 귓가에 들어가서 聽宮을 찾는다. 支正과 少海는 肩貞으로 달려가고 腕骨과 陽谷에 가히 養老할 수 있다. 少澤과 前谷에 後谿의 모퉁이니 太陽穴은 19개다.

④ 『金針秘傳』<sup>203</sup>, 『經絡匯編』<sup>204</sup>, 『經絡考』<sup>205</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206</sup>, 『經脈圖考』<sup>207</sup>

【原文】

小腸穴十九中이라. 路從少澤이요 步前谷後谿之隆이라. 道循腕骨이요 觀陽谷養老之崇이라. 得支正於小海이요 逐肩貞以相從이라. 值臑俞兮여 遇天宗이라. 乘兼風兮여 曲垣中이라. 肩外俞兮여 肩中俞이라. 啟天窓兮여 見天容이라. 匪由顛膠면 曷造聽宮이리오.

【解釋】

小腸의 穴은 19개 중에 있다. 길이 少澤을 따라서 前谷과 後谿의 隆盛한 곳을 걷는다. 길이 腕骨을 따르고 陽谷과 養老의 높은 곳을 볼 수 있다. 支正을 小海에서 얻을 수 있고 肩貞을 좇아서 서로 따른다. 臑脛을 만남이여 天宗을 만난다. 秉風을 틈탐이여 曲垣의 가운데다. 肩外의 俞여 肩中俞다. 盛한 天窓이여 天容을 본다. 顛膠를 경유하지 않으면 어찌 聽宮에 나아가리오.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3)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4)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5)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6)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0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⑤ 『針灸聚英』<sup>208</sup>, 『十四經發揮』<sup>209</sup>

【原文】

手太陽穴一十九이니 少澤前谷後谿隅라. 腕骨陽谷可養老요 支正小海肩貞走라. 臑俞天宗及秉風이요 曲垣肩外復肩中이라. 天窓天容上顛膠요 卻入耳中循聽宮이라.

【解釋】

手太陽의 穴은 19개이니 少澤과 前谷은 後谿의 모퉁이다. 腕骨과 陽谷에 가히 養老할 수 있고 支正과 小海에 肩貞으로 달려간다. 臑俞와 天宗은 秉風에 미치고 曲垣과 肩外에 다시 肩中이다. 天窓과 天容은 顛膠로 올라가고, 물러나서 귓 속에 들어가서 聽宮을 따른다.

⑥ 『靈樞經脈翼』<sup>210</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211</sup>

【原文】

手太陽經小腸穴이니 少澤先於小指設이라. 前谷後谿腕骨間이요 陽谷須同養老列이라. 支正小海上肩貞이요 臑俞天宗秉風合이라. 曲垣肩外復肩中이요 天窓循次上天容이라. 此經穴數一十九이니 還有顛膠入聽宮이라.

【解釋】

手太陽經은 小腸의 穴이니 少澤은 먼저 小指에 배열어져 있다. 前谷과 後谿에 腕骨의 사이요 陽谷은 모름지기 養老와 함께 배열해야 한다. 支正과 小海는 肩貞으로 올라가고 臑俞와 天宗은 秉風과 합한다. 曲垣과 肩外에 다시 肩中이고 天窓은 차례를 따라 天容으로 올라간다. 此經의 穴의 數는 19이니 도로 顛膠가 聽宮으로 들어감이 있다.

208)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17-218.  
209)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10)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11)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5.

⑧ 『鍼灸大成』<sup>212)</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213)</sup>

⑦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214)</sup>

【原文】

手太陽穴一十九이니 少澤前谷後谿首라. 腕骨陽谷 養老繩이요 支正小海肩貞隅라. 臑俞天宗連秉風이요 曲垣肩外肩中走라. 天窗天容上顛膠요 聽宮耳前珠傍 取라.

【解釋】

手太陽의 穴은 19개이니 少澤과 前谷과 後谿의 머리이다. 腕骨과 陽谷은 養老와 노끈처럼 이어져있고 支正과 小海에 肩貞의 모퉁이다. 臑俞와 天宗은 秉風에 이어지고 曲垣과 肩外는 肩中으로 달려간다. 天窗과 天容은 顛膠로 올라가고 聽宮은 귀 앞의 耳珠의 옆에서 取한다.

(7)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① 『鍼灸大全』<sup>215)</sup>, 『楊敬齋鍼灸全書』<sup>216)</sup>

【原文】

足膀胱兮 太陽이라. 交背部之二行이라. 窮至陰 於通谷之口요 尋束骨於京骨之鄉이라. 申脈命僕參以前導요 昆侖辟金門於踝旁이라. 奮附陽은 飛揚之志이요 轉承山은 承筋之行이라. 至於合陽에 委中委陽이라. 浮郄殷門이 以相從이라. 承扶秩邊而胞肓이라. 入志室兮 肓門胃倉이라. 開意舍兮 振彼陽綱이라. 出魂門兮 膈關이요 乃噫嘻乎神堂이라. 膏肓兮 在四椎之左右라. 魄戶兮 隨附分而會陽이라. 下中次上之膠이요 白環中膂之房이라. 膀胱俞兮 小腸이요 大

腸俞兮 在傍이라. 三焦腎俞兮 胃俞接이요 脾膽肝膈俞兮 心俞當이라. 厥陰肺俞之募요 風門大杼之方이라. 天柱豎兮 玉枕絡却이라. 通天豁兮 見彼承光이라. 自五處曲差而下요 造攢竹晴明之場이라.

【解釋】

足膀胱이여 太陽이다. 背部의 2행(行)에서 만난다. 至陰을 通谷의 입구에서 다하고 束骨을 京骨의 곁에서 찾는다. 申脈은 僕參에게 앞으로 인도함을 命하고 昆侖은 外踝에서 金門을 辟한다. 附陽을 분발함은 飛揚의 뜻이고 承山을 옮김은 承筋의 행동이다. 合陽에 이르러서 委中과 委陽이다. 浮郄과 殷門이 서로 따른다. 承扶와 秩邊에 胞肓이다. 志室에 들어감이어 肓門과 胃倉이다. 意舍를 엮이여 저 陽綱을 떨친다. 魂門을 나감이어 膈關이요, 이에 噫嘻를 神堂에서 한다. 膏肓이여 四椎의 左右에 있다. 魄戶여 附分을 따라서 會陽한다. 下과 中과 次와 上의 膠이고 白環과 中膂의 房이다. 膀胱俞여 小腸俞이고 大腸俞여 옆에 있다. 三焦俞와 腎俞여 胃俞와 接하고 脾俞 膽俞 肝俞 膈俞여 心俞가 相當한다. 厥陰俞와 肺俞의 募이고 風門과 大杼의 方이다. 天柱가 세워짐이여 玉枕과 絡却이다. 通天이 넓음이여 저 承光을 본다. 五處와 曲差로부터 내려오고 攢竹과 晴明의 場에 나아간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17)</sup>

【原文】

手中太陽膀胱經이니 晴明攢竹曲差行이라. 五處承光通天近이요 絡却玉枕天柱逢이라. 大杼風門肺俞是요 厥陰俞與心俞通이라. 膈俞肝俞及膽俞요 脾俞胃俞三焦俞라. 腎俞氣海大腸俞요 關元俞感小腸俞라. 膀胱俞中膂內俞요 白環俞與上膠俞라. 次膠中膠與下膠요 會陽附分魄門高라. 膏肓神堂譏譏承이요 膈關魂門陽岡迎이라. 意舍胃倉肓門接이요 志室胞肓秩邊清이라. 承扶殷門浮郄去요 委陽委中合陽明이라. 承筋承山飛陽急이요 附陽金門昆侖輕이라. 僕參申脈京骨動이요 束骨通谷至陰平이라.

【解釋】

217)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1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0.  
21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36.  
21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73.  
215)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16)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手中의 太陽은 膀胱經이니 晴明과 攢竹은 曲差로 行한다. 五處와 承光은 通天과 가깝고 絡却과 玉枕은 天柱와 만난다. 大杼와 風門과 肺俞이요 厥陰俞는 心俞와 通한다. 膈俞와 肝俞 및 膽俞이고 脾俞와 胃俞와 三焦俞다. 腎俞와 氣海와 大腸俞이고 關元俞는 小腸俞와 서로 느낀다. 膀胱俞와 中膞內俞이고 白環俞와 上膠俞다. 次膠와 中膠와 下膠이고 會陽과 附分에 魄門이 높다. 膏肓과 神堂은 謚謚가 있고 膈關과 魂門은 陽岡이 맞이한다. 意舍와 胃倉은 肓門과 接하고 志室과 胞肓과 秩邊이 맞다. 承扶와 殷門과 浮郄으로 떠나고 委陽과 委中이 陽明에 合한다. 承筋과 承山과 飛陽이 急하고 附陽과 金門과 昆侖이 가법다. 僕參과 申脈과 京骨은 움직이고 束骨과 通谷과 至陰은 고르다.

③ 『鍼灸神書』<sup>218)</sup>

【原文】

足穴太陽六十二이라. 晴明攢竹曲差參이요 五處承光上通天이라. 絡却玉枕天柱畢이요 大杼風門引肺俞라. 厥陰心俞膈俞住요 膽俞肝俞脾俞通이라. 胃俞三焦腎俞中이요 大腸小腸膀胱俞라. 中膞白環兩俞輸요 自從大杼白環去라. 脊中三尺肩上膠요 次膠中復下會陽이라. 承扶殷門至浮郄이요 委陽委中縛膊內라. 挾脊附分當太陽하니 行皆第二行魄戶라. 膏兮神堂謚謚路요 膈關魂門旁陽綱이라. 胃倉肓門意舍至요 胞肓並行下秩邊이라. 藏舍周已合陽昱이요 承筋承山居其次라. 飛陽附陽至昆侖이요 僕參申脈連金門이라. 京骨束骨入通谷이요 小指外側至陰會라.

【解釋】

足穴의 太陽은 62개다. 晴明과 攢竹과 曲差가 셋이고 五處와 承光에서 通天으로 올라간다. 絡却과 玉枕과 天柱로 마치고 大杼와 風門이 肺俞로 당긴다. 厥俞와 心俞와 膈俞가 머무르고 膽俞와 肝俞가 脾俞와 通한다. 胃俞와 三焦와 腎俞의 가운데요 大腸俞와 小腸俞와 膀胱俞다. 中膞俞와 白環俞가 두俞輸이고 大杼로부터 白環俞로 떠난다. 脊中의 三尺은 肩上膠이고 次膠 중에 다시 會陽으로 내려간다. 承扶과

218)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殷門에서 浮郄으로 이르고 委陽과 委中은 脚膊의 틈내에 있다. 挾脊의 附分은 太陽에 해당하니 行(行)은 모두 제2행의 魄戶다. 膏肓이여 神堂과 謚謚의 길이고 膈關과 魂門은 陽綱의 옆이다. 胃倉과 肓門은 意舍에 이르고 胞肓은 아울러 秩邊으로 下行한다. 藏舍 것이 다 돌면 合陽과 빛난나고 承筋과 承山은 그 다음에 居한다. 飛陽과 附陽은 昆侖에 이르고 僕參과 申脈은 金門에 이어진다. 京骨과 束骨은 通谷에 들어가 小指의 外側은 至陰에서 모인다.

④ 『金針秘傳』<sup>219)</sup>, 『經絡匯編』<sup>220)</sup>, 『經絡考』<sup>221)</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222)</sup>, 『經脈圖考』<sup>223)</sup>

【原文】

足太陽은 六十三이라. 晴明攢竹은 詣曲差五處之鄉이라. 承光通天은 見絡却玉枕之行이라. 天柱高兮여 大杼抵요 風門開兮여 肺俞當이라. 厥陰心膈之俞요 肝膽脾胃之臟이라. 三焦腎兮여 大腸小腸요 膀胱俞兮여 中膞白環이라. 自從大杼至此히 去脊中寸半之旁이라. 又有上次中下四膠하니 在腰四空以相將이라. 會陽居尻尾之側하니 始了背中二行이라. 仍上肩胛而下하니 附分二椎之旁이라. 三椎魄戶요 四椎膏肓이라. 神堂噫嘻兮여 膈關이라. 魂門兮여 陽綱이요 意舍兮여 胃倉이라. 肓門志室이요 秩邊胞肓이라. 承扶浮郄與委陽이요 殷門委中而合陽이라. 承筋承山到飛揚이요 附陽昆侖到僕參이라. 申脈金門에 探京骨之場이라. 束骨通谷은 抵至陰小指之旁이라.

【解釋】

足太陽은 六十三穴이다. 晴明과 攢竹은 曲差와 五處의 고향에 이른다. 承光과 通天은 絡却과 玉枕에 行함을 본다. 天柱가 높음이며 大杼에 이르고 風門이

219)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0)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1)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2)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3)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열림이여 肺俞가 相當한다. 厥陰俞와 心俞 膈俞이고 肝俞와 膽俞와 脾俞와 胃의 臟이다. 三焦俞와 腎俞여 大腸俞와 小腸俞이고 膀胱俞여 中膞俞와 白環俞이다. 大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脊中에서부터 一寸半이 떨어진 옆이다. 또한 上 次 中 下의 네 개의 膠가 있으니 허리의 4개의 구멍이 서로 맞는다. 會陽은 尻尾의 옆에 居하니 背中の 二行(二行)을 시작한다. 이에 肩胛에 올라가서 내려오니 附分은 二椎의 옆이다. 三椎는 魄戶이고 四椎는 膏肓이다. 神堂과 噫嘻이여 鬲關이다. 魂門이여 陽綱이고 意舍여 胃倉이다. 肓門과 志室이고 秩邊과 胞肓이다. 承扶과 浮郄과 委陽이고 殷門과 委中에 合陽이다. 承筋과 承山은 飛揚에 이르고 附陽과 昆侖은 僕參에 이른다. 申脈과 金門에 京骨의 마당에서 찾는다. 束骨과 通谷은 至陰의 足小指의 옆에 이른다.

⑤ 『針灸聚英』<sup>224)</sup>, 『十四經發揮』<sup>225)</sup>

【原文】

足太陽六十三이니 精明攢竹曲差參라. 五處承光上通天이요 絡却玉枕天柱巔이라. 大杼風門引肺俞요 厥陰心俞兩俞注라. 肝俞膽俞脾俞合이요 胃俞三焦腎俞中이라. 大腸小腸膀胱俞요 中膞白環兩俞輸라. 自從大杼至白環히 相去脊中三寸間이라. 上膠次膠中復下요 會陽承扶殷門亞라. 浮郄委陽委中臑요 膊內夾脊附分當이라. 太陽行背第三行이니 魄戶膏肓與神堂이라. 噫嘻鬲關魂門旁이요 陽綱意舍仍胃倉이라. 肓門志室胞之肓이요 二十椎下秩邊藏이라. 合關以下合陽是요 承筋承山居其次라. 飛揚附陽泊昆侖이요 僕參申脈連金門이라. 京骨束骨又通谷이요 小指外側至陰續이라.

【解釋】

足太陽은 63개의 穴이니 精明과 攢竹과 曲差가 참여한다. 五處와 承光은 通天으로 올라가고 絡却과 玉枕에 天柱가 높다. 大杼와 風門은 肺俞를 당기고 厥陰과 心俞는 兩俞에 注入한다. 肝俞와 膽俞는 脾俞와 合하고 胃俞와 三焦에 腎俞의 가운데다. 大腸과 小腸

과 膀胱俞이고 中膞과 白環은 두 俞輸이다. 大杼로부터 白環俞에 이르기까지 서로 脊中에서 三寸 사이로 떨어져있다. 上膠와 次膠와 中膠에 다시 下膠이고 會陽과 承扶와 殷門이 다음이다. 浮郄과 委陽과 委中の 틈이요 膊內에 脊을 끼니 附分이 해당한다. 太陽이 등으로 행하는 三行이니 魄戶와 膏肓과 神堂이다. 噫嘻와 鬲關에 魂門의 옆이고 陽綱과 意舍에 이에 胃倉이다. 肓門과 志室과 胞肓이고 二十椎의 아래에 秩邊이 감추어져있다. 關과 합해진 이하는 合陽이고 承筋과 承山은 그 다음에 居한다. 飛揚과 附陽은 昆侖에 머무르고 僕參과 申脈은 金門에 이어진다. 京骨과 束骨에 또한 通谷이요 小指의 外側에서 至陰으로 이어진다.

⑥ 『靈樞經脈翼』<sup>226)</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227)</sup>

【原文】

足太陽經六十三이니 精明攢竹曲差參이라. 五處承光接通天이요 絡却玉枕天柱邊이라. 大杼風門引肺俞요 厥陰心膈肝膽居라. 脾胃三焦腎俞次요 大腸小腸膀胱如라. 中膞白環皆二行이니 去脊中間二寸許라. 上膠次膠中後下요 會陽須下尻旁取라. 還有附分在三行이니 二椎三寸半相當이라. 魄戶膏肓與神堂이요 諶諶鬲關魂門旁이라. 陽綱意舍及胃倉이요 肓門志室連胞肓이라. 秩邊承扶殷門穴이요 浮郄相鄰是委陽이라. 委中再下合陽去요 承筋承山相次長이라. 飛揚附陽達昆侖이요 僕參申脈過金門이요 京骨束骨近通谷이요 小趾外側尋至陰이라.

【解釋】

足太陽經은 63개니 精明과 攢竹과 曲差가 참여한다. 五處와 承光이 通天에 接하고 絡却과 玉枕에 天柱의 곁이다. 大杼와 風門은 肺俞를 당기고 厥陰과 心俞와 膈俞와 肝俞와 膽俞가 居한다. 脾胃와 胃俞와

22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8.

225)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6)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27)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7.

三焦俞와 腎俞가 차례대로 있고 大腸俞와 小腸俞와 膀胱俞가 있다. 中膂俞와 白環俞가 모두 이항(二行)이니 脊中間에서 二寸쯤 떨어져 있다. 上膠와 次膠와 中膠의 뒤가 下膠이고 會陽은 모름지기 아래의 髀骨나 뼈 옆에서 취한다. 또한 附分가 삼항(三行)에 있으니 二椎의 三寸半에 相當한다. 魄戶와 膏肓과 神堂이고 噫諳과 膈關과 魂門의 옆이다. 陽綱과 意舍는 胃倉에 미치고 肓門과 志室은 胞肓에 이어진다. 秩邊과 承扶에 殷門의 穴이고 浮郄과 서로 이웃하는 것은 委陽이다. 委中에서 다시 合陽으로 내려가고 承筋과 承山은 서로 차례대로 길게 간다. 飛揚과 附陽은 昆侖에 도달하고 僕參과 申脈은 金門을 지나가고 京骨과 束骨은 通谷을 지나가고 小趾의 外側에서 至陰을 찾는다.

⑧ 『鍼灸大成』<sup>228)</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229)</sup>

⑦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230)</sup>

【原文】

足太陽穴六十七이라. 精明目內紅肉藏이요 攢竹眉衝與曲差라. 五處上寸半承光이요 通天絡却玉枕昂이라. 天柱後際大筋外요 大杼背部第二行이라. 風門肺俞厥陰四요 心俞督俞膈俞強이라. 肝膽脾胃俱挨次요 三焦腎氣海大腸이라. 關元小腸到膀胱이요 中膂白環仔細量이라. 自從大杼至白環히 各各節外寸半長이라. 上膠次膠中復下니 一空二空腰髀當이라. 會陽陰尾骨外取이요 附分挾脊第三行이라. 魄戶膏肓與神堂이요 噫諳膈關魂門九이라. 陽綱意舍仍胃倉이요 肓門志室胞之肓이라. 二十柱下秩邊場이요 承扶臀橫紋中央이라. 殷門浮郄到委陽이요 委中合陽承筋足이라. 承山飛陽踝附陽이요 金門崑崙下僕參이라. 申脈京骨束骨忙이

요 通谷至陰小指傍이라.

【解釋】

足太陽穴은 67개다. 精明은 目內的 紅肉에 감추어져 있고 攢竹과 眉衝과 曲差이다. 五處의 위 一寸半은 承光이고 通天과 絡却에 玉枕에 오른다. 天柱는 後髮際의 大筋의 바깥이요 大杼는 背部의 第二行이다. 風門과 肺俞와 厥陰은 四椎이고 心俞과 督俞와 膈俞가 남는다. 肝俞와 膽俞와 脾胃와 胃俞가 모두 차례대로 밀려나가고 三焦俞와 腎俞와 氣海와 大腸俞다. 關元俞와 小腸俞에 膀胱俞에 이르고 中膂俞와 白環俞는 자세히 헤아린다. 大杼로부터 白環에 이르기까지 각각 척추 마디 外의 一寸半의 길이다. 上膠와 次膠와 中膠에 다시 下膠니 一空과 二空이 腰髀에 해당한다. 會陽은 陰尾骨의 밖에서 取하고 附分은 脊을 낀 제3행에 있다. 魄戶와 膏肓과 神堂이고 噫諳와 膈關과 魂門이 九椎에 있다. 陽綱과 意舍과 이에 胃倉이고 肓門과 志室과 胞肓이다. 二十柱의 아래는 秩邊의 마당이고 承扶는 臀의 橫紋 中央이다. 殷門과 浮郄은 委陽에 이르고 委中과 合陽과 承筋은 다리에 있다. 承山과 飛陽에 外踝의 附陽이고 金門과 崑崙은 僕參으로 내려간다. 申脈과 京骨과 束骨로 바쁘고 通谷과 至陰은 小指의 옆이다.

(8)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① 『鍼灸大全』<sup>231)</sup>, 『楊敬齋鍼灸全書』<sup>232)</sup>

【原文】

足少陰兮 腎屬이니 湧泉流於然谷이라. 太谿大鍾兮 水泉緣이라. 照海復溜兮 交信續이라. 從築賓兮 上陰谷이요 掩橫骨兮 大赫麓이라. 氣穴四滿兮 中注이요 肓俞上通兮 商曲이라. 守石關兮 陰都寧이라. 閉通谷兮 幽門肅이라. 步廊神封而靈墟存이요 神藏或中而俞府足이라.

【解釋】

足少陰이여 腎이 屬하니 湧泉은 然谷에 흐른다.

22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0.  
22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40.  
23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75.

231)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2)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太谿와 大鍾이여 水泉이 인연한다. 照海와 復溜여 交信이 이어진다. 築賓을 따름이여 陰谷에 오르고 橫骨을 가림이여 大赫의 기습이다. 氣穴과 四滿이여 中注이고 盲俞이 위로 通합이여 商曲이라. 石關을 지킴이여 陰都가 편안하다. 通谷을 단음이여 幽門이 엄숙하다. 步廊과 神封으로 靈墟가 보존되고 神藏과 或中으로 俞府가 넉넉하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33)</sup>

【原文】

足中少陰腎中起하니 湧泉然谷太谿理라. 大鍾照海水泉流요. 復溜交信築賓喜라. 陰谷橫骨大赫光이요. 氣穴四滿中注長이라. 盲俞商曲石關遠이요. 陰都通谷幽門涼이라. 步廊神封靈墟堂이요. 神藏或中俞府鄉이라.

【解釋】

足中の 少陰은 腎中에서 起始하니 湧泉과 然谷과 太谿의 條理다. 大鍾과 照海와 水泉이 흐르고 復溜과 交信과 築賓이 기뻐한다. 陰谷과 橫骨과 大赫이 빛나고 氣穴과 四滿과 中注가 길다. 盲俞와 商曲과 石關이 멀고 陰都和 通谷과 幽門이 서늘하다. 步廊과 神封과 靈墟의 堂이고 神藏과 或中과 俞府의 고향이다.

③ 『鍼灸神書』<sup>234)</sup>

【原文】

足穴少陰二十七이니 湧泉然骨太溪益이라. 大鍾照海通水泉이요. 復溜交信築賓連이라. 陰谷橫骨大赫亦이요. 氣穴四滿中注立라. 盲俞商曲石關踰이요. 陰都通谷幽門僻이라. 步廊神封接靈墟요. 神藏或中俞府推라.

【解釋】

足穴의 少陰은 27개이니 湧泉과 然骨과 太溪가 더해진다. 大鍾과 照海는 水泉과 통하고 復溜와 交信은 築賓과 이어진다. 陰谷과 橫骨과 大赫이 또 있고 氣穴과 四滿과 中注가 세워져 있다. 盲俞와 商曲과 石關은 옹크려 取하고 陰都和 通谷과 幽門은 후미져 있다. 步廊과 神封은 靈墟에 接하고 神藏과 或中과 俞

府를 미루어 取한다.

④ 『金針秘傳』<sup>235)</sup>, 『經絡匯編』<sup>236)</sup>, 『經絡考』<sup>237)</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238)</sup>, 『經脈圖考』<sup>239)</sup>

【原文】

足少陰兮廿七이니 湧泉流於然谷이라. 太谿大鍾兮水泉綠이요. 照海復溜兮交信續이라. 從築賓兮上陰谷이요. 撩橫骨兮大赫麓이라. 氣穴四滿兮中注이요. 盲俞上通於商曲이라. 守石關兮陰都寧이요. 閉通谷兮幽門肅이라. 步廊神封而靈墟存이요. 神藏或中而脞府足이라.

【解釋】

足少陰이여 27穴이니 湧泉은 然谷으로 흐른다. 太谿와 大鍾이여 水泉과 인연하고 照海와 復溜여 交信과 이어진다. 築賓으로부터 陰谷으로 올라가고 橫骨을 다스림이여 大赫의 기습이다. 氣穴과 四滿이여 中注이고 盲俞는 위로 商曲과 通한다. 石關을 지킴이여 陰都가 편안하고 通谷을 단음이여 幽門이 엄숙하다. 步廊과 神封으로 靈墟가 보존되고 神藏과 或中으로 脞府가 넉넉하다.

⑤ 『針灸聚英』<sup>240)</sup>, 『十四經發揮』<sup>241)</sup>

【原文】

足少陰穴二十七이니 湧泉然谷太谿溢이라. 大鍾照海通水泉이요. 復溜交信築賓連이라. 陰谷橫骨大赫聯이요. 氣穴四滿中注立이라. 盲俞商曲石關踰이요. 陰都通谷幽門僻이라. 步廊神封靈墟位요. 神臟或中俞府既라.

235)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6)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7)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8)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9)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40)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8.  
241)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3)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34)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解釋]

足少陰의 穴은 27개이니 湧泉과 然谷과 太谿가 넘친다. 太鍾과 照海는 水泉과 通하고 復溜와 交信은 築賓과 이어진다. 陰谷과 橫骨은 大赫과 연결되고 氣穴과 四滿은 中注에 서 있다. 肓俞와 商曲과 石關은 구부러 取하고 陰都和 通谷과 幽門이 후미지다. 步廊과 神封과 靈墟가 자리하고 神臟과 彘中과 俞府가 마쳤다.

⑥ 『靈樞經脈翼』<sup>242)</sup>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243)</sup>

【原文】

足少陰腎二十七이니 湧泉然谷照海出이라. 太谿水泉連太鍾이요 復溜交信築賓立이라. 陰谷橫骨趨大赫이요 氣穴四滿中注得이라. 肓俞商曲石關蹲이요 陰都通谷幽門值라. 步廊神封出靈墟이요 神臟彘中俞府畢이라.

[解釋]

足少陰腎二十七이니 湧泉然谷照海出이라. 太谿水泉連太鍾이요 復溜交信築賓立이라. 陰谷橫骨趨大赫이요 氣穴四滿中注得이라. 肓俞商曲石關蹲이요 陰都通谷幽門值라. 步廊神封出靈墟이요 神臟彘中俞府畢이라.

⑧ 『鍼灸大成』<sup>244)</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245)</sup>

①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246)</sup>

242)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43)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83.  
24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0.  
24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55.

【原文】

足少陰穴二十七이니 湧泉然谷太谿溢이라. 太鍾水泉照海深이요 復溜交信築濱實이라. 陰谷膝內附骨後이니 已上從足走至膝이라. 橫骨大赫聯氣穴이요 四滿中注肓俞臍라. 商曲石關陰都密이요 通谷幽門寸半開이니 折量腹上分十一이라. 步郎神封膺靈虛요 神臟或中俞府畢이라.

[解釋]

足少陰의 穴은 27개이니 湧泉과 然谷과 太谿가 넘친다. 太鍾과 水泉과 照海가 깊고 復溜와 交信과 築濱이 實하다. 陰谷은 膝內의 附骨의 뒤에 있으니 이상은 足으로부터 달려서 膝에 이른다. 橫骨과 大赫은 氣穴에 연결되고 四滿과 中注와 肓俞는 臍에 있다. 商曲과 石關과 陰都가 뻐뻐하게 있고 通谷과 幽門은 一寸半으로 벌어져있으니 折量하면 腹의 위로 十一로 나눈다. 步郎과 神封과 膺靈이 虛하고 神臟과 彘中과 俞府가 끝난다.

(9)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① 『鍼灸大全』<sup>247)</sup>, 『楊敬齋鍼灸全書』<sup>248)</sup>

【原文】

手厥陰心包之絡은 中衝發中指之奇라. 自勞宮大陵而往이요 逐內關間使而馳라. 叩郛門於曲澤이요 酌天泉於天池라.

[解釋]

手厥陰의 心包絡은 中衝이 中指的 끝에서 始發한다. 勞宮과 大陵으로부터 가고 內關과 間使를 좇아서 달린다. 郛門을 曲澤에서 두드리고 天泉을 天池에서 參酌한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49)</sup>

【原文】

24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84.  
247)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48)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49)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手中厥陰心胞經이니 天池天泉曲澤停이라. 郗門間使內關往이요 太陵勞宮中衝平이라.

[解釋]

手中的 厥陰은 心胞經이니 天池와 天泉과 曲澤에서 멈춘다. 郗門과 間使와 內關으로 가고 太陵과 勞宮과 中衝에서 고르다.

③ 『鍼灸神書』<sup>250)</sup>

【原文】

九穴厥陰天池會요 天泉曲澤都無異라. 郗門間使內關停이요 大陵勞宮中衝備라.

[解釋]

九穴이 厥陰이니 天池에서 모이고 天泉과 曲澤이 모두 다름이 없다. 郗門과 間使와 內關이 머무르고 大陵과 勞宮과 中衝이 갖추어져 있다.

④ 『金針秘傳』<sup>251)</sup>, 『經絡匯編』<sup>252)</sup>, 『經絡考』<sup>253)</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254)</sup>, 『經脈圖考』<sup>255)</sup>

【原文】

手厥陰心包之脈은 計有九穴而終이라. 自天池天泉爲始요 逐曲澤郗門而通이라. 間使行於內關이요 大陵近乎勞宮이라. 既由掌握이요 抵於中衝이라.

[解釋]

手厥陰 心包的 脈은 계산하면 九穴이 있어서 마친다. 天池와 天泉으로부터 시작하고 曲澤과 郗門을 따라서 通한다. 間使는 內關으로 行하고 大陵은 勞宮에 가깝다. 이미 손아귀를 경유하고 中衝에 이른다.

⑤ 『針灸聚英』<sup>256)</sup>, 『十四經發揮』<sup>257)</sup>

250)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1)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2)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3)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4)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5)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九穴手厥陰이니 天池天泉曲澤深이라. 郗門間使內關對요 大陵勞宮中衝備라.

[解釋]

九穴이 手厥陰이니 天池와 天泉과 曲澤이 깊다. 郗門과 間使와 內關이 對하고 大陵과 勞宮과 中衝이 갖추어져 있다.

⑥ 『靈樞經脈翼』<sup>258)</sup>

【原文】

九穴心包手厥陰이니 天池天泉曲澤深이라. 郗門間使內關去요 大陵勞宮中衝臨이라.

[解釋]

九穴이 心包的 手厥陰이니 天池와 天泉과 曲澤이 깊다. 郗門과 間使와 內關으로 떠나고 大陵과 勞宮과 中衝이 다다른다.

⑦ 『刺灸心法要訣』<sup>259)</sup>

【原文】

心包九穴天池近이요 天泉曲澤郗門認이라. 間使內關逾大陵이요 勞宮中衝中指盡이라.

[解釋]

心包는 九穴이니 天池가 가깝고 天泉과 曲澤과 郗門을 알 수 있다. 間使와 內關에서 大陵을 뛰어넘고 勞宮과 中衝이니 中指에서 다한다.

⑧ 『鍼灸大成』<sup>260)</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261)</sup>

256)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8.

257)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8)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59)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80.

260)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0.

26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62.

⑦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262)</sup>

【原文】

九穴心胞手厥陰이니 天池天泉曲澤深이라. 郄門間使內關對요 太陵勞宮中衝使이라.

【解釋】

九穴이 心胞의 手厥陰이니 天池와 天泉과 曲澤이 깊다. 郄門과 間使와 內關이 對하고 太陵과 勞宮과 中衝이 침범한다.

(10)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① 『鍼灸大全』<sup>263)</sup>, 『楊敬齋鍼灸全書』<sup>264)</sup>

【原文】

手少陽三焦之脈이니 在小指次指之端이라. 關衝間乎液門이요 中渚陽池外關이라. 支溝會宗이요 三陽絡이라. 四瀆天井이요 清冷淵이라. 消灤臑會이요 肩膠相連이라. 天膠處天隔之下이요 翳風讓瘦脈居先이라. 顛息定而角孫近耳이요 絲竹空而和膠倒懸이라. 耳門既辟면 夏蚋聞焉이라.

【解釋】

手少陽의 三焦脈이니 小指次指의 말단이다. 關衝은 液門에서 듣고 中渚와 陽池와 外關이다. 支溝와 會宗이고 三陽絡이다. 四瀆과 天井이고 清冷淵이다. 消灤과 臑會이고 肩膠이 서로 이어져 있다. 天膠는 天隔의 아래에 處하고 翳風은 瘦脈에게 양보하여 먼저 居한다. 顛息이 定해짐에 角孫이 귀에 가깝고 絲竹空에서 和膠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耳門이 이미 막히면 여름의 파리 소리가 들린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65)</sup>

【原文】

26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88.  
263)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64)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65)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手中少陽是三焦이니 關衝液門中渚朝라. 陽池外關支溝引이요 會宗三陽絡四瀆이라. 天井清冷淵消灤이요 臑會肩膠天膠各이라. 天隔翳風瘦脈連이요 顛顛攢竹空自度라. 角孫禾窠耳門中이니 四十六穴都無錯이라.

【解釋】

手中的 少陽은 三焦이니 關衝과 液門과 中渚가 朝會한다. 陽池와 外關은 支溝를 당기고 會宗과 三陽絡과 四瀆이다. 天井과 清冷淵과 消灤이고 臑會와 肩膠와 天膠가 각각이다. 天隔와 翳風은 瘦脈과 이어져 있고 顛顛과 攢竹은 구멍을 스스로 헤아린다. 角孫과 禾窠과 耳門의 가운데이니 四十六穴이 모두 섞임이 없다.

③ 『鍼灸神書』<sup>266)</sup>

【原文】

二十三穴手少陽이라. 關衝液門中渚旁이요 陽池外關支溝會라. 會宗三陽四瀆配요 天井穴合清冷淵이라. 消灤臑會肩膠偏이요 天膠天隔同翳風이라. 瘦脈顛息角孫通이요 耳門禾膠絲竹空이라.

【解釋】

二十三穴이 手少陽이다. 關衝과 液門과 中渚의 옆이고 陽池와 外關과 支溝가 모인다. 會宗과 三陽과 四瀆이 配合하고 天井穴은 清冷淵과 함한다. 消灤과 臑會와 肩膠에 치우치고 天膠와 天隔은 翳風과 같다. 瘦脈과 顛息은 角孫과 通하고 耳門과 禾膠와 絲竹空이다.

④ 『金針秘傳』<sup>267)</sup>, 『經絡匯編』<sup>268)</sup>, 『經絡考』<sup>269)</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270)</sup>, 『經脈圖考』<sup>271)</sup>

266)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67)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68)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69)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70)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71)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原文】

手少陽三焦之脈은 二十三穴之間이라. 關衝液門中渚요. 陽池外關通連이라. 支溝會宗三陽絡이요. 四瀆天井清冷淵이라. 消灤臑會이요. 肩髃相聯이라. 天膠處天牖之下요. 翳風讓瘦脈居先이라. 顛息定而角孫近耳요. 絲竹空而禾膠接焉이라. 耳門已畢에 經穴已全이라.

【解釋】

手少陽의 三焦脈은 23穴의 사이다. 關衝과 液門과 中渚이고 陽池와 外關이 通하고 이어져 있다. 支溝와 會宗과 三陽絡이고 四瀆과 天井과 清冷淵이다. 消灤과 臑會이고 肩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天膠는 天牖의 아래에 處하고 翳風은 瘦脈에 양보하여 먼저 居한다. 顛息이 定해짐에 角孫이 귀에 가깝고 絲竹空은 禾膠와 接해 있다. 耳門이 이미 끝남에 經穴이 이미 완전하다.

⑤ 『針灸聚英』<sup>272)</sup>, 『十四經發揮』<sup>273)</sup>

③과 동일함.

⑥ 『靈樞經脈翼』<sup>274)</sup>

②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sup>275)</sup>

【原文】

手少三焦所從經은 二十二穴起關衝이라. 液門中渚陽池曆이요. 外關支溝會宗逢이라. 三陽絡入四瀆內요. 注於天井清冷中이라. 消灤臑會肩髃穴이요. 天膠天牖經翳風이라. 瘦脈顛息角孫耳門이요. 和膠上行絲竹空이라.

【解釋】

手少陽 三焦가 좃는 經은 二十二穴이니 關衝에서 起始한다. 液門과 中渚는 陽池를 지나고 外關과 支溝

는 會宗과 만난다. 三陽絡은 四瀆의 안으로 들어가고 天井와 清冷淵 속에 注入한다. 消灤과 臑會와 肩髃穴이고 天膠와 天牖는 翳風을 경유한다. 瘦脈과 顛息과 角孫과 耳門이고 和膠는 絲竹空으로 上行한다.

⑧ 『鍼灸大成』<sup>276)</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277)</sup>

【原文】

手少陽三焦所從은 二十三穴起關衝이라. 向液門中渚陽池이요. 曆外關支溝會宗이라. 三陽絡入於四瀆이요. 注天井清冷淵中이라. 消灤臑會肩髃同이요. 天膠天牖經翳風이라. 瘦脈顛息角孫入이요. 耳門和膠絲竹空이라.

【解釋】

手少陽 三焦가 좃는 바는 23穴이니 關衝에서 起始한다. 液門과 中渚와 陽池로 向하고 外關과 支溝과 會宗을 지난다. 三陽絡入於四瀆이요. 注天井清冷淵中이라. 消灤臑會肩髃同이요. 天膠天牖經翳風이라. 瘦脈顛息角孫入이요. 耳門和膠絲竹空이라.

⑩ 『醫學入門』<sup>278)</sup>

【原文】

二十三穴手小陽이라. 關衝液門中渚傍이요. 陽池外關支溝正이라. 會宗三陽四瀆長이요. 天井清冷淵消灤이라. 臑會肩髃天膠堂이요. 天牖翳風瘦脈靑이라. 顛息角孫絲竹張이요. 禾膠耳門聽有常이라.

【解釋】

23穴이 手小陽이다. 關衝과 液門과 中渚의 옆이고 陽池와 外關과 支溝가 바르다. 會宗과 三陽과 四瀆이 길고 天井과 清冷淵과 消灤이다. 臑會와 肩髃와 天膠의 마당이고 天牖와 翳風과 瘦脈이 푸르다. 顛息과 角孫과 絲竹이 베풀어져 있고 禾膠와 耳門은 들음이 정상이 있다.

272)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8.

273)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74)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75)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85.

27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50-51.

27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65.

27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89.

(11)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① 『鍼灸大全』<sup>279)</sup>, 『楊敬齋鍼灸全書』<sup>280)</sup>

【原文】

足少陽兮 膽經이니 穴乃出乎竅陰이라. 溯俠溪兮 地五會요. 過臨泣兮 丘墟平이라. 懸鍾兮 陽輔光明이요. 外丘兮 陽交陽陵이라. 西出陽關兮 抵中瀆風市之境이요. 環跳居膠兮 循維道, 五樞之宮이라. 考夫帶脈이요. 詢至京門이라. 日月麗兮 輒筋榮이요. 淵腋泄兮 肩井盈이라. 臨風池兮 腦空鳴이요. 窮竅陰兮 完骨明이라. 舉浮白於天衝이요. 接承靈於正營이라. 目窓兮 臨泣이요. 陽白兮 本神이라. 率谷回兮 曲鬢出이요. 懸釐降兮 懸顛承이라. 頷厭兮 佳客主人이요. 聽會兮 童子窮迎이라.

【解釋】

足少陽이 膽經이니 穴이 이에 竅陰에서 나온다. 俠溪로 거슬러 올라감이여 地五會이고 臨泣을 지나 감이여 丘墟가 고르다. 懸鍾이여 陽輔와 光明이요 外丘여 陽交와 陽陵泉이다. 서쪽에 陽關으로 나오이여 中瀆과 風市의 경계에 이르고 環跳와 居膠여 維道와 五樞의 宮을 따른다. 帶脈을 詳考하고 물어서 京門에 이른다. 日月이 빛남이여 輒筋이 영화롭고 淵腋이 새어남이여 肩井이 가득하다. 風池에 다다름이여 腦空이 울리고 竅陰이 다함이여 完骨이 밝다. 浮白을 天衝에서 들고 承靈을 正營에서 接한다. 目窓이여 臨泣이고 陽白이여 本神이다. 率谷에서 되돌아오이여 曲鬢에서 나오고 懸釐에서 내려오이여 懸顛에서 이어진다. 頷厭이여 客主人을 머무르게 하고 聽會여 童子窮가 맞이한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81)</sup>

【原文】

足中少陽膽經最라. 童子膠兮 多聽會이요. 客主人兮 頷厭端이라. 懸顛懸釐曲鬢嚙이요. 率谷天衝浮白伴이

라. 竅陰腕骨本神歡이요. 陽白臨泣目窓管이라. 正營承靈腦空瞞이요. 風池肩井輒筋間이라. 日月京門帶脈安이요. 五樞維道兼居窳라. 環跳風市中瀆閑이요. 陽關陽陵泉陽交라. 外丘光明陽附討요. 懸鍾丘墟地五會요. 俠溪竅陰膽經了라.

【解釋】

足中の 少陽은 膽經이 가장 적합하다. 童子膠여 聽會가 많고 客主人이여 頷厭의 末端이다. 懸顛와 懸釐와 曲鬢라고 부르고 率谷과 天衝과 浮白이 짝한다. 竅陰과 腕骨과 本神이 기뻐하고 陽白과 臨泣과 目窓이 管掌한다. 正營과 承靈과 腦空이 단혀 있고 風池과 肩井과 輒筋가 사이에 있다. 日月과 京門과 帶脈이 편안하고 五樞와 維道는 居窳를 兼한다. 環跳와 風市와 中瀆이 한가하고 陽關과 陽陵泉과 陽交라. 外丘와 光明과 陽附를 討論하고 懸鍾과 丘墟와 地五會요. 俠溪와 竅陰에 膽經이 끝난다.

③ 『鍼灸神書』<sup>282)</sup>

【原文】

少陽足重瞳子膠하니 四十三穴行迢迢이라. 聽會客主頷厭集이요. 懸顛懸釐曲鬢翹라. 率谷天衝浮白次이요. 竅陰完骨本神僚라. 陽白臨泣開目窓이요. 正營承靈及腦條라. 風池肩井淵液이요. 輒筋日月京門好라. 帶脈五樞維道續이요. 居膠環跳下中瀆이라. 陽關陽陵復陽交요. 外丘光明陽輔高이니 膽經血穴通如此라.

【解釋】

足少陽은 瞳子膠에 거듭하니 43穴이 멀리 멀리 행한다. 聽會와 客主와 頷厭이 모여 있고 懸顛와 懸釐와 曲鬢이 꼬리가 된다. 率谷과 天衝과 浮白이 차례대로 있고 竅陰과 完骨과 本神이 동료이다. 陽白과 臨泣은 目窓을 열고 正營과 承靈은 腦條에 미친다. 風池와 肩井과 淵液이 적시고 輒筋과 日月과 京門이 좋다. 帶脈과 五樞와 維道가 이어지고 居膠와 環跳는 中瀆으로 내려간다. 陽關과 陽陵泉에 다시 陽交이고 外丘와 光明과 陽輔가 높으니 膽經의 血과 穴이 通함이 이와 같다.

282)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79)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0)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1)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④ 『金針秘傳』283), 『經絡匯編』284), 『經絡考』285), 『中西匯參銅人圖說』286), 『經脈圖考』287)

【原文】

足少陽兮여 四十三이니 瞳子膠近聽會間이라. 客主人在頷厭集이요. 懸顛懸釐曲鬢翹라. 率谷天衝浮白次요. 竅陰完骨本神企라. 陽白臨泣開目窓이요. 正營承靈及腦空이라. 風池肩井淵液長이요. 輒筋日月京門當이라. 帶脈五樞維道續이요. 居膠環跳下中瀆이라. 陽關陽陵復陽交요. 外丘光明陽輔高라. 懸鍾丘墟足臨泣이요. 地五俠谿竅陰畢이라.

【解釋】

足少陽이여 43穴이니 瞳子膠가 聽會의 사이에 가깝다. 客主人은 頷厭이 모인 곳에 있고 懸顛와 懸釐는 曲鬢의 앞이다. 率谷과 天衝에 浮白을 볼 수 있고 竅陰과 完骨은 本神과 이어져 있다. 陽白과 臨泣은 目窓과 가깝고 正營과 承靈과 腦空이다. 風池와 肩井이여 淵液이고 輒筋과 日月은 京門과 이어져 있다. 帶脈과 五樞으로 내려가고 維道와 居膠가 서로 근원을 따른다. 環跳와 風市는 中瀆에 이르고 陽關의 아래는 陽陵泉이다. 陽交와 外丘와 光明穴이고 陽輔와 懸鍾穴을 가히 볼 수 있다. 丘墟와 臨泣과 地五會이고 俠谿와 竅陰이니 膽經이 온전하다.

⑤ 『針灸聚英』288), 『十四經發揮』289)

【原文】

少陽足經童子膠이니 四十三穴行迢迢라. 聽會客主

頷厭集이요. 懸顛懸釐曲鬢翹라. 率谷天衝浮白次요. 竅陰完骨本神企라. 陽白臨泣開目窓이요. 正營承靈及腦空이라. 風池肩井淵液長이요. 輒筋日月京門當이라. 帶脈五樞維道續이요. 居膠環跳下中瀆이라. 陽關陽陵復陽交요. 外丘光明陽輔高라. 懸鍾丘墟足臨泣이요. 地五俠谿竅陰畢이라.

【解釋】

足少陽 膽經은 童子膠이니 43穴로서 멀리 行한다. 聽會와 客主와 頷厭이 모여 있고 懸顛와 懸釐와 曲鬢의 꼬리이다. 率谷과 天衝과 浮白이 차례대로 있고 竅陰과 完骨과 本神이 바란다. 陽白과 臨泣이 目窓을 열고 正營과 承靈이 腦空에 미친다. 風池와 肩井과 淵液이 길고 輒筋과 日月과 京門이 相當한다. 帶脈과 五樞와 維道가 이어지고 居膠와 環跳가 中瀆으로 내려간다. 陽關과 陽陵泉에 다시 陽交이고 外丘와 光明과 陽輔가 높다. 懸鍾과 丘墟와 足臨泣이고 地五會와 俠谿와 竅陰으로 끝난다.

⑥ 『靈樞經脈翼』290)

⑤와 동일함.

⑦ 『刺灸心法要訣』291)

⑤와 동일함.

⑧ 『鍼灸大成』292)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293)

【原文】

足少陽經童子膠이니 四十三穴行迢迢라. 聽會客主頷厭集이요. 懸顛懸釐曲鬢翹라. 率谷天衝浮白次요. 竅陰完骨本神至라. 陽白臨泣開目窓이요. 正營承靈腦空是라. 風池肩井淵液長이요. 輒筋日月京門當이라. 帶脈

283)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4)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5)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6)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8)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8.  
289)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90)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91)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87.  
29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1.  
29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69.

五樞維道續이요 居髌環跳下中瀆이라. 陽關陽陵復陽  
 交요 外丘光明陽輔高라. 懸鍾丘墟足臨泣이요 地五俠  
 溪竅陰畢이라.

【解釋】

足少陽 膽經은 瞳子膠이니 43穴이 멀리 멀리 행한  
 다. 聽會와 客主人과 頷厭이 모여 있고 懸顛와 懸釐  
 와 曲鬢의 꼬리이다. 率谷과 天衝과 浮白이 차례대로  
 있고 竅陰과 完骨과 本神이 이른다. 陽白과 臨泣에  
 目窓을 열고 正營과 承靈과 腦空이 이것이다. 風池와  
 肩井과 淵腋이 길고 輒筋과 日月과 京門의 고향이다.  
 帶脈과 五樞와 維道가 이어지고 居髌와 環跳가 中瀆  
 으로 내려간다. 陽關과 陽陵泉에 다시 陽交이고 外丘  
 와 光明과 陽輔가 높다. 懸鍾과 丘墟와 足臨泣이고  
 地五會와 俠溪와 竅陰으로 끝난다.

⑩ 『醫學入門』<sup>294)</sup>

【原文】

少陽之經瞳子膠이니 四十三穴行迢迢라. 聽會上關  
 頷厭集이요 懸顛懸釐曲鬢翹라. 率谷本神及陽白이요  
 臨泣目窓正營招라. 承靈天衝浮白次요 完骨竅陰腦空  
 搖라. 風池肩井淵腋部요 輒筋日月京門標라. 帶脈五樞  
 維道續이요 居髌環跳風市邀라. 下瀆陽關陽陵穴이라.  
 陽交外丘光明宵요 陽輔懸鍾丘墟外라. 足臨泣地五俠  
 谿이니 第四指端竅陰畢이라.

【解釋】

足少陽經은 瞳子膠이니 43穴이니 멀리 멀리 행한  
 다. 聽會와 上關과 頷厭이 모여 있고 懸顛와 懸釐와  
 曲鬢의 꼬리이다. 率谷과 本神과 陽白이고 臨泣과 目  
 窓과 正營이 부른다. 承靈과 天衝과 浮白이 차례대로  
 있고 完骨과 竅陰과 腦空이 흔들린다. 風池와 肩井과  
 淵腋의 부분이고 輒筋과 日月과 京門의 標이다. 帶脈  
 과 五樞와 維道가 이어지고 居髌와 環跳는 風市가 맞  
 이한다. 中瀆과 陽關과 陽陵穴로 내려간다. 陽交와  
 外丘와 光明이 밤이 되고 陽輔와 懸鍾과 丘墟의 밖이  
 다. 足臨泣과 地五會와 俠谿이니 第4指의 말단에 竅  
 陰으로 끝난다.

29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92.

(12)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

① 『鍼灸大全』<sup>295)</sup>, 『楊敬齋鍼灸全書』<sup>296)</sup>

【原文】

厥陰在足이니 肝經所終이라. 起大敦於行間이요 循  
 太衝於中封이라. 蠡溝中都之會요 膝關曲泉之宮이라.  
 襲陰包於五里兮여 陰廉乃發이요 尋羊矢於章門兮여  
 期門可攻이라.

【解釋】

厥陰이 足에 있으니 肝經이 마치는 곳이다. 大敦  
 을 行間에서 일으키고 太衝을 中封에서 따른다. 蠡溝  
 와 中都의 모임이고 膝關과 曲泉의 宮이다. 陰包를  
 五里에서 이음이며 陰廉이 이에 發하고 羊矢를 章門  
 에서 찾음이며 期門에서 가히 專攻한다.

② 『凌門傳授銅人指穴』<sup>297)</sup>

【原文】

足中厥陰肝經是니 大敦行間太衝始라. 中封蠡溝中  
 都傳이요 膝關曲泉陰包絡이라. 五里陰廉至羊矢요 章  
 門直到期門止라.

【解釋】

足中の 厥陰은 肝經이니 大敦과 行間과 太衝에서  
 시작한다. 中封과 蠡溝와 中都라고 傳하고 膝關과 曲  
 泉과 陰包가 얽혀 있다. 五里와 陰廉에서 羊矢에 이  
 르고 章門은 곧장 期門에 이르러 그친다.

③ 『鍼灸神書』<sup>298)</sup>

【原文】

足厥大敦行間穴이요 太衝中封蠡溝列이라. 中都膝  
 關至曲泉이요 陰包五里陰廉切이라. 羊午章門近期門  
 이요 復始太陰雲門接이라. 老師便使神針法이요 病人  
 良心久中悅이라.

295)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96)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97)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98)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解釋]

足厥陰은 大敦과 行間穴이고 太衝과 中封과 蠡溝가 배열되어 있다. 中都와 膝關에서 曲泉에 이르고 陰包와 五里와 陰廉이 밀접하게 있다. 羊午와 章門이 期門과 가깝고 다시 太陰에서 시작하니 雲門과 接한다. 老師는 곧 神針의 법으로 삼고 病人은 良心에 오래도록 속으로 기뻐한다.

④ 『金針秘傳』<sup>299</sup>, 『經絡匯編』<sup>300</sup>, 『經絡考』<sup>301</sup>, 『中西匯參銅人圖說』<sup>302</sup>, 『經脈圖考』<sup>303</sup>

①과 동일함.

⑤ 『針灸聚英』<sup>304</sup>, 『十四經發揮』<sup>305</sup>

【原文】

足肝經十三穴이니 大敦行間太衝列이라. 中封蠡溝及中都이요 膝關曲泉膝內微이라. 陰包五里上陰廉이요 章門期門貫上髀이라.

[解釋]

足の 肝經은 13개의 穴이니 大敦과 行間과 太衝이 배열되어 있다. 中封과 蠡溝 및 中都이고 膝關과 曲泉은 膝內에서 끝난다. 陰包와 五里에서 陰廉으로 올라가고 章門과 期門에서 髀를 貫通하여 올라간다.

⑥ 『靈樞經脈翼』<sup>306</sup>

【原文】

足中厥陰肝經은니 大敦行間太衝始라. 中封蠡溝中

都傳이요 膝關曲泉陰包裏라. 五里陰廉至章門이요 相將直到期門止라.

[解釋]

足中の 厥陰은 肝經이니 大敦과 行間과 太衝으로 시작한다. 中封과 蠡溝와 中都라고 傳하고 膝關과 曲泉과 陰包的 안에 있다. 五里와 陰廉에서 章門에 이르고 서로 잡아서 곧장 期門에 이르러 그친다.

⑦ 『刺灸心法要訣』<sup>307</sup>

【原文】

足厥陰經一十四이니 大敦行間太衝是라. 中封蠡溝伴中都요 膝關曲泉陰包次라. 五里陰廉上急脈이요 章門才過期門至라.

[解釋]

足厥陰經은 14개이니 大敦과 行間과 太衝이다. 中封과 蠡溝는 中都와 同伴하고 膝關과 曲泉과 陰包가 차례로 있다. 五里와 陰廉은 急脈으로 올라가고 章門은 막 期門을 지나서 이른다.

⑧ 『鍼灸大成』<sup>308</sup>

①과 동일함.

⑨ 『類經圖翼』<sup>309</sup>

⑧과 동일함.

⑩ 『醫學入門』<sup>310</sup>

【原文】

一十三穴足厥陰이니 大敦行間太衝侵이라. 中封蠡溝中都近이요 膝關曲泉陰包臨이라. 五里陰廉羊矢穴이요 章門常對期門深이라.

[解釋]

13穴이 足厥陰이니 大敦과 行間과 太衝이 침입한다. 中封와 蠡溝는 中都와 가깝고 膝關과 曲泉과 陰包가 다다른다. 五里와 陰廉과 羊矢穴이고 章門은 항

299)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0)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1)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2)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3)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4)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18.  
305)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6)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07)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90.  
30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9.  
30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78.  
31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98.

상 期門에 對하여 竝다.

### Ⅲ. 考 察

『刺灸心法要訣』과 『經脈圖考』의 循行歌에는 그 注釋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靈樞』의 문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手太陰肺經

① 肺手太陰之脈은 起於中焦하야

中焦에서 起始하는 곳은 任脈의 中脘穴을 지적한다. 肺經의 脈은 肝經 脈의 期門穴로부터 시작하여 中脘穴을 循行하게 된다.

② 下絡大腸하고 還循胃口하야 上膈屬肺하고

이는 인체 내부의 絡脈을 말한 것이지, 肺經의 本經脈을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四肢 말단에서 表裏의 經脈이 接하는 絡脈과도 다르다.

③ 從肺系橫出腋下하야 下循膈內호대 行少陰心主之前하야 下肘中하고

肺系를 따라서 옆으로 腋下로 나오는데 가슴에서는 中府, 雲門에 이르고 膈內의 天府, 俠白을 循行하되 手少陰 心經의 脈과 手厥陰 心包經의 脈보다 앞쪽으로 行한다. 肘中은 尺澤을 말한다.

한편, 현재 통행되는 『鍼灸學』 서적에서 『靈樞』과 이상 3種 循行歌의 肺經의 循行 內容을 근거로 天府의 위치를 “腋下 三寸 動脈”<sup>311)</sup>에서 “腋下 3寸의 上腕二頭筋 中”<sup>312)</sup>으로 옮겼고, 俠白의 위치를 “天府下去肘五寸 動脈”<sup>313)</sup>에서 “上腕二頭筋腱의 撓側”<sup>314)</sup>으로 옮겼다. 그러나 『醫學入門』 등 古來의 鍼灸書籍에 의하면 天府, 俠白이 모두 脈動處임에 注意하면 두 穴이 모두 上腕動脈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따라서 手少陰經과 手厥陰經의 循行線과 함께 上腕二頭筋의 內側緣을 經유하는 것으로 고쳐야 옳다.

311) 李樞.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p.259.  
312)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5.  
313) 李樞.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p.259.  
314)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305.

④ 循臂內 上骨下廉하야 入寸口 上魚하고

尺澤에서 다시 臂內의 上骨인 撓骨의 下廉에 있는 孔最를 따라서 寸口에 있는 列缺, 經渠, 太淵으로 들어가서 手掌의 魚腹으로 들어간다.

⑤ 循魚際하야 出大指之端이라

太淵으로부터 魚腹을 따라서 엄지손가락의 內側端인 少商으로 나와서 肺經의 脈이 끝난다.

⑥ 其支者는 從腕後直出次指內廉하야 出其端이라 그 肺經의 가지로 뻗은 絡脈은 腕後의 列缺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곧장 次指의 內廉을 따라서 그 끝인 商陽으로 나와서 手陽明 大腸의 經脈과 만난다.

#### (2) 手陽明大腸經

① 大腸手陽明之脈은 起於大指次指之端하야

‘大指에서 나온다.’는 것은 大指의 少商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本經(大腸經)의 支絡은 次指의 端에서 곧장 나와서 手陽明 大腸經의 商陽穴에서 만나므로 ‘大指 次指의 端에서 起始한다.’고 하였다.

② 循指上廉하야 出合谷兩骨之間하야

商陽穴로부터 食指의 上廉을 따르니 二間, 三間穴에 해당한다. 三間穴로부터 兩骨의 사이를 따라서 나오니 合谷穴에 해당한다.

③ 上入兩筋之中하야

合谷으로부터 兩筋의 사이로 올라오니 陽溪穴에 해당한다.

④ 循臂上廉하야 入肘外廉하야 上膈外前廉하야

陽溪穴로부터 臂의 上廉을 따라서 偏曆, 溫溜, 下廉, 上廉, 三里穴에 이른다. 三里穴로부터 肘의 外廉에 들어가니 曲池穴에 해당한다. 曲池穴로부터 膈外의 前廉으로 올라가니 肘髎, 五里, 臂臑穴에 해당한다.

⑤ 上肩하야 出髃骨之前廉하야

臂臑穴로부터 肩으로 올라가니 肩髃穴에 해당한다. 肩髃穴로부터 髃骨의 前廉으로 나오니 巨骨穴에 해당한다.

⑥ 上出於柱骨之會上하야 下入缺盆하야

‘위로 柱骨의 會上으로 나온다.’는 것은 督脈의 大椎穴에서 만남을 말한 것이다. 督脈의 大椎穴로부터 들어가서 足陽明胃經의 缺盆穴과 만난다.

⑦ 絡肺하고 下膈屬大腸이라 其支者는 從缺盆上頸하여 貫頰하여 入下齒中하야

肺에 絡하고 膈을 내려가서 大腸에 속한다. 그 支絡은 缺盆으로부터 頸으로 올라가고 다시 本經의 天鼎穴을 따라서 頰을 뚫고 扶突穴에 이름을 말한다. 扶突穴로부터 下齒의 속의 禾膠穴에 들어간다.

⑧ 還出挾口하야 交人中하야 左之右하고 右之左하야 上挾鼻孔이라

禾膠穴로부터 도로 나와서 口를 끼어서 人中에서 交叉하되 左는 右로 가고 右는 左로 가서 위로 鼻孔의 迎香穴을 끼어서 끝나며 足陽明胃經과 만난다.

### (3) 足陽明胃經

① 胃足陽明之脈은 起於鼻하야 (之)交頰中하야 鼻에서 起始하여 頰(콧마루; 산근)에서 交叉하는 것을 말한다.

② 旁納太陽之脈하야 足太陽脈은 睛明穴에서 일어나서 頰과 가깝고 陽明이 頰中에서 교차하여 내려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③ 下循鼻外하야 入上齒中하야 還出挾口環唇하고 下交承漿하고

鼻外는 承泣, 四白, 巨膠가 있는 곳이다.

④ 却循頤後下廉하야 出大迎하야 循頰車하야 頤後는 下廉을 지적한다.

⑤ 上耳前하야 過客主人하야 循髮際하야 至額顛라

耳前은 下關을 지적한다. 髮際를 따른다는 것은 頭維로 올라가서 督脈의 神庭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⑥ 其支者는 從大迎前下人迎하야 循喉嚨 入缺盆하야 下膈하야 屬胃하고 絡脾라

胃에 屬하는 곳은 上脘, 中脘의 분야에 해당한다.

⑦ 其直者는 從缺盆下乳內廉하야 下挾臍하야 入氣街中이라

缺盆으로부터 乳中, 天樞, 外陵 등의 혈로부터 氣街로 들어간다.

⑧ 其支者는 起於胃口하야 下循腹裏하야 下至氣街中而合하야

胃口는 幽門을 지칭하며, 腹裏는 足少陰脈의 盲脇의 밖을 지나는 것을 말한다. 氣街에 들어가서 습한다는 것은 이 支脈이 ⑦의 直脈과 합해짐을 의미한다.

⑨ 以下體關하야 抵伏兔하야 下(入)膝臑中하야 下循脛外廉하야 下足跗하야 入中指內間이라

膝臑은 犢鼻을, 脛外廉은 巨虛를, 足跗는 衝陽 등을 지칭한다. 中指內間은 厲兌를 지칭한다.

⑩ 支者는 下膝[廉]三寸而別하야 下入中指外間이라

膝[廉]三寸은 豐隆을 지칭하니, 이는 足陽明經의 別絡이다.

⑪ 其支者는 別跗上하야 入大指間出其端이라 또 갈라진 支脈은 跗上의 衝陽으로부터 大趾의 사이로 들어가서 足厥陰經의 行間으로 나온다.

### (4) 足太陰脾經

① 脾足太陰之脈은 起於大指之端하야 循指內側白肉際하야 過核骨後하야 上內踝前廉하야 ‘大指之端’은 隱白을 지칭한다.

② 上踰[臑]內하야 循脛骨後하야 交出厥陰之前하야

脛骨後는 漏谷을 지칭한다. ‘交出足厥陰之前’은 臍地機의 분야를 말한다.

③ 上(循)膝股內前廉하야 入腹하야 入腹은 衝門을 지칭한다.

④ 屬脾하고 絡胃하며 絡謂는 中脘과 下脘의 분야에 해당한다.

⑤ 上膈挾咽하야 連舌本하고 散舌下라.

⑥ 其支者는 復從胃하야 別上膈하야 注心中이라. 足太陰脈이 外行하는 것은 腹의 四行 上의 府舍, 腹結로 경유해서 胸中의 大包에서 그치고, 여기의 支脈은 內行하는 支脈을 말한다.

### (5) 手少陰心經

① 心手少陰之脈은 起於心中하야 出屬心系하야 心中은 五椎의 下에 해당한다. 心系가 다섯인데, 위로 肺와 아래로 脾, 肝, 腎와 이어진다.

② 下膈 絡小腸이라

臍上二寸, 下腕의 분야에 해당한다.

③ 其支者是 從心系하여 上挾咽하여 繫目系라  
‘從心系’하여 任脈의 밖으로 나와서 ‘上挾咽’한다.  
目系에 맨다는 것은 目內眥에 합하는 것을 지칭한다.

④ 其直者是 復從心系却上肺하여 (下)出腋下하여  
‘其直者’는 正脈을 지칭한다. ‘却上肺’하여 足少陽의 淵腋의 분야를 경유하여 ‘出腋下’하여 極泉으로 나온다. 本經의 外行하는 것이 腋下의 極泉에서 시작한다.

⑤ [下]循臑內後廉하여 行太陰心主之後하여  
‘臑內後廉’은 靑靈穴을 지칭한다. ‘行太陰心主之後’은 手三陰에서 少陰이 太陰과 厥陰의 뒤에居하는 것을 지칭한다.

⑥ 下肘內하여 循臂內後廉하여 抵掌後銳骨之端하여  
‘銳骨之端’은 神門穴을 지칭한다.

⑦ 入掌內(後)廉하여 循小指之內하여 出其端이라  
手少陰經이 여기에서 그치고, 小指外側과 교차하여 手太陽經과 接한다.

#### (6) 手太陽小腸經

① 小腸手太陽之脈은 起於小指之端하여  
‘小指之端’은 外側인 少澤에서 起始함을 지칭한다.

② 循手外側하여 上腕하여 出踝中하여 直上循臂骨下廉하여

‘踝中’은 예골(銳骨)을 지칭한다.

③ 出肘內側兩筋之間하여 上循臑外後廉하여  
‘兩筋之間’은 本經이 臂骨 下廉의 陽谷 等穴을 지칭한다. ‘出肘內側’은 兩骨尖中の 小海穴을 지칭한다. 특히 이 穴은 누르면 小指에 應한다고 하였다. 臑外後廉은 手陽明, 手少陽의 밖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出肩解하여 繞肩胛하여  
肩後의 骨縫을 ‘肩解’라고 하니 즉 肩貞穴이다. 肩胛은 臑俞, 天宗 등을 말한다.

⑤ 肩上下하여 入缺盆하여  
交肩之上(乘風, 曲垣等穴, 左右交於兩肩之上, 會於督脈之大椎)入缺盆,

⑥ 絡心하고 循咽下膈抵胃하여 屬小腸이라

絡心은 缺盆으로부터 胸中을 경유하여 下行하여 膈中으로 들어가서 心에 絡하는 것을 지칭한다. ‘屬小腸’은 臍上 二寸의 분야에 해당한다.

⑦ 其支者是 從缺盆循頸上頰하여 至目眥皆하여 却入耳中이라

‘其支者’는 小腸經의 外行하는 路線이다. 缺盆에서 나와서 頸中の 天窗을 지적하며, ‘上頰’은 天容을 지적하며, 顳膠를 경유하여 耳中の 聽宮으로 들어간다.

⑧ 其支者是 別頰上頰하여 抵鼻하여 至目內眥하여 斜絡於顳이라

‘其支者’ 얼굴의 支脈으로서 ‘別頰’은 頰車, 顳膠를 지적한다. ‘至目內眥’는 그 絡이 足太陽의 睛明과 接한다.

#### (7) 足太陽膀胱經

① 膀胱足太陽之脈은 起於目內眥하여 上額交巔이라

目內眥는 睛明을 지칭한다. ‘上額交巔’은 攢竹으로부터 絡却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비스듬히 巔頂의 百會에서 교차한다.

② 其支者是 從巔至耳上角이라

그 支脈은 足少陽의 曲鬢, 率骨, 天沖, 浮白, 竅陰, 完骨을 지나므로 이 六穴은 모두 足太陽, 足少陽의 交會處가 된다.

③ 其直者是 從巔入絡腦하고

直脈은 百會로부터 通天, 絡郤, 玉枕을 거쳐 들어가서 腦中에 絡한다.

④ 還出別下項하여 循肩膊하여

腦로부터 다시 나와서 나뉘어 項으로 내려가서 天柱를 경유하여 내려와서 督脈의 陶道, 絡郤에서 모여서 肩膊內를 따라서 四行으로 나뉘어 내려간다.

⑤ 內挾脊하여 抵腰中하여

이는 안의 兩行을 말한다.

⑥ 入循膂하여 絡腎하고 屬膀胱이라

⑦ 其支者是 從腰中下挾脊하여 貫臀하여 入膕中이라

腰中으로부터 髀骨을 따라서 내려가서 脊을 끼고 四膠穴을 지나서 臀의 會陽을 따라서 내려가서 承扶,

委陽 等穴을 행하여 委中으로 들어간다.

⑧ 其支者是 從膊內左右하야 別下貫胛하야

一支는 肩膊內 大杼下의 밖의 兩行으로서, 左右로 胛을 관통하여 脊에서 各 三寸을 떨어져서 附分, 魄戶 等穴을 지나서 下行한다.

⑨ 挾脊하야 內過脾樞循脾外하야 從後廉下合膈中하야

‘合膈中’은 秩邊을 경유하여 脾樞를 지나서 足少陽의 環跳穴을 지나서 脾의 外後廉을 따라서 承扶에서 一寸五分을 떨어져서 下行하여 다시 앞의 膈中으로 들어간 것과 相合한다.

⑩ 以下貫踰內하야 出外踝之後하야 循京骨하야 至小指外側이라

### (8) 足少陰腎經

① 腎足少陰之脈은 起於小指之下하야 邪走足心하야

② 出於然谷之下하야 循內踝之後하야 別入跟中하야

③ 以上踰內하야 出膈內廉하야

復溜, 交信으로부터 足太陰의 三陰交를 지나서 膈內의 築賓으로 올라가서 膈內廉의 陰谷으로 나오는 것을 지칭한다.

④ 上股內後廉하야 貫脊하야

‘貫脊’이란 督脈의 長強에 맺어서 脊中을 관통하여 뒤로 腎에 속하는 것을 지칭한다.

⑤ 屬腎하고 絡膀胱이라

앞으로 關元, 中極의 분야에 해당하여 膀胱에 絡한다.

⑥ 其直者是 從腎上貫肝膈하야 入肺中하야 循喉嚨하야 挾舌本이라

‘從腎’은 盲俞의 분야에 해당한다. ‘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은 盲俞로부터 上行하여 商曲 等穴을 따라서 俞府에 이르러 喉嚨을 따라서 人迎과 나란히 舌本을 끼어서 그치는 것을 지칭한다.

⑦ 其支者是 從肺出絡心하야 注胸中이라

‘其支者’는 神藏의 즘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지칭한다.

『經脈圖考』에 의하면, 이상에서 足少陰經은 本篇과 「經別」, 「經筋」 等篇을 살펴보면 모두 “脊裏를 경유하여 위로 心肺에 注入하여 胸中에서 흠어진다.”고 말하였고, 오직 「骨空論」에 “衝脈이 氣街에서 起始하여 少陰經과 並行하여 臍를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러 흠어진다.”고 하였다. 『甲乙經』에서 「骨空論」의 내용에 따라서 “俞府의 아래에서 步廊 等の 六穴에 이르기까지 모두 足少陰脈氣가 發하는 곳이라고 하고 幽門으로부터 橫骨 等の 十一穴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衝脈과 足少陰의 交會다.”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면, 현재 통용하고 있는 足少陰腎經의 循行線 중에서 腹部의 正中線에서 5分 떨어진 處로 上行하는 부분은 그 지지할 만한 증거가 약하다. 또한 黃龍祥에 의하면 “衝脈이 하행하여 滎部로 순행하는 선은 ‘并少陰之經’할 수 있고 복부로 內行하는 분지는 ‘注少陰之絡’할 수 있지만 복부의 外行線이 ‘并少陰之經’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315)</sup>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腎經의 循行線에 대해서 현재 『甲乙經』을 근거로 腹部의 正中線에서 5分 떨어진 處로 上行하는 橫骨穴부터 幽門穴에 이르는 11개의 穴이 지나가며 衝脈과의 交會穴이라고 하였으나, 『靈樞·經脈篇』과 「經別」, 「經筋」 等과 衝脈의 循行線을 언급한 「骨空論」을 근거로 ‘脊裏를 경유하여 心肺로 注入하여 胸中으로 흠어지는 內行하는 循行線’으로 고쳐야 옳다고 본다.

### (9) 手厥陰心包經

①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은 起於胸中하야

② 出屬心包絡하야 下膈하야 歷絡三焦라

③ 其支者是 循胸出脇하야

‘胸’은 膈中을 지칭한다.

④ 下腋三寸하야 上抵腋下하야

‘下腋三寸’은 天池穴을 지칭한다. 本經의 外行하는 脇下에 여기에서 시작한다. ‘腋下’는 天泉을 지칭한다.

⑤ 循膈內하야 行太陰少陰之間하야

手三陰에서 厥陰이 가운데로 행한다.

315)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426.

- ⑥ 入肘中하야 下臂하야 行兩筋之間하야  
‘入肘’는 曲澤穴을 지칭한다. ‘兩筋之間’은 掌後의 兩筋 橫紋의 陷中이니 內關, 大陵 等穴을 지칭한다.
- ⑦ 入掌中하야 循中指하야 出其端이라  
掌中은 勞宮穴을 지칭한다. ‘出其端’은 中衝穴에서 그친다.
- ⑧ 其支者는 別掌中하야 循小指次指하야 出其端이라  
勞宮으로부터 나뉘어서 無名指端으로 行한다.

(10) 手少陽三焦經

- ① 三焦手少陽之脈은 起於小指次指之端하야  
‘小指次指’는 無名指를 지칭한다.
- ② 上出兩指之間하야 循手表腕하야 出臂外兩骨之間하야  
‘兩指之間’은 液門, 中渚를 지칭한다. ‘手表腕’은 陽池를 지칭한다. ‘兩骨之間’은 外關, 支溝를 지칭한다.
- ③ 上貫肘하야 循臑外하야  
‘貫肘’는 天井을 지칭한다.
- ④ 上肩而交出足少陽之後하야  
‘上肩’은 臑外를 따라서 手太陽의 앞을 行하는 것으로서 清冷淵, 消灑, 臑會, 肩髃를 지칭한다. ‘出足少陽之後’는 足少陽의 肩井을 지나서 天膠로부터 足少陽의 後로 나오는 것을 지칭한다.
- ⑤ 入缺盆하야 布臑中하야 散絡心包하야 下膈하야  
⑥ 循屬三焦라  
‘循屬三焦’는 足太陽과 竝行하여 輔臑, 즉 足太陽의 委陽穴로 내려가는 것을 지칭한다.
- ⑦ 其支者는 從臑中上出缺盆하야  
‘出缺盆’은 天膠를 따르는 것을 지칭한다.
- ⑧ 上項하야 繫耳後하야  
‘上項’은 督脈의 大椎에서 모여서 天膠를 따르는 것을 지칭한다. ‘繫耳後’는 翳風穴을 지칭한다.
- ⑨ 直上出耳上角하야 以屈下頰至頰이라  
角孫은 耳上角으로서 이곳을 경유하여 足少陽의 懸厘, 頰厭을 지난다.
- ⑩ 其支者는 從耳後入耳中하야 出走耳前하야

‘耳後’는 翳風을 말한다. ‘耳中’은 手太陽의 聽宮을 지칭한다. ‘耳前’은 耳門을 말한다.  
⑪ 過客主人前하야 交頰하야 至目銳眥라  
交頰은 和膠를 따라서 絲竹空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至目銳眥’는 瞳子膠에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足少陽經과 接한다.

(11) 足少陽膽經

- ① 膽足少陽之脈은 起於目銳眥하야  
目銳眥는 瞳子膠穴을 지칭한다.
- ② 上抵頭角하야 下耳後하야  
目銳眥로부터 聽會, 客主人을 경유하여 위로 頭角에 이르러서 頰厭으로 올라갔다 懸顛, 懸厘로 내려와서 耳上의 髮際로부터 曲鬢, 率谷으로 行하여 手陽明의 角孫을 지나고 耳後로 가서 天衝, 完骨 等穴을 行하고 完骨로부터 上行하여 本神을 따라서 앞으로 陽白에 이르고 다시 안쪽으로 上行하여 臨泣, 腦空 等穴을 行하여 風池를 경유하여 下行한다.
- ③ 循頸하야 行手少陽之前하야  
頸은 手少陽의 天膠를 지칭한다.
- ④ 至肩上却交出手少陽之後하야 入缺盆이라  
肩은 肩井을 지칭한다. 手少陽之後는 督脈의 大椎를 지나서 手太陽의 秉風에서 모이는 것을 말한다.
- ⑤ 其支者는 從耳後入耳中하야  
耳後는 顛顛의 위치로서 手少陽의 翳風穴을 지나 는 것이고, 耳中은 手太陽의 聽宮을 지나 는 것을 말한다.
- ⑥ 出走耳前하야 至目銳眥後라  
耳前은 聽會를 지칭한다.
- ⑦ 其支者는 別銳眥하야 下大迎하야  
大迎은 足太陽穴으로서 頰前의 一寸三分의 動脈陷中에 있다.
- ⑧ 合於手少陽하야 抵於頰下하야 加頰車하야 下頰하야  
手少陽은 絲竹, 和膠의 穴位를 지칭한다.
- ⑨ 合缺盆하야 以下胸中하야  
그 足陽明으로 내려가는 脈은 下關에 합하여 頰車로부터 頸으로 내려가서 本經의 앞을 지나서 앞의 缺

盆으로 들어가는 것과 相合하여 胸中으로 들어간다.

⑩ 貫膈하여 絡肝하고 屬膽하여

胸中の 手厥陰 天池의 분야로부터 膈과 足厥陰의 期門의 분야를 貫通하여 肝 本經의 日月의 분야에 絡하고 膽에 屬하여 表裏가 된다.

⑪ 循脇裏하여 出氣街하여

循脇裏는 足厥陰의 章門을 經유하는 것을 지칭한다.

⑫ 繞毛際하여 橫入髀厭中이라

繞毛際는 足厥陰과 合함을 지칭한다. 髀厭中은 環跳穴을 지칭한다.

⑬ 其直者는 從缺盆下腋하여 循胸하여

⑭ 過季脇하여 下合髀厭中以下하여

季脅은 肝經의 章門을 지칭한다. ‘下合髀厭中’은 直下하여 外行하는 노선이 缺盆으로부터 腋으로 내려와서 胸을 따라서 淵液, 軋筋, 日月을 지나서 季脅을 지나서 京門, 帶脈 等穴을 따라서 下行하고 居膠를 經유하여 足太陽의 四膠로 들어가고 下行하여 다시 앞의 髀厭으로 들어간 脈과 環跳穴에서 相合하는 것을 지칭한다.

⑮ 循髀陽하여 出膝外廉하여 下外輔骨之前하여

髀陽은 髀의 外側에서 나오는 것을 지칭한다. 輔骨은 膝下 兩旁의 高骨을 지칭한다. ‘輔骨之前’은 髀陽을 經유하여 太陽, 陽明의 가운데를 행하여 中瀆, 陽關을 經유하여 膝外廉으로 나와서 外輔의 앞으로 내려가서 陽陵泉으로부터 陽交 等穴로 내려가는 것을 지칭한다.

⑯ 直下抵絕骨之端하여 下出外踝之前하여 循足跗上하여 入小指次指之間이라

‘直下抵絕骨之端’은 陽輔穴에서 懸鍾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칭한다. ‘循足跗上’은 足面上의 丘墟, 臨泣 等穴을 따르는 것을 지칭한다. ‘入小指次指之間’은 竅陰穴에 이르러 마침을 지칭한다.

⑰ 其支者는 別跗上하여 入大指之間하여 循大指岐骨內하여

⑱ 出其端하여 還貫爪甲하여 出三毛라

(12) 足厥陰肝經

① 肝足厥陰之脈은 起於大指叢毛之際하여

‘大指叢毛’는 足大指 爪甲의 橫紋後 毛際인 大敦穴을 지칭한다.

② 上循足跗上廉하여 去內踝一寸하여

內踝一寸은 中封을 지칭한다.

③ 上踝八寸하여 交出太陰之後하여 上關內廉하여

上踝八寸은 中都를 지칭한다. ‘上關內廉’은 膝關, 曲泉 等穴을 지칭한다.

④ 循股陰하여 入毛中하여 過陰器하여

‘循股陰’은 陰包, 五里, 陰廉로부터 위로 足太陰의 衝門, 府舍와 만나는 것을 지칭한다. ‘入毛中’은 急脈을 지칭한다. ‘過陰器’는 左右로 서로 교차하여 陰器를 돌아서 任脈의 曲骨에서 만나는 것을 지칭한다.

⑤ 抵小腹하여 挾胃屬肝하여 絡膽하고

‘抵小腹’은 前陰에서 올라와서 小腹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挾胃屬肝’은 任脈의 中極, 關元和 만나서 章門을 따라서 期門에 이르는 것을 지칭한다. ‘絡膽’은 足少陽의 日月로 내려가서 膽에 絡하는 것을 지칭한다.

⑥ 上貫膈하여 布脇肋하여

‘上貫膈’은 期門으로부터 올라와서 膈을 貫通하는 것을 지칭하고, ‘布脇肋’은 足太陰의 食竇의 밖과 大包의 안으로 행하여 脅肋으로 散布하는 것을 지칭한다. 脇肋에서 足少陽의 淵腋과 手太陰의 雲門의 아래로 가는 것을 지칭한다.

⑦ 循喉嚨之後하여 上入頰頰하여 連目系하여

⑧ 上出額하여 與督脈會於巔이라

內行하는 맥은 脅肋間으로부터 足陽明의 人迎之外를 經유하여 喉嚨의 뒤로부터 頰頰으로 들어가서 足陽明의 大迎, 地倉, 四白의 밖으로 행하여 안으로 目系와 이어져서 위로 足少陽의 陽白의 밖과 臨泣의 안으로 행하여 督脈으로 頂의 百會에서 만난다.

⑨ 其支者는 從目系下頰裏하여 環唇內라

⑩ 其支者는 復從肝하여 別貫膈하여 上注肺라

‘復從肝’은 앞의 期門으로부터 足太陰의 食竇의 外와 本經의 裏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鍼灸大全』, 『靈樞經脈翼』, 『凌門傳授銅人指穴』, 『楊敬齋鍼灸全書』, 『針灸聚英』, 『鍼灸大成』, 『鍼灸神

書』, 『鍼灸甲乙經』, 『金針秘傳』, 『鍼灸集成』, 『扁鵲神應鍼灸玉龍經』, 『經絡全書』, 『鍼灸易學』, 『普濟方』, 『鍼經指南』, 『黃帝明堂灸經』, 『鍼經節要』, 『針灸資生經』, 『鍼灸素難要旨』, 『經穴匯解』, 『四方子明堂灸經』, 『經絡考』, 『十四經發揮』, 『十四經發揮』, 『神應經』, 『鍼灸逢源』, 『類經圖翼』, 『資生集』, 『中西匯參銅人圖說』, 『鍼灸問答』 『醫學入門』 등에는 순행가(循行歌)의 가부(歌賦)가 없다.

두 번째로 經穴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經穴歌는 대체로 10가지로 細分할 수 있으며, 『鍼灸甲乙經』, 『鍼灸集成』, 『扁鵲神應鍼灸玉龍經』, 『經絡全書』, 『鍼灸易學』, 『普濟方』, 『鍼灸問對』, 『鍼經指南』, 『黃帝明堂灸經』, 『鍼經節要』, 『針灸資生經』, 『鍼灸素難要旨』, 『經穴匯解』, 『四方子明堂灸經』, 『十四經發揮』, 『神應經』, 『鍼灸逢源』, 『資生集』, 『鍼灸問答』 등에는 경혈가(經穴歌)의 가부(歌賦)가 없다.

經穴歌는 그 起始穴과 終止穴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體幹에서 終止하는 經穴歌와 둘째는 手太陰肺經의 中府에서 시작하여 如環無端하게 四肢와 體幹을 서로 循環하여 足厥陰肝經의 期門으로 끝나는 經穴歌다.

첫째에 해당하는 經穴歌에는 『鍼灸大全』, 『楊敬齋鍼灸全書』, 『鍼灸大成』 등이 있으며, 둘째에 해당하는 經穴歌에는 『凌門傳授銅人指穴』, 『鍼灸神書』, 『金針秘傳』, 『經絡匯編』, 『經絡考』, 『中西匯參銅人圖說』, 『經脈圖考』, 『針灸聚英』, 『十四經發揮』, 『刺灸心法要訣』, 『類經圖翼』, 『醫學入門』 등이 있다.

한편 馬王堆 帛書 『足臂十一脈』, 『陰陽十一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穴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循行하는 부위만 제시한 것처럼 보이므로 적지 않은 연구가 들이 經脈의 循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으나, 黃龍祥에 의하면 馬王堆 帛書가 著述되었을 때에는 아직 經穴이 歸經되지 않은 때이며, 그 名稱과 位置가 統一되지 않았다<sup>316)</sup>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循行歌와 經穴歌의 내용과 형식으로 미루어 보면, 『足臂十一脈』, 『陰陽十一脈』의 내용은 經脈의 循行을 나타내었다고 보기 보다는 四肢 末端에서 起始하여 體幹에서 終止하는 經穴의 路線을 나타낸 초기 형태로 볼 수도 있다.

한편 胃經의 經穴歌는 厲兌, 內庭의 四肢 末端으로 시작하여 下關, 頭維의 體幹으로 끝나는 것(『鍼灸大典』, 『楊敬齋鍼灸全書』, 『鍼灸大成』 등)과 頭維, 下關, 承泣, 四白의 體幹에서 시작하여 厲兌, 內庭의 四肢 末端으로 끝나는 것(『凌門傳授銅人指穴』, 『醫學入門』 등)과 承泣, 四白, 頭維, 下關의 體幹에서 시작하여 厲兌, 內庭의 四肢 末端으로 끝나는 것(『鍼灸神書』, 『金針秘傳』, 『經絡匯編』, 『經絡考』, 『中西匯參銅人圖說』, 『經脈圖考』, 『針灸聚英』, 『十四經發揮』, 『刺灸心法要訣』, 『類經圖翼』)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胃經의 경우 얼굴에서 經脈의 分支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지부터 시작하는 지에 따라서 1가지의 분류가 더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下關, 頭維로 끝나지 承泣, 四白으로 끝나는 없으므로, 만약 經脈이 如環無端으로 循環한다면 胃經은 頭維, 下關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IV. 結 論

이상으로 經穴歌賦 중에서 循行歌와 經穴歌를 懸吐, 解釋, 校勘하고, 그것을 근거로 十二經脈의 循行方向 및 部位에 있어서 현재 通用되는 經脈路線과의 차이점과 經穴歌의 分類에 대해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肺經의 循行歌에서 上肢部의 循行線에 대해 『靈樞』를 근거로 “下循臑內, 行少陰心主之前”이라고 하였으나, 『醫學入門』 등 古來의 鍼灸書籍에 의하면 天府와 俠白이 모두 上腕動脈 上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手少陰經과 手厥陰經의 循行線과 함께 上腕二頭筋의 內側緣을 경유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316)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p.939-951. 腧穴歸經 原流考의 대체적인 내용임.

2. 腎經의 循行歌에서 腹部的 循行線에 대해 『甲乙經』을 근거로 腹部的 正中線에서 5分 떨어진 處로 上行하는 橫骨穴부터 幽門穴에 이르는 11개의 穴이 지나가며 衝脈과 交會한다고 하였으나, 『靈樞·經脈篇』과 『經別』, 『經筋』 등과 衝脈의 循行線을 언급한 『骨空論』을 근거로 '脊裏를 경유하여 心肺로 注入하여 胸中으로 흘러지는 內行하는 循行線'으로 고쳐야 옳다.

3. 經穴歌는 그 起始穴과 終止穴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體幹에서 終止하는 經穴歌와 둘째는 手太陰肺經의 中府에서 시작하여 如環無端하게 四肢와 體幹을 서로 循環하여 足厥陰肝經의 期門으로 끝나는 經穴歌다.

4. 첫째에 해당하는 經穴歌에는 『鍼灸大全』, 『楊敬齋鍼灸全書』, 『鍼灸大成』 등이 있으며, 둘째에 해당하는 經穴歌에는 『凌門傳授銅人指穴』, 『鍼灸神書』, 『金針秘傳』, 『經絡匯編』, 『經絡考』, 『中西匯參銅人圖說』, 『經脈圖考』, 『針灸聚英』, 『十四經發揮』, 『刺灸心法要訣』, 『類經圖翼』, 『醫學入門』 등이 있다.

5. 이상의 循行歌와 經穴歌의 내용과 형식으로 미루어 보면 馬王堆 帛書 『足臂十一脈』, 『陰陽十一脈』은 經脈의 循行을 나타내기 보다는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體幹에서 終止하는 經穴 路線의 초기형태라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1. 瓊瑤真人 著, 裘沛然 編. 鍼灸神書·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 高武. 針灸聚英.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3. 萬慎庵 著, 裘沛然 編. 金針秘傳·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 無名 著, 裘沛然 編. 經絡匯編·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5. 無名 著, 裘沛然 編. 凌門傳授銅人指穴·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 徐鳳 著, 裘沛然 編. 鍼灸大全·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 沈承之 著, 經脈圖考·裘沛然 編. 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9. 吳謙 等.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서울. 法仁文化社. 2006.
10. 劉鍾衡 著, 裘沛然 編. 中西匯參銅人圖說·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1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3. 張三錫 著, 裘沛然 編. 經絡考·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 陳言 著, 裘沛然 編. 楊敬齋鍼灸全書·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5.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16. 夏英 著, 裘沛然 編. 靈樞經脈翼·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5.
18. 滑壽 著, 裘沛然 編. 十四經發揮·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9. 黃龍祥. 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